

# 스포츠 평화학의 실천적 영역으로서 스포츠 평화교육 개념 및 모형 탐구

2023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결과보고서

2024. 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 제출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스포츠 평화학의 실천적 영역으로서 스포츠 평화교육 개념 및 모형 탐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월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권순용

## 참여 연구진

책임연구원	권순용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보조연구원	박승일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보조연구원	김혜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보조연구원	전채영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보조연구원	송시현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보조연구원	이서우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 목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가. 국내 스포츠학에서 북한·통일 연구 .....	1
나. 스포츠를 통한 개발과 평화: ‘스포츠 평화학’의 요구 .....	2
다. ‘스포츠 평화학’의 실천 영역으로서 ‘스포츠 평화교육’ .....	3
2. 연구 목적 및 내용 .....	4
가. 연구 목적 .....	4
나. 연구 내용 .....	4
3. 연구방법 .....	5
가. 문헌 분석 .....	5
나.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 실태조사 .....	5
다. 전문가 심층면담 .....	6
II. 스포츠, 평화, 평화교육 .....	11
1. 스포츠-평화 그리고 평화학 .....	11
가. 스포츠-평화 연계: 양면성과 전략적 접근 .....	11
나. 평화의 개념과 평화학 그리고 스포츠 .....	13
다. 평화의 문화 패러다임과 스포츠 .....	16
2. 평화교육과 스포츠 .....	17
가. 평화교육의 개념 및 관점 .....	17
나. 평화교육의 영역 및 유형 .....	18
다. 스포츠와 평화교육 .....	20
라. 국내 평화교육에서의 스포츠 활용 사례 .....	21

<b>Ⅲ. 스포츠 평화교육 유관 영역</b> .....	<b>31</b>
<b>1. 스포츠를 통한 개발과 평화(SDP)</b> .....	<b>31</b>
가. 개념 .....	31
나. 프로그램 .....	32
다. 관련 쟁점 .....	33
라. SDP에서의 평화교육 .....	36
<b>2. 스포츠를 통한 긍정적 청소년 발달(PYD)</b> .....	<b>38</b>
가. 개념 .....	38
나. 프로그램 .....	40
다. 관련 쟁점 .....	42
라. PYD에서의 평화교육 .....	43
<b>3. 올림픽교육(OE)</b> .....	<b>43</b>
가. 개념 .....	43
나. 프로그램 .....	47
다. 관련 쟁점 .....	48
라. OE에서의 평화교육 .....	50
<b>4. 스포츠 인권교육(HRE)</b> .....	<b>50</b>
가. 개념 .....	50
나. 프로그램 .....	52
다. 관련 쟁점 .....	54
라. HRE에서의 평화교육 .....	56
<b>Ⅳ. 스포츠 평화교육 실태조사</b> .....	<b>61</b>
<b>1. 해외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b> .....	<b>61</b>
가. PeacePlayers International .....	61
나. Soccer Without Borders .....	65
다. Right to Play .....	69
라. 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 .....	71

마. Football 4 Peace .....	75
바. Peace and Sport .....	79
사. Kick4Life .....	82
아. Open Fun Football Schools .....	85
자. Laureus Sport for good .....	88
차. Generations for Peace .....	92
카. Peace First .....	96
<b>2. 국내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 .....</b>	<b>105</b>
가. 주최 기관별 분석 .....	105
나. 프로그램 유형별 분류 .....	109
<b>3. 전문가 심층면담 .....</b>	<b>111</b>
가. 평화에 대한 인식 .....	111
나. 평화교육으로서 스포츠의 활용 가능성 .....	114
다. 평화교육의 과제 .....	116
<b>4. 시사점 .....</b>	<b>119</b>
가. 지역 내 문제 해결 중심 접근 .....	119
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한 전략 .....	120
다. 프로그램의 연계성 확보 .....	120
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120
마. 보완점 .....	121
<b>V. 스포츠 평화교육의 개념과 모형 .....</b>	<b>125</b>
<b>1. 스포츠 평화교육의 프로그램 가치와 목표 .....</b>	<b>125</b>
<b>2. 스포츠 평화교육의 유형 분류 .....</b>	<b>125</b>
가. 스포츠의 활용 형태 .....	125
나. 참가 대상자 .....	126
다. 프로그램 구성 .....	127
라. 프로그램 기간 .....	127

3. 스포츠 평화교육의 개념 .....	128
4. 스포츠 평화교육의 모형 .....	128
가. 평화교육 내용에 따른 분류 .....	128
나. 유관 영역에 따른 분류 .....	130
다. 평화교육 목적에 따른 분류 .....	130
라. 평화교육의 구성요소에 따른 분류 .....	131
마. 스포츠 평화교육 모형 .....	131
VI. 요약 .....	135
참고문헌 .....	137



## <표 차례>

표 1. 전문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	6
표 2. 면담 질문 내용 .....	7
표 3. SDP 프로그램을 위한 세 가지 이념형 .....	36
표 4. 긍정적 청소년 발달에 대한 다양한 접근 .....	39
표 5. 올림픽주의의 기본 원칙 .....	44
표 6. 국제 올림픽 아카데미(IOA)의 목적 및 역할 .....	45
표 7.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가치 .....	53
표 8. F4P를 둘러싼 논의점 .....	78
표 9. Peacemakers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한 현장 조직 .....	80
표 10. Kick4Life의 발전과정 .....	83
표 11. ISF Cambodia(ISF) 프로그램 .....	90
표 12.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 분석 요약(1) .....	99
표 13.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 분석 요약(2) .....	101
표 14.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 분석 요약(3) .....	103
표 15. 유관영역 프로그램 S+, +S, SO에 따른 분류 .....	109
표 16. 스포츠 평화교육의 모형 .....	130

## <그림 차례>

그림 1. 피스모모 교육연수 활동사진 .....	22
그림 2. ‘포스트평창, 2030 사회적 대화’활동 사진 .....	23
그림 3. 피스리더 활동 사진 .....	24
그림 4. 청소년 피스리더캠프 사진 .....	25
그림 5. 국제평화축구코리아의 활동 사진 .....	26
그림 6. High-Performance Tennis 포스터 .....	33
그림 7. 킷킷스쿨의 Learning App을 통한 활동 사진 .....	37
그림 8. 스포츠를 통한 긍정적 청소년 발달 모델 .....	40
그림 9. LiFEsports(+) Summer Camp 활동 사진 .....	40
그림 10. LiFEsports의 청소년 참여 결과 .....	41

그림 11. OVEP 활동 실천 가이드 .....	47
그림 12. K-올림픽 가치 교육 프로그램 활동 모습 .....	50
그림 13. CPSU 참여자들의 활동 사진 .....	53
그림 14. 광주시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운동부 스포츠 인권교육’을 듣고 있는 학생선수들의 모습 .....	56
그림 15. LA에서 진행되는 PPI 활동 사진 .....	62
그림 16. 키프로스의 썸머캠프 활동 사진 .....	63
그림 17. SWB 프로그램 소개 사진 .....	66
그림 18. 미국 SWB에서 진행한 Virtual Summer Academy(VSA) 프로그램 사진 .....	67
그림 19. Peacejam 프로그램 사진 .....	73
그림 20. Imagine Peace youth camp 홍보 포스터 사진 .....	74
그림 21. 잔물결 효과 모델 .....	76
그림 22. F4P 이스라엘의 활동 사진 .....	77
그림 23. Live Together through Sport(프랑스) 프로그램 활동 사진 .....	81
그림 24. Krida Vikas Sanstha-Slum Soccer, United Boxing의 활동 사진 .....	89
그림 25. ISF Cambodia(ISF), Fight for Peace(FFP)에서 진행되는 활동 사진 .....	91
그림 26. GF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 .....	94
그림 27. Sport For Peace 프로그램 중 축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	95
그림 28. Sport For Peace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여학생들의 활동사진 .....	95
그림 29. Peace First 포스터 .....	96
그림 30. 스포츠 평화교육 모형 .....	132



# 제1장



# 서론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가. 국내 스포츠학에서 북한·통일 연구

#### (1) 분단·정전체제 정치·외교 수단으로서 스포츠

우리나라 분단·정전체제에서 남북체육교류는 정치·외교의 계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따라서, 친선경기, 남북 단일팀, 공동입장, 공동응원 등과 같은 대회 및 경기 이벤트 차원의 기능적, 도구적 통합에 중점을 두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포츠는 주로 남북한 정치·외교 과정에서의 ‘국면전환 매개체’ 혹은 ‘의사협상(pseudo-negotiation) 수단’ 등 ‘도구적 유용성’ 차원에서만 인식되어왔다. 특히 분단국가라는 상징성을 지닌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화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올림픽을 통해서 드러내곤 하였다.

남북체육교류는 1956년 6월 10일 북한이 대한올림픽위원회에 남북연합선수 파견을 제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체육교류 제의 및 관련 회담이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탈냉전의 기류를 보이며 남북체육교류가 활성화되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개막식 공동입장과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결성을 성사시킨 것이 남북체육교류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또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남북 단일 여자 농구 국가대표팀이 참가하기도 하였다.

즉, 국내에서 스포츠는 국면전환의 매개체 혹은 의사협상의 수단, 남북교류에 있어서 도구적 유용성 차원에서 접근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스포츠학 내부의 평화 연구도 북한 또는 통일이라는 주제에 집중하였으며, 주로 남북체육교류의 정치외교적 효과에 대한 연구(김미숙, 2004; 정기웅, 2017)가 이루어져 왔다.

#### (2) 북한·통일 중심 연구지형과 스포츠 평화 연구의 공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통일·평화 연구는 분단·정전체제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스포츠와 관련된 북한 및 통일 연구에만 집중되어왔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체육을 통해 남북관계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통일로 이어지는 정치적·외교적 유의성 및 효과성 차원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최근 평화학 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일학적 관점과 유사한 맥락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 ‘평화’라는 영역이 제한적인 사고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었던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남북회담 개최 여부에 따라 스포츠 교류의 실적이 좌우된다는 주장은 정치·외교적인 남북체육교류가 실효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김동선, 2017).

이로 인해 남북체육교류도 기존 통일정책의 당위론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하며,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기존의 북한 및 통일 중심의 연구에서 평화학(peace studies)의 학문적 지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스포츠에 대한 평화학적 연구는 거의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나. 스포츠를 통한 개발과 평화: ‘스포츠 평화학’의 요구

### (1) ‘스포츠를 통한 개발과 평화(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영역의 성장

스포츠의 평화학적 접근의 필요성은 ‘스포츠를 통한 개발과 평화(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이하 SDP) 영역의 전지구적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SDP는 스포츠, 체육 및 신체활동, 그리고 놀이를 통하여 개인,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거나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노력이다(Young & Okada, 2014). SDP는 1990년대 후반 등장하여 2000년대부터 주도적인 글로벌 현상으로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의 한 영역으로서 개념화되어 왔다(Wilson, 2012). SDP가 주목받은 이유는 스포츠와 신체활동은 단순하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발전과 개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SDP IWG, 2007).

초기 SDP 프로그램은 비공식적, 즉흥적, 산발적으로 진행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지역, 국가, 국제 수준에서 SDP 조직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Kidd, 2008).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난 원인은 전쟁, 갈등, 빈곤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세계적인 문제가 대두되며,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한 새롭고 더욱 효과적인 방법 모색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Beutler, 2008).

이에 따라 SDP에 관한 인적, 조직적 자원, 재정적 수요와 공급, 전문 경력 및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 그리고 평가에 대한 지식 및 정보 공유 등 SDP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과정이 수반되었다(권순용, 2015). 특히, 2000년부터 추진되었던 UN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2015년부터 2030년까지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하 SDGs)와 관련하여 SDP 영역의 지속가능성과 연계되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 전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지역, 의료나 교육 혜택 등 기본적 복지제도 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이 중점 대상이었으나, SDGs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나 선진국도 포함하여 UN 및 산하 기구, IOC, FIFA 등 국제스포츠조직, SDP 기반 국제 비정부/비영리 조직, 프로스포츠 리그, 초국적 기업 등이 SDP 프로그램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운영해오고 있다(Giulianotti, 2012).

## (2) SDP 영역에 대한 학술적 분석과 논의의 축적

2000년대 초반, SDP 영역이 본격적으로 전지구적 사회운동(social movement) 현상으로 두드러지면서 스포츠 인문사회과학 영역에서 주요 학술적 탐구 대상으로 주목 받아왔다(Darnell, 2007; Donnelly et al., 2011; Levermore, 2008). SDP 영역을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 탐구가 적극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학술 논문뿐 아니라 단행본 및 전문 학술저널 또한 출간되고 있으며, 스포츠 인문사회과학 내 주된 연구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Coalter, 2013; Wilson 2012).

SDP 영역에 대한 초기 학술적 분석은 다양한 SDP 프로그램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및 범주화하는 것에 집중되어왔다(SDP IWG, 2006).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의 목적 차원(Levermore & Beacom, 2009), 스포츠 개입 정도의 차원(Coalter, 2007; Houlihan & White, 2002; Kidd, 2008; Levermore, 2008)에서 분류가 이루어졌다. 특히 스포츠 개입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시도에서 다양한 유형이 나타났다. 그 중 Coalter(2007)가 제안한 ‘Sport Plus’와 ‘Plus Sport’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평가된다. ‘Plus Sport’는 스포츠 개발보다 스포츠를 이용하여 다른 비스포츠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고, ‘Sport Plus’는 스포츠 개발에 중점을 두고 그의 후과로서 비스포츠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이러한 범주화가 스포츠의 긍정적인 영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Fokwang, 2009; Kay, 2009),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Levermore & Beacom, 2009).

## 다. ‘스포츠 평화학’의 실천 영역으로서 ‘스포츠 평화교육’

### (1) 기존 SDP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성찰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 전지구적 사회운동으로서 SDP의 방향성과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비판적, 성찰적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졌다. SDP 영역을 둘러싼 가장 두드러진 쟁점은 발전/개발 개념의 모호함과 편향적 수용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된다(Donnelly, 2011; Eitzen, 2003). 최근까지 발전/개발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바람직한 상태(근대화, 선진화)와 덜 바람직한 상태(개도국, 전통적)의 이분법적 차별화를 전제하게 되었다. 보다 근대화되고 선진화된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을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부여받게 됨을 뜻하며, 결과적으로 개발/발전의 개념이 서구 선진국 중심의 관점으로 제한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SDP는 스포츠를 통한 개발/발전뿐만 아니라 평화 추구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으나, 개발/발전에 중점을 둔 초기 사업의 확산과 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해 점차 평화의 의미와 그에 대한 논의가 약화되거나 희미해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포츠학과 평화학의 학술적 접점과 연계고리를 체계화하고 심화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 (2) 스포츠 평화학의 실천적 영역으로서 스포츠 평화교육

스포츠 평화학에 대한 학술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스포츠 사회과학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연구주제 중 하나는 ‘지속가능성’이다. 이에 따라,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전쟁과 폭력,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질병, 환경과 생태적 위기, 구조적 억압과 차별 등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평화학적 연구 지평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는 학술적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Kidd, 2011). 기존 SDP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토대로 평화학적 접근에서 SDP 영역의 재조명이 요구되고 있다. 동시에, 스포츠 평화학의 실천적 영역으로서 ‘스포츠-환경 연계’, ‘스포츠 평화저널리즘’ 등의 영역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며 최근 1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스포츠 평화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실천적 영역인 ‘스포츠 평화교육’은 학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의제 설정이나 논의의 필요성에서도 거의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 평화학의 중요한 실천적 영역 중 하나인 ‘스포츠 평화교육’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아가, 스포츠 평화학의 실천적 영역으로서 스포츠 평화교육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선행하고 유관 영역을 파악 및 분석하는 것은 스포츠 평화교육 및 유관 영역의 학술적, 실천적 쟁점과 과제에 효과적인 보완책 혹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2. 연구 목적 및 내용

### 가.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스포츠 평화학의 연구지형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토대로 스포츠 평화학 탐구의 실천적 영역으로서 스포츠 평화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여 개념 및 모형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 나. 연구 내용

#### (1) 스포츠 평화학의 연구지형에 대한 개념적 분석

스포츠 평화학으로 범주화될 수 있는 기존의 스포츠 연구 영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학술문헌을 중심으로 개념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평화교육과 관련된 스포츠 연구 영역에 대한 문헌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스포츠 평화학의 개념적 심화를 위해 기존의 평화학 관련 연구 영역에 대한 문헌도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 (2) 스포츠 평화교육 유관 영역 분석

스포츠 평화학의 실천적 영역으로서 스포츠 평화교육의 유관 영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스포츠를 통한 개발과 평화(SDP)’ 영역, ‘긍정적 청소년 발달(PYD)’ 영역, ‘올림픽교육(OE)’ 영역, ‘인권교육(HRE)’ 영역이 유관 영역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영역의 개념, 프로그램, 관련 쟁점, 그리고 평화교육과의 연계를 파악하였다.



### (3) 스포츠 평화교육 실태 분석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내외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 분석 및 전문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해외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학술문헌에서 우수 사례로 제시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관, 프로그램 목적, 내용, 구성요소, 효과, 제한점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스포츠 관련 공공기관, 체육 행정조직, 민간 체육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개념 및 목적, 내용 및 전략, 방법, 참여자 특성 등 다양한 분류 기준을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영역별 맵핑(mapping)을 통해 프로그램 간 동질성과 다양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문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념과 목적, 도입 및 현황, 내용 및 전략 등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 (4) 스포츠 평화교육 개념 및 모형 탐구

스포츠 평화학의 관점에서 스포츠 평화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스포츠 평화교육의 개념화를 토대로 한국적 맥락을 고려한 스포츠 평화교육 모형을 탐구하였다. 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기준, 원칙, 맥락적 조건 등에 대한 심층적 논의와 더불어, 스포츠 평화교육의 목적, 내용, 구성요소, 유관 영역 등을 토대로 스포츠 평화교육 모형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 3. 연구방법

### 가. 문헌 분석

문헌 분석은 연구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스포츠 평화학의 연구지형에 대한 개념적 분석’, ‘스포츠 평화교육의 유관 영역’ 연구 내용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평화교육과 관련된 스포츠 연구 영역에 대한 문헌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스포츠 평화학의 개념적 심화를 위해 기존의 평화학 관련 연구 영역에 대한 문헌도 함께 분석하였다.

### 나.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 실태조사

해외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학술문헌,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시작 단계에서 학술문헌 위주의 검토를 통해 학술문헌에서 우수 사례로 다루어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프로그램의 주요 가치, 궁극적 목표, 유형, 특징과 시사점, 그리고 제한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국내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및 학술문헌, 연구보고서 등에서 파악될 수 있는 현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동시에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등 체육 공공기관, 경기단체, 지방체육회 등 체육 행정조직, 민간 체육단체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 다. 전문가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은 연구 목적에 따라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전문가 선정은 한국에서 스포츠를 활용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전문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프로그램 제공 주체별, 목적 및 내용별, 대상 및 참여자별 등 유형 범주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정하였다. 전문가들의 배경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전문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나이	성별	소속	직책
#1	38	남	시민단체	사무국장
#2	51	남	시민단체	부장
#3	40	여	재단	팀장
#4	46	남	공공기관	이사
#5	43	여	시민단체	부장
#6	-	여	기업 및 구단	부장
#7	45	남	시민단체	사무총장

면담 실시에 앞서 연구자는 전문가에게 연구의 배경, 목적, 면담 결과의 활용 등 연구의 일반적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심층면담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면담 장소는 대상자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면담 범위와 내용을 선별하였고,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담 질문은 크게 4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첫째, 프로그램 개념과 목적, 둘째, 프로그램 도입 및 현황, 셋째, 프로그램 내용 및 전략, 넷째, 평화교육의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표 2. 면담 질문 내용

연구문제	세부내용
프로그램의 개념과 목적	•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주요 가치는 무엇입니까?
	• 해당 가치가 선택된 주요 배경이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종목이 선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프로그램 대상자는 어떻게 되며, 그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도입 및 현황	• 비슷한 성격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프로그램에 참여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참고한 다른 프로그램이나 모델이 있습니까?
	• 프로그램의 도입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 현재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내용 및 전략	•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나 목표가 있습니까?
	• 최초 시도 또는 계획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이 바뀐 점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방향이나 원칙은 무엇입니까?
	•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합니까?
	• 프로그램이 초점을 두고 있는 가치는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되어집니까?
평화교육의 과제	• 가치의 교육을 위해서 스포츠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서 지도자는 어떠한 준비를 합니까?
	• 프로그램의 지속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프로그램이 초점을 두고 있는 가치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습니까?
	•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해당 가치의 추구에 있어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 제2장



## 스포츠, 평화, 평화교육

## II. 스포츠, 평화, 평화교육

### 1. 스포츠-평화 그리고 평화학

#### 가. 스포츠-평화 연계: 양면성과 전략적 접근

평화의 양면성·이중성과 마찬가지로, 스포츠도 본질적으로 양면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스포츠는 사회 통합, 공동체 함양 등의 긍정적인 가치들을 내재하고 있지만, 동시에 전쟁, 폭력과 같은 갈등 상황을 조장하고 나아가 사회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하는 데에 일조하기도 하는 양면적 모습을 보인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는 크리스마스 휴전, 1995년 럭비 월드컵, 핑퐁외교, 축구 외교, 올림픽에 출전하는 난민 선수단 등의 사례와 같이 평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크리스마스 휴전은 1914년 1차 세계대전 중 영국과 독일의 참호전에서 즉흥적으로 진행된 축구경기 사례로 스포츠가 평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되었다. 1995년 개최된 남아프리카 럭비 월드컵은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인종적인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여 두 국가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든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된다. 또한, 1971년도 미중간 핑퐁외교는 스포츠가 서로 다른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아르메니아와 튀르키예의 2008년 축구 외교는 축구경기 관람에 적대적 국가의 수장을 초청하여 평화 구도를 조성하였고,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난민들이 하나의 참가 선수단으로서 깃발을 들고 입장하는 모습은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스포츠는 타인의 관점과 타협하고, 상반되거나 대립되는 입장을 이해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며(Giulianotti, 2004), 따라서 스포츠는 평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Siedentop, 1994), 보다 평화로운 공존에 기여한다(Sugden, 2006)고 볼 수 있다.

대조적으로 스포츠는 갈등과 폭력을 초래하기도 한다. 1969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축구전쟁,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갭단 갈등, 미국 미식축구 리그 NFL Pat Tillman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전쟁은 두 국가 간 월드컵 진출 자격 결정전에서 촉발되었으며, 약 100시간 동안의 실제 전쟁 결과 6천여 명의 사망자, 1만 2천 명의 부상자, 그리고 15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또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4강전에서 브라질의 축구영웅 네이마르가 콜롬비아 선수의 무릎 가격으로 척추 부상을 당하였고, 이후 브라질이 준결승전에서 독일에 7-1로 패한 후, 브라질 마피아가 콜롬비아 선수에 대하여 살해 위협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 콜롬비아 마약갱단이 테러 보복을 선언하는 일촉즉발의 사례가 있었다. 한편 스포츠는 또한 전쟁과 갈등을 정당화하고 영속화한다. 예를 들어 2004년 아프카니스탄에서 사망한 미식축구 NFL 선수인 Pat Tillman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적이 아니라 같은 동료들에 의하여 살해당했지만, 미국 정부는 실제로 그의 죽음의 진실을 덮으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미국 애국주의(American patriotism)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스포츠의 양면성·이중성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2018 평창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사례에서도 나타나는데, 남북단일팀 구성은 평화올림픽으로서의 가치와 의미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단일팀 구성과정에서 선수들의 입장과 의견이 배제되면서 갈등적 상황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재윤, 2022; 임승엽 외, 2018). 결국 스포츠는 전쟁과 갈등, 폭력의 정당화, 영속화에도 기여하며, 그러한 스포츠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갈등이 미시 사회적 수준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조직적인 경쟁 스포츠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지배를 추구하고 강제하게 하며, 스포츠의 지배적 문화가 사회적 위계를 공고하게 함으로써(Donnelly, 2011) 불평등, 사회적 위계, 정치적 불안정성을 악화하고 재생산한다는 주장이다.

스포츠의 양면성·이중성은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Albert Camus의 “인간의 도덕과 의무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스포츠에서 배웠다”라는 유명한 인용구와 영국의 저명한 작가인 George Orwell의 “진지한 스포츠는 페어플레이와 무관하다. 증오, 질투, 허풍, 규칙 무시 그리고 폭력을 보면서 얻는 가학적 쾌락과 연결된다. 즉, 스포츠는 충성없는 전쟁이다”라는 유명한 인용구의 대비에서 잘 묘사된다. 이에 대하여 캐나다 스포츠사회학자인 Peter Donnelly(2011)는 “스포츠의 야누스 얼굴(the Janus-face of sport)”로 묘사하였고, 독일의 스포츠사회학자인 Sven Goldenpfenning(1985, 2003)은 “스포츠는 전쟁과 평화의 양가적(ambivalent) 관계에 놓여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스포츠의 양면성·이중성에 관하여 미국 스포츠사회학자인 Stan Eitzen(2016)은 저서 『Fair and Foul: Beyond the Myths and Paradoxes of Sport』에서 스포츠는 통합적이면서 분열적이며, 공정하면서 불공정하며, 건강을 증진하지만 손상과 부상이 만연하며, 표현적이면서 통제적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스포츠의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양면성 특성을 경계하여 Eitzen은 스포츠에 대한 분석과 실천은 통합적(holistic)이고 체계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스포츠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상적 인식은 스포츠 만능주의에 근거하고 있으며 스포츠가 폭력과 갈등, 그리고 정치의 영역을 초월한다는 신화적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왔다. 즉,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순수하고 선하다는 믿음이며 그러한 스포츠의 순수성과 선함은 스포츠에 참여하고 관람하고, 소비하는 개인에게 자동적으로 전이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이 광범위하게 수용될 때, 스포츠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를 변화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스포츠의 본질성 순수성과 선함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스포츠사회학자 Jay Coakley(2021)는 “위대한 스포츠 신화(The Great Sport Myth)”(Coakley, 2021)로 기술하면서, 이러한 신화적 믿음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사소화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스포츠 신화 또는 스포츠 만능주의 신화는 국내의 경우 소위 ‘아나공’으로 불리고 있는 자유방임적 체육수업의 형태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그 기저에는 스포츠 자체는 순수하고 좋은 것이며,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는 의식적, 무의식적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나공과 같은 방임적 수업형태는 체육교육의 목적과 의미의 부재를 가져오며(박종률, 2007) 나아가 폭력과 갈등 등 스포츠의 부정적 측면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스포츠의



양면성·이중성의 관점에서 볼 때, 스포츠의 가치가 자동적으로 전달된다는 가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스포츠를 제공하고 참여하는가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나. 평화의 개념과 평화학 그리고 스포츠

일반적으로 평화의 개념은 그 추상성의 본질로, 단일한 정의와 기술로 포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자들에 따라 평화의 개념과 정의에 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평화는 특질이 아니라 경향이며, 두 번째, 평화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정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특징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기준이나 상태를 통해 평화를 판단하기 보다는 맥락과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평화 개념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비평화 상태, 즉 폭력과 갈등 상태가 발생하고 재생산되는 과정을 밝히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평화적으로 전환하는 평화학(peace studies) 또는 평화갈등연구(peace and conflict studie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서보혁, 정육식, 2016).

평화학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평화의 부재와 비평화 상황에 대한 자각이 대두되면서 전쟁 예방과 종식에 관한 연구 관심을 통하여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후 1960년대 중반 이후 전쟁 폭력을 넘어 사회 폭력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대표적으로 노르웨이의 사회학자 Johan Galtung이 오슬로에 평화연구소(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PRIO)를 설립하면서 평화학이 분과학문으로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학에서 ‘평화’의 개념은 주로 Galtung의 성과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Galtung은 평화의 개념에 앞서 평화의 대척점에 있는 비평화적 상태, 대표적으로 폭력과 갈등 상태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Galtung은 폭력의 유형을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적(direct) 폭력은 몸과 마음에 직접적 상처를 주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말한다. 구조적(structural) 폭력(Galtung, 1969)은 사회 구조에서 발생하는 정치적·억압적·경제적·착취적 폭력을 말하며 사회구조와 제도에 내재되어 제도, 규정, 법, 정책, 그리고 그 집행 기관이나 집단에 의하여 발생한다. 문화적 폭력은 사상, 철학, 종교, 전통, 예술, 언어, 과학, 법, 대중매체, 담론, 교육, 이데올로기 등 상징영역에 존재하거나 매개로 나타나며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Galtung, 1990).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이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그렇게 느끼게 하며, 또는 최소한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하거나 느끼게 한다. Galtung(1996, 36)은 이러한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거나, 폭력이 감소하는 상태를 ‘평화’라고 보았다.

폭력이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으로 구분되는 것과 같이, Galtung은 평화도 소극적(negative) 평화와 적극적(positive) 평화로 구분하고 있다. 소극적 평화는 주로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 등 직접적 폭력이 부재한 상태를 말한다. 적극적 평화는 평화로운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구조, 제도, 태도로 정의되며 구조적 평화와 문화적 평화로 구분된다. 적극적 평화는 폭력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사라지고 사회 정의가 실현된 상태, 즉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모든 폭력이 또한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구조적 평화는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차별 등과 같은 구조적 폭력의 원인을 없앨 수 있는 적절한 제도가 갖추어져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를 말한다. 문화적 평화는 구조적 평화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태도가 내면화된 상태를 말한다(서보혁, 정옥식, 2016, 22-24).

Galtung의 영향 아래 현대 평화학은 전통적 의미에서 국가 간 전쟁과 폭력,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문제뿐 아니라 인권, 부의 분배, 공중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구조와 제도에 내재된 억압과 차별을 철폐해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 인구 문제, 빈곤 퇴치와 자원 고갈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범수 외, 2022, 20). 따라서, 현대 평화학은 소극적 평화뿐만 아니라 적극적 평화(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해소)를 구현하며, 나아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스포츠-평화 연계의 가능성과 의미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동의가 이루어져 왔다. 즉, 스포츠는 개인 삶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스포츠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의 화합과 통합을 기대한다. 예를 들어 올림픽과 올림픽 운동은 스포츠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올림픽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보존과 관련된 평화로운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를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다(IOC, 2023). 이에 따라, 스포츠-평화 연계에 대한 가능성과 그를 위한 전략적 접근의 평화학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스포츠는 평화, 갈등해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현대와 같이 지구화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스포츠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이다. 즉, 스포츠가 전 지구적으로 보편화된 문화적 양식이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FIFA 월드컵의 경우 지구상 가장 많이 관전 및 시청되는 이벤트이며, 따라서 언어, 지역, 계층을 초월하여 지구촌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체문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적어도 스포츠가 제공하는 공통의 관심사로 사람들로 하여금 통합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스포츠-평화 연계는 스포츠의 촉매제의 역할, 또는 도구적 유용성으로 볼 수 있으며, 정치외교적 전략, 조직적 노력, 합의 영역의 대체물은 아니다. 즉, 스포츠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심층적인 수준의 인간 활동이지만 그 자체가 정치적 영역의 대체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5년 럭비 월드컵은 스포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오랜 인종적 갈등과 차별을 치유하는데 스포츠가 기여한 유명한 사례이다. 그러나 스포츠를 통한 그러한 평화의 실현은 Nelson Mandela가 분쟁으로 화할 수 있는 상황들에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동시에 화해(reconciliation)와 용서(forgiveness)의 비전과 정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스포츠가 그에 관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Mandela가 분명 럭비를 훌륭하게 활용하여 그를 통한 중요한 기여를 한 점은 분명하다. 즉, 스포츠가 전혀 그러한 통합의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그러한 기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포츠가 평화나 화합, 통합에 기여함은 스포츠에 내재된 자동적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스포츠가 평화와 화해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스포츠가 정치와 상관없는 영역에 있거나 폭력과 갈등을 초월한다는 신화적인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George Orwell의 충성없는 전쟁 표현이나 종합격투기 UFC나 미식축구의 본질적 차원의 폭력을 생각해 보면 스포츠가 폭력의 영역 외부에 존재한다는 ‘위대한 스포츠 신화’ 믿음이나 그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낼 수 있다. 결국, 스포츠를 통한 평화가 자동적으로 성취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스포츠가 평화의 비전(a vision of peace)에 기꺼이 적극 개입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과제들이 실제로 구축되었을 때 이러한 스포츠의 평화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스포츠-평화 연계의 평화학적 함의를 평화학에 대한 최근의 계보적 분석들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김성철(2021)은 평화학의 접근방식을 1) 국가중심 접근, 2) 인간중심 접근, 3) 구조비판 접근의 세 가지 계보로 분석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접근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평화와 갈등의 주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분석 대상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 ‘국가중심적 접근’은 칸트를 사상적 원류로 하고 있다. 해당 접근법에서는 국가가 주체인 가운데 국가 간의 전쟁 방지, 국제평화와 안보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으며, 이를 위한 국가 간의 연대 또는 공동체를 분석한다. 오늘날에도 국가 간 안보협력의 여전히 중요함에 따라 국가중심 접근은 중요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특히 강대국들 사이에서 사이버, 핵과 같은 문제와 갈등이 드러남에 따라 국가중심 접근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중심적 접근에서 스포츠-평화에 대한 평화학적 분석으로 올림픽 운동, 올림픽 휴전, 국제 스포츠거버넌스 체계, 그리고 반도핑 관련 국제협력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두 번째 ‘인간중심 접근’은 톨스토이의 비폭력주의에 사상적 기원을 두고 있으며, 국가보다는 개인의 안전과 평화의 구현을 중요하게 다룬다. 냉전기 Johan Galtung이 폭력의 유형과 적극적 평화에 대해 개념화한 이후 ‘사회의 공정’에 기초한 평화학의 영역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전쟁방지를 위한 국가중심 접근에 비하여 적극적 평화론은 모든 형태의 폭력을 부정하는 인간중심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중심 접근에서 스포츠-평화에 대한 평화학적 분석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대두된 스포츠를 통한 개발 및 평화(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스포츠를 통한 긍정적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올림픽교육(Olympic Education), 그리고 스포츠 인권교육(Sport Human Rights Education) 등의 연구 영역을 들 수 있으며, 이들 모두는 적극적 평화론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는 평화교육(peace education)의 유관영역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구조비판 접근’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에 연원을 두며, 사회적 갈등 구조와 그 변화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전통적인 계급 관계뿐만 아니라 전후 세대의 가치변화로 인권, 핵, 생태 등 다양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며, 따라서 갈등 구조의 다원성(plurality)과 사회변혁 주체의 다양해짐에 초점을 둔다. 이에 ‘사회변혁론’과 신사회운동적 차원에서 계급적 문제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반핵, 반전, 환경, 인종 평등, 인권 등의 문제를 강조해 왔으며, 그리고 냉전 후에는 마르크스주의와 생태주의를 결합한 생태사회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구조비판 접근에서

스포츠-평화에 대한 평화학적 분석으로 노동자, 여성, 인종, 소수자, 환경, 인권 등 스포츠와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영역을 들 수 있다.

## 다. 평화의 문화 패러다임과 스포츠

200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적극적 평화 개념을 현실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나타났다(홍용표, 2018). 특히 1999년 UN이 평화의 문화를 선언(Declaration on a Culture of Peace)함에 따라 평화 패러다임은 전쟁의 문화(a culture of war)로부터 평화의 문화(a culture of peace)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1999년 UN 평화의 문화 결의안에 따르면 “평화의 문화는 삶에 대한 존중, 주권, 인권, 갈등의 평화적 해결,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발전적 그리고 환경적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노력, 남녀평등에 대한 존중과 고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 등에 기반을 둔 가치, 태도, 전통, 그리고 행동과 생활양식의 집합”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평화의 문화는 ① 교육, 대화 및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 폭력의 중단과 비폭력의 증진 및 실천, ② 국가의 주권, 영토의 보전, 정치적 독립의 원칙에 대한 존중, ③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과 증진, ④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헌신, ⑤ 현재와 미래세대의 발전적·환경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 ⑥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에 대한 존중과 증진, ⑦ 자유, 정의, 민주주의, 관용, 연대, 협력, 다원주의, 문화적 다양성, 대화 및 이해 원칙의 준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한편 유네스코 또한 적극적 평화개념을 현실 세계에 접목하기 위해 평화의 문화(culture of peace) 캠페인을 전개해 왔는데, 평화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닌 성, 인종, 언어, 종교 혹은 문화적인 차이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공존이 기대고 있는 정의와 인권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진일보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UNESCO, 2022).

또한 평화의 문화에 대한 실행 계획(Programme of Action on a Culture of Peace)을 통해 평화의 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 수준의 조치를 강화할 것을 제시하며, 우선적으로 교육을 통한 평화의 문화 조성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관용과 차별 없는 정신으로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치, 태도, 행동방식에 대해 교육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평화의 문화의 가치와 목표를 심어주기 위한 활동에 참여시키도록 장려하고 있다(홍용표, 2018). 상기한 견해들을 종합하자면, 결국 평화의 핵심은 ‘다름의 인정과 상호 존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평화의 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스포츠-평화 연계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Güldenpfennig(1985)와 Harvey et al.(2014)에 따르면 지금까지 스포츠와 평화를 연계하는 접근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접근으로, 분명한 정치적 목적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주로 소수의 사람에 의해 제도적-조직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적극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스포츠-평화 연계에 대한 비교적 간접적인 접근으로 다수의 경향으로 나타나며, 스포츠의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가지는 평화운동 및 평화교육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 후반 평화의 문화를 향한 평화학의 최근

패러다임 전환과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현대의 스포츠와 연계된 평화운동 행위자들이 직접적인 정치적 표출 방식으로 스포츠와 연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향은 스포츠의 정치적 독립성과 그에 수반하는 ‘스필오버 효과’에 대한 믿음, 나아가 최근의 평화의 문화(a culture of peace)로의 전환과 연계되는 지점에서 평화교육을 위한 스포츠의 진흥과 동원에 집중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 2. 평화교육과 스포츠

### 가. 평화교육의 개념 및 관점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한다. 그런데 평화를 가르치고 배우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평화교육은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평화를 원하면서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기에 평화를 일상생활에서 잘 실천하지 못한다. 이처럼 평화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그 실천에 둔감한 상태를 이찬수(2016)는 평화문맹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폭력이 다양화되고 더욱 증가할수록 평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폭력과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평화감수성을 함양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평화교육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즉, 평화교육은 평화를 이해하고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평화교육의 관심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쟁의 공포, 나치즘과 같은 독재 체제 재발 및 확산 예방, 핵무기 사용에 대한 우려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1950년-60년대 서구를 중심으로 전쟁과 군국주의 비판,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협력, 국제이해교육이 강조되었다(권구순 외, 2019). 특히 이러한 국제이해교육을 중심으로 한 평화교육은 유네스코(UNESCO,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에 의해 주도되었고, 국가간 적대감과 공격성을 줄이고 친선관계와 우호관계를 증진하는데 관심을 두었다(박보영, 2005).

그러나 다른 국가에 대한 개인적 수준의 이해가 전쟁을 비롯한 폭력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전제는 지극히 이상주의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교육은 ‘전통적’ 평화교육으로 지칭하게 되었다(박보영, 2005). 동시에 1970년대 들어와 국제이해교육을 포함한 전통적 평화교육이 국가 간 경제 수준의 격차, 사회적 불평등, 빈곤과 소외, 환경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다양한 영역이 평화교육의 주제로 등장하였다. 또한, 서구 중심의 평화교육을 극복하고 식민화 경험을 거친 국가 및 지역의 로컬 상황과 맥락을 반영하는 제3세계 평화교육으로서 해방교육이나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두드러졌다.

이처럼 이전의 국제이해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평화교육의 한계를 비판하는 대안으로 비판적 평화교육의 관점이 대두되었는데, 이는 Galtung에 의해 소개된 구조적, 문화적 폭력 개념 근거한 정치적, 경제적, 억압적, 착취적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여성, 인종, 장애인, 발전, 지속가능성,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와 연계되어 비판적 교육, 인권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비판적 세계시민교육 등의 변화를 거쳐왔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전통적 평화교육, 비판적 평화교육, 제3세계 평화교육, 민주적 평화교육의 단계를 거쳐 지속가능한 평화교육까지 변화를 겪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Harris & Morrison, 2013).

평화교육과 스포츠의 연계에 관하여 앞에서 논의한 평화의 문화 패러다임의 전환에 근거한 포괄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의 차원의 유네스코 평화교육의 전통을 평화의 문화 패러다임 전환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평화 지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서 설립 이래 교육을 통한 평화, 지속적인 문화 간 대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해 왔다. 이에 따라 보편적 가치라 할 수 있는 평화는 국가적 차원뿐만 세계적 차원에서 인류가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로써 관용과 비폭력의 방법을 통해 포용교육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되고 있다(UNESCO, 2009). 결론적으로 유네스코의 평화교육은 문화적 다양성·민주주의·인권·지속가능발전 등의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평화의 문화(a culture of peace)가 확산되도록 안내하는 모든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Reardon, 2001).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유네스코의 평화교육은 학교와 연결되어 평화교육이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인권교육, (평화)역사교육 등에 녹아들어 국어, 사회, 역사, 도덕 교과 등에서 다루어지기도 한다(오덕열, 2021).

유네스코는 교육을 통한 평화구축을 미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유네스코 평화교육은 전쟁의 문화, 폭력의 문화에서 '평화의 문화'로의 전환을 통한 포괄적인 평화교육을 지향한다(Reardon, 2001). 즉, 평화의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적 요구를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유네스코 평화교육의 지향점과 관련하여 힘에 의한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폭력)의 문화에서 자유, 인권, 평등, 정의, 환경 등 보편가치에 기반한 합의가 만들어 낸 평화의 문화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UNESCO, 1995; Reardon, 2001; UNESCO, 2002).

이와 같은 평화의 문화와 평화교육의 연계성은 평화교육의 개념적 정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평화교육은 평화의 문화를 일상의 삶 속에 정착시키도록 하는 것이고(김병연, 2011, 60; 최관경, 2009, 12), 삶의 곳곳에서 조화로운 상태로 공존하는 것을 지향할 수 있게 이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변종훈, 2018, 271).

## 나. 평화교육의 영역 및 유형

그동안 국가와 지역마다 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 폭력과 갈등의 형태, 그리고 평화에 대한 접근과 해석, 실현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평화교육 또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홍순정, 2007, 27). 여기서는 평화교육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화교육의 내용 및 주제에 따른 유형과 평화교육의 구성요소에 따른 분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평화교육은 폭력과 갈등에 대한 이해를 동반하며, 따라서 폭력과 갈등이 어떠한 유형인지,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평화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한 맥락적으로 다양하다. 이에 평화와 폭력/갈등의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평화교육 내용에 근거한 유형을 정리할 수 있다.

먼저 Galtung의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범주 차원에서 소극적 평화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

평화교육, 그리고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비판적 평화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전통적 평화교육은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 군축교육, 반핵교육 등이 있고, 비판적 평화교육으로는 구조적 폭력에 주목할 개발교육, 다문화교육, 환경교육, 인권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지수, 김경이, 2020).

Harris(2004)는 ‘왜 평화가 달성되지 않는지’, ‘어떻게 평화를 달성할 것인지’ 등의 질문을 제기하면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평화교육이라고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Harris는 평화교육을 평화 달성의 과제에 대해 가르치고, 비폭력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평화로운 태도를 장려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폭력의 위협과 평화를 위한 전략을 가르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평화교육은 5가지 주요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 평화교육은 폭력의 근원을 설명하는 것이고, 둘째, 평화교육은 폭력에 대한 대안을 가르치는 것이며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평화 전략을 제시한다, 셋째, 평화교육은 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교육하며 이는 폭력의 유형에 따라 평화교육이 강조하는 바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넷째, 평화는 그 자체로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이다. 다섯째, 동시에 갈등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갈등을 억압 및 제거하는 것이라기보다 갈등을 유용하게 관리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평화교육은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과정으로 추구되어야 하고, 문화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Harris는 평화교육 유형으로 국제교육, 인권교육, 개발교육, 환경교육, 갈등해결교육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갈등과 폭력의 맥락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평화교육 유형의 다양성 전제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매우 다양한 유형의 평화교육이 존재함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을 통한 평화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네스코는 국제이해교육, 글로벌교육, 세계시민교육, 문화 간 상호이해교육/다문화교육, 평화교육, 군축교육, 인권교육, 관용교육, 가치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포용교육 등의 여러 주제로 UN의 평화조성 교육(peacemaking through education)을 포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Schweisfurth & Harber, 2012).

우리나라의 경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라는 남북의 소망과 함께, 초국가적 전망을 함께 고민하는 세계시민교육적 차원에서의 접근(이동기, 2020), 비판 의식 함양을 위한 성찰적 배움(이대훈, 2016), 생태주의 사회로의 전환(박명규 외, 2013),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평화로운 또래관계 추구(정진, 2016), 내면의 안정을 취하는 이너피스(inner peace)의 지향(서정아 외, 2017) 등 여러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오덕열, 2021). 또한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 평화감수성훈련, 민주시민교육, 갈등전환교육, 또래조정(peer mediation), 인성교육, 인권교육, 생태교육, 평화·통일교육, 탈분단교육 등의 이름으로 평화교육이 펼쳐지고 있고,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 지역사회 등 평생교육 현장에서도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 회복적 서클, 생태환경교육,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페미니즘교육, 젠더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평화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정지수, 김경이, 2020).

특히 우리나라 평화교육에서 그동안 분단과 통일이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 왔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는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폭력의 원인이자 비평화의 근원이 되는 분단을 극복함으로써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근거한다(조정아 외, 2019) 통일교육은 해방 후 분단 이래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으며 정권의 변화에 따라 반공·승공교육, 통일안보교육, 평화·통일교육 등 각각 명칭을 달리하며 독립적으로 학문 체계를 유지해 왔다(이슬기, 2019). 즉 평화교육에 비하여 통일교육은 그 독자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통일교육이 평화교육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독자적 영역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오덕열, 2021). 따라서 평화교육은 ‘평화적 과정’을 강조하고 ‘평화문화 조성’을 지향하지만, 안보학(security studies) 중심의 통일교육에서 평화는 주로 남북관계의 ‘최종적 결과’로서 상정되고 있다(오덕열, 2019). 다시 말하면, ‘통일이 되면 평화가 온다’라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연계적 고려가 강조되면서 통일문제를 평화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관점으로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이 제시되었다. 이에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개념적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조정아 외, 2019) 이에 통일교육은 한반도 맥락에서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일 이전에 필요한 교육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과 미래비전을 포함하는 교육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평화교육은 통일의 단계와 관계없이 통일 이전부터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교육으로 자유와 인권, 평화와 민주주의 등의 가치 존중,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시민성 함양 등을 포함하는 교육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한편 이상의 평화교육의 내용 및 주제에 따른 유형 분류와는 다른 차원에서 Tony Jenkins(2013)는 평화교육을 그 구성요소에 따라 평화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Peace), 평화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Peace), 평화에 의한 교육(Education by Peace)의 3가지 형태로 제시하였다. 평화에 대한 교육은 평화교육의 일반적인 목적으로 세계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둔다. 그러나 Jenkins는 평화의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에는 부족하다며 평화에 대한 교육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평화를 위한 교육은 평화에 대한 교육에서 제기된 평화구축의 필요성에서 출발하며, 평화구축의 태도, 기술, 역량을 습득하는 학습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화에 의한 교육은 평화교육이 대부분의 사회 학습 및 공식 교육의 기본적 프레임워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Jenkins(2013)는 교육 발전의 기본적인 방향이 폭력적 태도와 세계관을 변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라는 정의로 귀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와 유사하게 최관경(2009, 9)은 평화교육을 “교육목적 면에서 볼 때 평화를 위한 교육이고, 교육내용 면에서 평화에 관한 교육이며, 교육방법 면에서 평화에 의한 교육이고, 교육이념 면에서 영원한 평화인을 기르는 교육”이라 정의하였다.

## 다. 스포츠와 평화교육

학술적으로 스포츠학에서의 스포츠, 평화,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논의는 2000년대 이후 시작되었으며, Darnell(2011)의 분석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Darnell에 의하면 스포츠, 평화 그리고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1) 스포츠가 갈등으로 분리된 집단 간의 가교(bridge)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2) 갈등으로 피해입은 사람들을 재통합(re-integrate)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3) 스포츠를 통해 억압에 도전하고 윤리적 시민성(ethical citizenship)을 장려함으로써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Darnell(2011)은 그러한 긍정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로서 다음과 같은 주안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째, 갈등 상황에 스포츠를 적용 및 이용할 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한 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둘째, 스포츠가 사회통합을 위한 내재적인 힘으로서 개념화되고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스포츠가 평화구축의 지속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치적 선례가 포함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를 통해 얻는 교훈이 과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Darnell은 스포츠와 평화, 그리고 평화교육의 연계의 고려시 중요한 질문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스포츠를 통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무엇인가? 둘째, 평화를 직접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스포츠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셋째, 스포츠는 어떻게 평화구축(peace-building)에 기여할 수 있는가? 특히 평화구축을 위한 스포츠(sport for peace-building)에서 스포츠평화학의 실천적 영역으로서 스포츠 평화교육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포츠와 평화교육 연계에 대한 최근의 경향은 2000년대 들어와 대두된 평화의 문화(a culture of peace)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Harvey et al., 2014). ‘평화의 문화 모델(a culture of peace model)’으로의 전환은 최근의 다양한 ‘평화를 위한 스포츠(sport for peace)’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Athletes United for Peace, Peace Players International, Football for Peace, Soccer for Peace, the Soccer for Peace Foundation, and Fight for Peace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두드러진 스포츠와 평화 관련 조직, 프로그램들은 전쟁이나 폭력, 군사주의에 대한 정치적 반대(political opposition) 입장보다 평화의 문화(a culture of peace)를 진작하는데 주된 비전과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스포츠와 평화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평화학, 정치학, 국제관계학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스포츠, 평화, 교육에 대한 연계적 접근이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그동안 그 세 분야 간의 지식전이(knowledge transfer)를 위한 노력과 시도가 부족하였다(Woodhouse, 2019).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각 분야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하여 학문분야 간, 영역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통하여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라. 국내 평화교육에서의 스포츠 활용 사례

### (1) 피스모모

#### (가) 개요

피스모모는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를 핵심 가치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쟁·평화·기후위기·군비축소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소외 계층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평화커먼즈(peace commons)를 실현하여 민간 차원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단체의 주요 목표이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과 문화

활동을 통한 평화와 학습의 연계를 진행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시민들이 ‘평화 커먼즈’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피스모모의 슬로건인 ‘평화는 모두의 것’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단체에서는 참여적 평화 가치 실천을 강조한다. 이에, 피스모모는 P.E.A.C.E 페даго지를 자체 개발하였는데 여기서 P는 참여적(Participatory), E는 대화-상호작용(Exchange), A는 문화예술적(Artistic-Cultural), C는 비판-창조적(Critical-creative) 마지막으로 E는 낯설게하기-새로운 관점(Estranging)의 페даго지를 의미한다. P.E.A.C.E 페даго지를 통한 평화 배움이 추구하는 변화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적이면서 상호작용이 많은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경험과 관찰, 느낌, 감각 등이 표현된다. 둘째, 이를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과정 또는 매체를 통해서 서로 연계시키고 의문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사유와 감수성을 심화시킨다. 셋째, 연계된 인식, 의문, 사유, 떠오르는 감수성을 몸짓으로, 새로운 구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넷째, 이 과정은 나를 타자와 겹쳐서, 타자를 나와 겹쳐서, 나와 우리, 타자와 타자화를 겹쳐서 학습자에게 놀라움이 나타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과 공동체에 내재된 힘과 능력, 특히 자존감, 평화적 감수성, 평화적 소통 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심층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피스모모는 위와 같은 평화감수성, P.E.A.C.E. 페даго지 평화교육론, 탈분단, 생태, 젠더, 세계시민성, 갈등전환 등 다양한 주제로 맞춤형 평화교육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스모모에서 진행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다. 1) 교사/활동가 프로그램, 2) 청소년 프로그램, 3) 누구나 프로그램, 4) 포럼/토론회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포럼/토론회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활동들을 다수 진행한 바 있다.



출처: <https://peacemomo.org/>

그림 1. 피스모모 교육연수 활동사진



### (나) 포스트 평창, 2030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피스모모는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파악하고 청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포스트 평창, 2030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먼저 ‘평화 감수성에 기반한 민주적, 관계적 소통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며 토론 진행 중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평화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후, ‘남북한 단일팀 구성’, ‘북한 응원단과 예술단’, ‘한국 사회의 반응’, ‘국가 수준에서 진행된 논의’라는 총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모둠을 구성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때, 청년들은 자신이 토론하고 싶은 주제에 따라 이동하여 자유롭게 대화를 진행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은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 대해 전망하고 통일을 위해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제안하며 평화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본 행사는 2030 세대의 시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바라보며 남북 관계와 단일팀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민간 차원에서의 평화 가치 실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Plus Sport 측면의 활동으로 살펴볼 수 있다. Plus Sport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목표 중 일부를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포츠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 피스모모는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포럼/토론회 프로그램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 스포츠를 활용하여 가치를 발현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다만, 피스모모의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은 ‘올림픽’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스포츠를 신체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이 부재하다. 피스모모는 평화/갈등이 가시화되기 쉬운 메가스포츠이벤트의 사례를 활용하여 평화/갈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스포츠 사례를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로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gounikorea&logNo=221228717392>

그림 2. ‘포스트평창, 2030 사회적 대화’ 활동 사진

## (2) 어린이어깨동무

### (가) 개요

어린이어깨동무는 1996년 창립되어 북한 청소년을 위해 콩우유공장, 어린이 병원을 개설하였으며, 남북 청소년이 함께 평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어린이어깨동무의 목표는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북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양, 의료, 교육지원, 둘째, 한반도와 동아시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평화교육 활동을 통해 갈등/차별 극복, 이해와 존중, 나눔과 돌봄 실천, 셋째, 시민참여 평화활동을 통한 분단의 상처 치유 및 평화의 가치 실천으로 나타난다. 또한, 어린이어깨동무는 2008년 UN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적 지위를 인정받은 NGO이다.

### (나) 피스리더

어린이어깨동무에서 진행하는 피스리더 프로그램은 피스리더캠프와 피스리더모임으로 구분된다. 피스리더캠프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으로 놀이, 연극, 토론 등을 통해 평화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평화를 실천하고, 만들어나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한반도, 일본, 중국, 몽골, 대만의 청소년과 함께 하는 동아시아 어린이 평화워크숍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다양한 평화주제에 대하여 토론한다. 피스리더는 1999년부터 ‘평화를 만드는 아이들’로 시작하여 2023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스리더모임은 평화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령대별 피스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3-6학년은 평화지킴이, 15세-18세는 평화이음이, 이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화열음이는 자원활동가로서 1996년부터 활동하였다. 평화지킴이는 평화를 실천하는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평화의 가치에 대해 학습하고 평화/비평화 현장에 방문하며 평화기행 및 캠프에 참여하게 된다. 평화이음이는 평화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단계로, ‘나’를 넘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한 실천을 지속한다.



출처: <https://www.okfriend.org/index>

그림 3. 피스리더 활동 사진

평화이음이(15-18세)가 참여하는 청소년 피스리더캠프는 2023년 한국, 북아일랜드, 일본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교류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어린이어깨동무가 주최하고, 알시티 벨파스트, 남북어린이와 일본어린이마당 실행위원회, 부산어린이어깨동무가 공동주최하였다. 2023년 청소년 피스리더캠프 워크숍은 부산에서 평화 현장을 둘러보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외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온라인 교류회로 진행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8년 청소년 피스리더캠프는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신체를 활용하여 평화를 표현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출처: <https://www.okfriend.org/index>

그림 4. 청소년 피스리더캠프 사진

피스리더 프로그램은 평화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의 방식으로 신체활동을 포함한다.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진행은 정적인 활동으로 진행되지만, 청소년들이 평화 관련 개념을 퀴즈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스포츠가 중점적으로 평화교육의 방식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없지만, 보조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3) 국제평화축구코리아

#### (가) 개요

국제평화축구코리아(Football 4 Peace Korea)는 평화교육의 초점을 ‘협력’에 두고 있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협력을 맺어, 2015년부터 공인 국제평화축구코리아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국제평화축구코리아의 비전은 “우리 사회의 평화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 구현”이며, 미션은 “평화축구코리아는 축구와 체육활동을 매개로 한 평화교육을 통해 평화 감수성 제고 및 우리사회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함”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들의 핵심 목표는 “갈등 해결을 위한 접근법(도구) 습득 및 평화감수성 제고”이다. 평화의 가치를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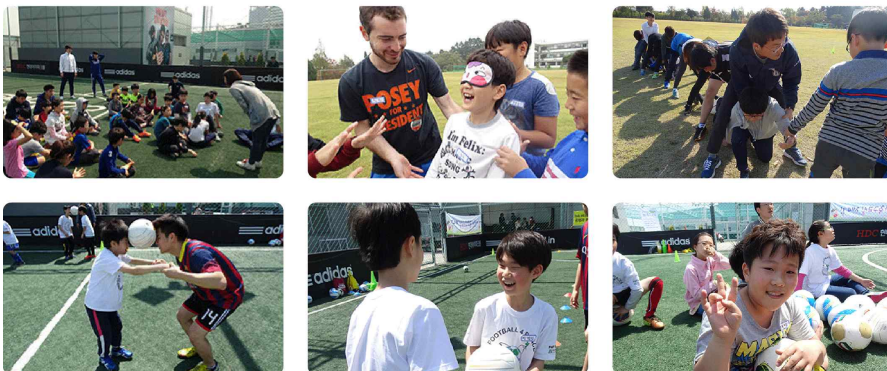
위해 스포츠 혹은 신체활동을 활용하며, 협력과 평화 가치를 강조한다. 이러한 평화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도자는 스포츠의 규칙을 변형하기도 하며, 청소년들이 규칙을 정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2013년부터 진행되는 F4P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평화축구교실’로 진행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되었으며, 올바른 시민의식과 가치관 함양, 사회적 접촉의 기회 제공, 상호 이해 증진, 평화로운 공존 도모, 축구 지식 및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평과 포용, 신뢰, 존중, 책임감의 평화 가치를 추구한다. 또한, 국제평화축구코리아는 주입식 강의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청소년들이 신체를 활용한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며, 위의 평화 가치 및 협동, 리더십, 배려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나)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매년 2번의 기수를 진행하며, 기수 당 수업 횟수는 3-4회, 수업 당 2-3시간을 진행한다. 평화교육의 가치 소개, 워밍업, 기술단계, 경기단계, 마무리 순서로 진행되며, 신체활동 이전에 평화 가치에 대해 사전 교육한 후 신체활동에서 F4P의 핵심 가치 즉, 평화 가치를 체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먼저, 평화교육 가치 소개 단계에서는 사회 및 갈등 관련 사진을 보며 평화의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같이, 평화의 가치에 대해 생각을 한 후에 신체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워밍업 단계를 통해 본격적인 신체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몸과 마음 풀기 운동’을 진행하며, 기술단계를 통해 신체활동을 통한 F4P의 핵심 가치에 대해 체득한다. 특히, 추상적인 가치 개념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진행되는 경기 단계에서는 F4P의 핵심 가치가 표현될 수 있는 조건 및 규칙으로 변형된 축구 경기를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평화롭게 갈등 해결하기, 심판 역할의 중요성 및 어려움, 협동과 타협의 필요성, 갈등과 분란을 만드는 요소 등과 같은 것들을 심리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F4P 가치가 나타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대해 참가자들끼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출처: 국제평화축구코리아. <http://www.f4pkorea.org/index.php>

그림 5. 국제평화축구코리아의 활동 사진



국제평화축구코리아는 평화축구교육을 널리 전파하고자 기획된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트레이닝’을 운영하고 있다. 한정적인 시간과 역량으로 많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평화축구를 전파하기 위해 평화축구 코치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혹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평화교육자를 양성하여 평화교육 발전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 제3장



## 스포츠 평화교육 유관 영역

## Ⅲ. 스포츠 평화교육 유관 영역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건강하고 행복한 삶’, ‘양질의 교육’,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해양 및 육상 생태계 보전’, ‘인권, 정의, 평화’ 등은 스포츠 평화교육 의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에 따라 스포츠 평화교육의 학술적, 실천적 측면에서의 유관 영역으로 ‘SDP’ 영역, ‘긍정적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PYD)’ 영역, ‘올림픽교육(Olympic Education: OE)’ 영역, 그리고 ‘스포츠 인권 교육(Sport Human Rights Education)’ 영역 등이 범주화되었다.

유관 분야들은 스포츠 사회과학 내에서 대표적인 연구 및 실천 영역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특히 연구 주제 및 프로그램 실제 등의 차원에서 각 영역으로 특화된 양상을 보이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개별 영역의 발전 또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네 가지 유관 영역들을 통해 스포츠 평화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며, 각각의 개념, 프로그램, 관련 쟁점 및 평화와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 1. 스포츠를 통한 개발과 평화(SDP)

#### 가. 개념

‘스포츠를 통한 개발과 평화(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이하 SDP)는 스포츠의 사회발전 잠재력을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평화를 실현하는 사회적 영역이다(Giulianotti, 2010; Levermore, 2008; Nye, 2008). SDP의 개념은 개발과 평화라는 매우 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기에 뚜렷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지만(Whitley et al., 2019), 대체로 사회결속력, 장애, 양성평등, 생계 등의 분야에서 개발과 평화의 촉진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Nye, 2008). SDP는 스포츠가 만국 공통어로 모든 사람이 참여 가능하며,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스포츠 참여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관계 형성과 사회적 포용, 응집력,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발전 수단의 하나로 인정되어 왔다(Coalter, 2010; Hayhurst, 2015; Young & Okada, 2014).

SDP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취약계층의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개발이다(Warner, 2019). 주로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전쟁 피해 국가 등 의료나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UN 및 산하 기구, 정부 및 비정부 단체, 공공 및 민간기구들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촉진이다(Rosso, 2017). 평화유지에 취약하고 응집력이 부족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스포츠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는 SDP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Edwards, 2015). 이들은 평화유지에 취약하고 응집력이 부족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스포츠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셋째, 인류 건강에 대한 촉진이다. 스포츠를 통한 신체활동이 부족하거나 고위험군에 속한 대상에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SDP는 1990년대 후반까지 즉각적·불규칙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UN은 새천년개발계획(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이하 MDGs)를 통해 2000년을 ‘세계 평화의 문화 해(International Year for the Culture of Peace)’로 선언하였는데, 여기서 스포츠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두드러지게 되었다. 즉 SDP의 정책적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UN의 SDP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UNOSDP(United Nations Offi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가 설립되었다. UNOSDP는 스포츠를 통한 발전, 개발, 평화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학술적, 정책적 교류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02년에는 United Nations Inter-Agency Task For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가 조직되어 UN 및 산하 기구들의 스포츠 관련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지역 수준에서의 체계적인 SDP 활동을 촉진하였다. 2003년에는 SDP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UN 총회에서는 "Sport as a Means to Promote Education, Health, Development and Peace"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와 더불어, European Commission은 2004년을 European Year of Education through Sports(EYES), UN은 2005년을 International Year of Sport and Physical Education(IYSPE)로 지정하게 되었다.

국제 및 지역 발전 사업에서 SDP 이념의 인지도와 합법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2013년 8월 UN은 매년 4월 6일을 ‘국제 스포츠의 날’로 선포하여 국민에게 ‘스포츠는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과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IOC 또한 ‘국제 스포츠의 날’이 교육, 보건, 사회 포용, 청년 발달, 양성평등, 평화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발전 요구를 충족시킬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다. 2015년에는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하 SDGs)’를 발표하며 목표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SDGs 제37조에 따르면 체육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촉매제로서 작용하고 있고, 관용, 존중, 발전과 평화 실현에 대한 스포츠의 기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청년, 개인의 커뮤니티 역량 강화, 건강 증진, 교육 보급, 사회적 포용 등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DGs의 발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축구연맹, 국제육상경기연맹 등 국제스포츠기구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스포츠를 SDGs에 포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traume, 2018).

## 나. 프로그램

SDP는 주로 ‘교육’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Svensson & Woods, 2017), 여기에는 발전과 평화 개념의 모호성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SDP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Guilamant & Chauvet, 2001), 성과가 모호한 발전과 평화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성과가 보이는 취학을 제고, 건강 능력 향상 등의 교육을 추진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제시되기도 한다(Rogers & Horn, 2008).

SDP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로 2013년에 설립된 Sloane Stephens Foundation(이하 SSF)을 살펴볼 수 있다. SSF 재단의 주된 목표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Compton Unified School District Junior Tennis Program’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학교에서 다양한 인종의 청소년들을 교육한다. 설립 이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또는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SSF는 밝히고 있다. 여름 캠프와 같은 단기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SSF 프로그램의 집행 이사인 Sybil Smith 박사는 "SSF는 인간을 우선시하며, 학습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모두에게 학습과 개발을 통한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목표를 강조한 바 있다(Sloane Stephens Foundation).

하지만 SSF에서는 발전에 대한 정의가 'life-long learning, and healthy lifestyle choices'로 나타나며, 이는 공여국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노스(Global North)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지원한다는 이분법적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한다(Collier, 2001). 또한, SSF의 SDP 프로그램들은 청소년,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는데, 그들을 포용한다는 것을 가장 주된 목적으로 내세우는 반면에 세부 프로그램은 'High-Performance Tennis'로 경기력에 초점을 맞추거나 네트워크 형성 또는 플랫폼을 통한 환경 제공에서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Development and Peace와 Cape Town Gymnastics Association에서 진행하는 Youth network for Sport, Development and Peace도 마찬가지로 스포츠를 평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명시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방식은 SDP에 대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 노출하는 정도에서 그친다(Sloane Stephens Foundation).



출처: <https://www.sloanestephensfoundation.org/>

그림 6. High-Performance Tennis 포스터

## 다. 관련 쟁점

### (1) 학술적 쟁점

SDP의 학술적 쟁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개발 개념의 모호성과 편향성이다. 최근까지 개발은 근대화, 산업화로 인식되면서 글로벌 노스 헤게모니(Global North Hegemony)를

전제하게 되었다. 여기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같은 현상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이미 성공적으로 적용된 정책들을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국가들의 관점에서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에서 나타난다. 즉, 이분법적 전제를 기반으로 한 공여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평화구축 방식(liberal peacebuilding)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권순용, 2015; Coning, 2016; Levermore & Beacom, 2012). 이러한 시도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에서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이전함에 따라, 각 지역의 독특한 환경과 요구를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SDP 관련 연구자와 SDP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체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에 집중되어있지만, SDP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지역은 아프리카에 밀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chulenkorf, 2016). 따라서 SDP 프로그램의 개발 개념은 대개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의 개발 시각을 주로 반영하게 된다. 이는 개발이라는 개념이 주로 지배적인 서구 선진국 중심, 즉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의 관점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Mwannga et al., 2013).

둘째, 일방적인 하향식(top-down) 프로그램으로 인해 참여자들의 경험이나 의견이 배제되기도 한다(Darnell, 2010).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미리 계획된 구조를 강요하며, 지배적인 규범을 전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화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대상자들과의 충분한 상담과 컨설팅이 없이 운영되는 경우,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방향성이 대상자들과 일치하지 않아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여성의 임파워먼트 강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된다면, 여성들의 행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Donnelly et al., 2011).

셋째, SDP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다. 스포츠와 신체활동은 발전과 평화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지만, 다른 개발 프로그램과 동시에 진행되며 다양한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스포츠는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며, 폭력, 차별, 국가주의, 도핑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스포츠의 활용 방식에 따라 결과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HIV/AIDS 예방을 위한 스포츠 개발 프로그램이 성공했을 때, 이러한 성과가 스포츠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지역의 공공건강 정책이나 다른 비정부기구(NGO)의 프로그램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는 스포츠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더 많이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Kidd, 2011).

## (2) 실천적 쟁점

SDP의 실천적 쟁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SDP의 실천적 쟁점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평화'라고 볼 수 있으며, SDP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듯이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EFA(Education for All),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등이 강조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SDP의 실천은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는데, 공동체주의는 사회의 전 구성원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대화를 바탕으로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전지훈 외, 2015). 이는 상호협력, 네트워크, 파트너십 등의 미래지향적이며 가치 지향적인 개념들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SDP는 단순한 정책 수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대화를 중심으로 한 참여적인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태도보다는 상호 양보와 공동체의 번영을 중시하는 가치중심적, 협력지향적, 평화적 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SDP는 ‘스포츠의 개발(development of sport)’과 ‘스포츠를 통한 개발(development through sport)’의 두 접근 방식으로 구분되는데(하재필, 2016), 이들은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스포츠와 개발의 전통적 접근 방식인 ‘스포츠의 개발’은 스포츠 기반시설의 확장, 코칭기술 향상, 스포츠용품 및 장비의 개발, 운동 경기력 향상 등과 같은 실제 스포츠 활동을 통한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Sotiriadou et al., 2008). 반면 두 번째 접근 방식인 ‘스포츠를 통한 개발’은 주로 스포츠가 가져오는 평화적인 사회적 변화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 이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평화라는 상징적 힘을 다양한 사회적 세력과 결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교육이 직접적으로 빈곤 수준을 감소시키지는 않더라도 잠재적인 삶의 기회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는 단순한 운동이나 경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통합과 평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즉, 스포츠가 다양한 사회 세력과 융합될 때, 그 힘은 더욱 강화되어 교육을 통한 스포츠 활동이 삶의 기회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권순용, 2015; Cardenas, 2013; Kidd, 2008; Sugden, 2010).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모와 방식으로 실천할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합의된 인식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Hartmann & Kwauk, 2011). 이에 평화의 문화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기존의 국가중심 접근과 구조비판 접근에서 벗어나, 인간중심 접근을 통한 교육이 SDP 실천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인간중심접근은 Galtung이 제시한 평화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는 평화와 폭력을 대조적인 개념으로 언급하며 빈곤, 차별, 압박 등을 폭력에 포함시켰고(김성철, 2022), 적극적 평화론을 인간안보론으로 재현하는 접근을 소개하였다(김성철, 2021).

스포츠를 통해 평화적인 사회변화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는 SDP의 기본 전제는 스포츠가 평화교육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물론 평화는 무형의 가치이기에 스포츠로 평화를 교육한다는 것은 교육과정이나 평가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지만, Dewey가 제시한 경험 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 신체활동/스포츠가 포함될 수 있다. 즉, 앞서 제시하였던 ‘Plus sport’의 일환으로서 스포츠를 활용한 평화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 라. SDP에서의 평화교육

초기 SDP 프로그램은 실제 스포츠 활동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는 ‘스포츠의 개발’에 더 근접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당시에는 SDP에서 P(peace)가 빠진 SFD(Sport for Development)로 표현되었다(Kidd, 2008). 이후 UN이 SDGs와 함께 스포츠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서, P(peace)를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되어 SDP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SDP라는 개념은 ‘실제 스포츠 활동을 통한 발전’에 ‘스포츠가 발생시키는 평화적인 사회변화를 통한 발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DP와 평화교육의 효과적인 연계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도구로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Giulianotti(2011)가 제시한 3가지 이념형의 적용은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의 합의된 방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 SDP 프로그램을 위한 세 가지 이념형

	Technical	Dialogical	Critical
핵심 목적	문제 해결	사회관계 재창조	공동체 간 변형 (transformation)
주요 주제	지시적 교육법 / 측정된 결과	대화적 교육법 / 새로운 의미	성인 교육법 / 새로운 커뮤니티
경영 프레임워크	계층적	중재 / 리더십	수평적 / 유동적
주체의 역할	개입	안내된 조정	촉진
사용자 집단	특정한 사회 집단	특정한 커뮤니티 집단	다양한 커뮤니티 집단
전형적인 방식	주기적 치료	지도자 양성	Multi-day 캠프, 교류
사회문화적 도구	기존의 스포츠	변형 스포츠	새로운 게임 / 다른 문화적 실천
놀이 접촉 방식	경쟁적	협력적	커뮤니케이션
기부자와의 관계	규제된	상응하는	자율적인
부문과의 관계	도구적	전략적	보완적
모니터링과 평가	적극적	다양한 방법 / 참여적	참여적, 상호보완적, 비판적 성찰

출처: Giulianotti(2011)을 참고하여 재구성

첫째, SDP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계획하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된다(Kidd, 2011). 이는 특정 사회집단이 실제적, 객관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문제에 직면한다고 가정하는 Technical model이 적용된 것이다. SDP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계획하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중시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며, 그들의 실제 문화에서 나온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예시로 언급되는 것은 ‘적정기술’의 도입이다. 적정기술이란 국제개발 협력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현지 사용자의 문화와 환경에 맞는 적절한 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며 다음 단계의 발전을 이끄는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적정기술이 사용된 대표적인 예시로는 에누마의 ‘킷킷스쿨(Kitkit School)’이 있다. 이는 선진국의 입장이 아닌 아닌 참여자 입장에서 현지의 문화를 고려하여, 현지에서 쓰는 언어, 도구 등을 활용한 SDP 프로그램이다. 문화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각, 음성, 그림의 오감을 자극하는 학습방법을 활용하여 참여한 모든 청소년이 학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선례이다(이현정, 2020).



출처: <https://www.kitkitschool.com/>

그림 7. 킷킷스쿨의 Learning App을 통한 활동 사진

두 번째, SDP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프로그램이 참여자들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갈등을 사회구조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Dialogical model이 적용된 것으로, SDP를 평화의 도구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한다. 지난 10년 동안 SDP 분야는 연구와 실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성장과 다양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그 실상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 스포츠가 가진 이점들을 앞세우긴 했지만, 실상은 스포츠의 개입이 두드러지지 않다는 것이다(Peachy, 2020). 따라서, SDP 프로그램은 평화 및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Cohen, 2018; Darnell, 2019; Sugden, 2010).

세 번째, SDP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창출(Co-creation)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는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수행방식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Critical model이 적용된 것이다. 공동창출이란 의사결정과정을 조직 내부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부의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파트너십, 동참을 통해서 혁신을 포함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Chesbrough, 2003). 그러나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SDP는 스포츠 관련 활동을 글로벌화(Globalization) 시켰지만, 이러한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해온 SDP의 많은 이해관계자와 조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Svensson, 2017). 즉, ‘스포츠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동창출 방법’에 관해서는 간과하고 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조직 간의 공동창출이 필요한지(Marlier, 2020), 어떤 수준의 국가 간의 공동창출이 필요한지(Schulenkorf, 2016), 어떤 학문 분야 간의 공동창출이 필요한지(Cohen, 2018)를 구체적으로 고안할 필요가 있다.

## 2. 스포츠를 통한 긍정적 청소년 발달(PYD)

### 가. 개념

긍정적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이하 PYD)은 긍정심리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며 대두된 개념이다. 1950년대의 미국에서는 비행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났으며, 1950-60년대에는 이혼 사례가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약물복용, 행동장애, 학업성적의 저하, 미성년자 임신 등의 문제까지 확대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보다는 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수, 2022). 유사한 맥락에서 1990년대 초 청소년을 바라보는 문제 중심적 접근에 대한 비판으로 대두되었다(Lerner, 2005). 이를 기점으로 계도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청소년이 긍정심리학에서 발달 잠재성을 가진 개인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Lerner, 2005; Roth et al., 1998; Weiss, 2016). 이후 워싱턴 대학교의 Social Development Research Group의 Richard Catalano를 중심으로 긍정적 청소년 발달의 기초 작업이 이루어졌다(이현수, 2022). 이러한 관점의 변화에 따라 PYD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PYD는 청소년의 역량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Pittman et al., 2001).

PYD가 긍정심리학에서 대두된 개념인 만큼 PYD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PYD 분야에서 생태학적 관점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Steinberg & Lerner, 2004). 이에 따라 PYD에 대한 다양한 모델이 제시/변형되었으며, 대표적으로 Benson의 40 발달 자산, Lerner의 5Cs/6Cs 모델, Catalano의 15 PYD 구성요소, Tolan의 사회정서학습 등의 개념 및 모델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다양한 PYD 모델은 청소년의 강점, 발전의 유연성, 내적 발달 자산, 외적 발달 자산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Shek et al., 2019). 청소년의 강점은 PYD 개념의 등장과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을 발달 가능한 개인으로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전의 유연성은 생태학적 관점의 맥락에서 스포츠 참여 자체로 긍정적 발달이 가능한 것이 아닌 주변 환경에 따라 발전에 차이가 있음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내적 발달 자산과 외적 발달 자산은 Benson의 40 발달 자산에서 분류되었던 것처럼 개인의 내면 즉, 사회심리적 역량과 개인 외부의



영향 지역사회 영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Shek et al., 2019).

표 4. 긍정적 청소년 발달에 대한 다양한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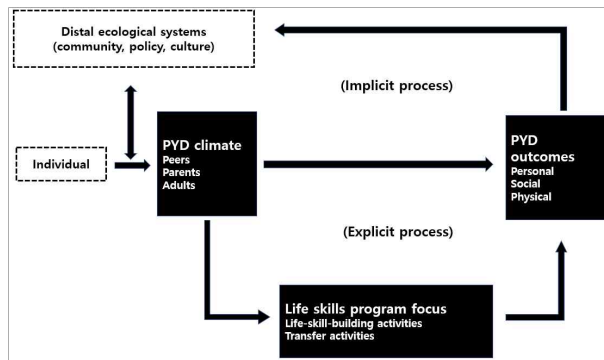
	40 발달 자산	5Cs/6Cs 모델	15 PYD 구성요소	SEL
주요 학자	Benson	Lerner	Catalano	Tolan
이론적 틀	생태학적 관점, 강점 기반	생태학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	사회정보처리 이론
지역사회 역할의 강조	0	0	0	소수
되는 것 vs 하는 것	공존	공존	공존	하는 것 > 되는 것
기원	서구	서구	서구	서구

출처: Shek et al.(2019)을 참고하여 재구성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는 PYD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된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발달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Larson, 2000), 스포츠는 가장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대중적 활동이다(Larson, & Verma, 1999). 즉, 스포츠는 PYD를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PYD를 추구하기 위한 방식으로 스포츠가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PYD는 단순한 스포츠 참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서두에서 언급한 “위대한 스포츠 신화(The Great Sport Myth)”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스포츠 참여의 환경에 따라 스포츠 참여 결과 즉, PYD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포츠를 통한 PYD는 성인이 감독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신체적 유능감과 함께 전이 가능한 개인적, 사회적 라이프 스킬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과 과정을 통해 청소년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Holt et al., 2016).

스포츠를 통한 PYD는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스포츠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Holt et al.(2016)은 스포츠를 통한 PYD 모델을 제시하였다. 스포츠를 통한 PYD 모델에서 개인은 거시적 생태 체계와 상호작용하여 동료, 부모, 코치 등 성인의 영향을 받아 개인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을 하게 된다. 이는 명시적 과정과 암묵적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라이프 스킬 발달 및 전이 활동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외 개인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친 개인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은 거시적 생태 체계에 영향을 주며, 스포츠를 통한 PYD는 순환구조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Holt et al., 2016).



출처: Holt, N. L., Deal, C. J., & Smyth, C. L. (2016). Future directions for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rough sport.

그림 8. 스포츠를 통한 긍정적 청소년 발달 모형

## 나. 프로그램

LiFEsports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기반 PYD 프로그램이다. 1968년부터 NCAA와 정부의 주도 하에 진행되던 National Youth Sports Program이 재정문제로 인하여 폐지 위기를 맞았고(Anderson-Butcher et al., 2018a), 이에 Department of Athletics, Department of Recreational Sports, 그리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College of Social Work가 협업하여 LiFEsports로 연계하며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Anderson-Butcher et al., 2018a). LiFEsports는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의 삶과 리더십 준비를 통해 스포츠 기반 PYD의 국가적 모범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LiFEsports는 자기통제, 노력, 팀워크, 사회적 책임을 추구한다. 스포츠, 피트니스, 교육적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 함양을 위해 야구, 농구, 댄스, 풋볼, 라크로스, 축구, 수영, 배구 종목을 활용하고 있고, 놀이 기반 사회적 기술 함양을 위하여 이론 수업도 진행한다. 참여 대상은 9-15세 청소년이며, 매년 6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한다. 오하이오 주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등에서 진행되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6-7월에 진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4주 동안 진행되는 LiFEsports Summer Camp와 8주 동안 진행되는 LiFEsports+ Summer Camp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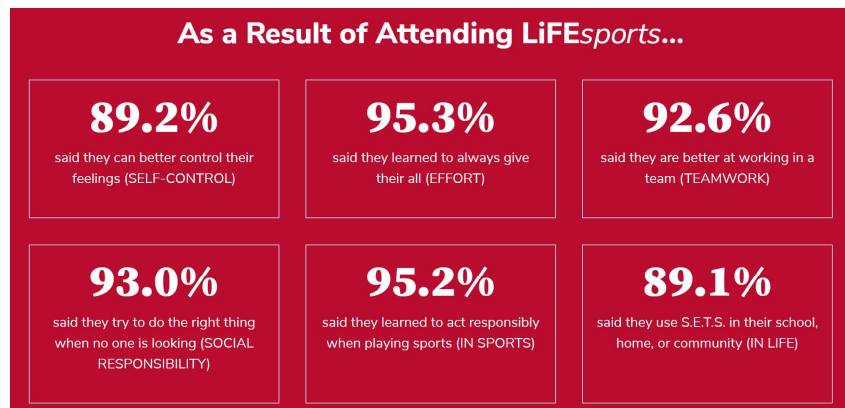


출처: LiFEsports. <https://lifesports.osu.edu>

그림 9. LiFEsports(+) Summer Camp 활동 사진



LiFEsports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PYD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LiFEsports Summer Camp에 참여한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함양을 측정한 Anderson-Butcher et al.(2018b)의 연구에서는 캠프 참여를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이 증진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사회적 발달, 신체활동 기술 및 지식 발달,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방식 획득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Newman, 2020). 즉, LiFEsports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LiFEsports. <https://lifesports.osu.edu>

그림 10. LiFEsports의 청소년 참여 결과

LiFEsports에서 진행하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 프로그램(Youth Leadership Academy Program)이 있다. 4년에 걸쳐 15-18세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년 차에는 목표 설정, 조직, 의사 결정에 대한 계획을 교육하고, 2년 차에는 관계 형성, 사회적 기술과 자아 정체성에 대한 준비를 교육한다. 3년 차에는 이력서 작성, 네트워킹 등을 통한 실천을 교육하며, 4년 차에는 장학금 지급, 대학교 진학 준비 등을 진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스포츠가 중심이 되어 긍정적 청소년 발달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LiFEsports Summer Camp의 스태프로 참여하며 PYD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팀워크 등의 긍정적 발달이 나타나기도 한다(Bates et al., 2019). 주로 동료, 성인과의 긍정적 관계, 기술 발달 세션, 그리고 인턴십 경험을 통해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긍정적 발달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제시되고 있다(Bates et al., 2019).

LiFEsports는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봉사를 진행하거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특히, 오하이오 주, Ohio 4-H 단체와 협업 관계에 있으며, 14개 이상의 오하이오 주립 대학 학과와 협업 관계를 구축하였다(Anderson-Butcher, 2018a). 또한, 운영 프로그램인 LiFEsports Summer Camp, Clinics, Youth Leadership Academy에 자원봉사자를 투입하여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참여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삶에 필요한 재정적, 정신적, 그리고 의식주를 지원하고자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 관련 쟁점

### (1) 학술적 쟁점

PYD에 대한 접근은 40 발달 자산, 5Cs/6Cs, 15 구성요소, 사회정서학습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hek et al.(2019)은 PYD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표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스포츠를 통한 PYD와 관련된 논의는 첫째, “되는 것(being)” 접근으로부터의 연구, 둘째, “되는 것(being)”과 “하는 것(doing)”의 관계, 셋째, 비서구적 맥락의 고려로 나타난다(Shek et al., 2019). 즉, 청소년이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여에 따른 내면의 성숙과 발달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와 긍정적 발달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되며, 서구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비서구 국가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PYD가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PYD 모델을 제시한 Holt et al.(2016)은 이론의 실현 가능성, 연구와 실행의 격차, 그리고 배제된 거시적 체계와 같은 스포츠를 통한 PYD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Coakley(2011)는 스포츠를 통한 PYD 연구가 다양한 개인적 특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는 스포츠 참여에 따른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은 환경이 갖추어질 때 가능하며, 조직 및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포츠를 통한 PYD에서는 개인의 내적 자산과 외적 자산이 고루 강조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공헌에 대한 주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2) 실천적 쟁점

PYD의 실천적 쟁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PYD에서 생태학적 관점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5년, 기존 5Cs의 적절성을 검토하던 Lerner et al.(2015)는 청소년이 5Cs를 갖춘 채 환경과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본인·가족·지역사회, 더 나아가 시민사회에 적극적인 공헌(Contribution)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스포츠 맥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포츠를 통한 PYD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청소년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까지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Holt et al., 2016).

이러한 변화는 PYD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Hamilton et al.(2004)은 “PYD는 최적의 발달을 촉진하는 수단이 되는데, 청소년으로서 그리고 이후 성인으로서 건강하고,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고, 타인을 보살피고, 시민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Holt et al.(2016)은 위의 모델을 제시함과 동시에 “스포츠를 통한



PYD는 구조화된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로 청소년의 신체적 유능감과 함께 전이 가능한 개인적, 사회적 라이프 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경험과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발달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한 기술과 역량을 통하여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들 지역사회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 라. PYD에서의 평화교육

긍정적 청소년 발달에서는 내적 자산과 외적 자산이 모두 강조되지만, 개인 내면의 발달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Shek et al., 2019). 이러한 내면의 발달은 Freire의 의식화, Reardon의 포괄적 평화교육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역사회, 더 나아가 세계적 발달을 추구하는 긍정적 청소년 발달 관점과 의식화, 포괄적 평화교육이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PYD 프로그램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PYD에서 청소년 발달 단계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다양한 맥락에 대한 적응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하는 평화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스포츠 참여는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적 맥락에서 요구되고 있기에 PYD는 매크로 수준에서 평화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McNeil, 2021). 따라서, PYD는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PYD에서 강조되는 거시적 생태 체계는 청소년 개인의 발달, 그리고 발달을 통한 청소년의 사회 공헌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평화와 관련된 내용은 거시적 생태 체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은 긍정적 발달을 통해 평화로운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McNeil, 2021).

## 3. 올림픽교육(OE)

### 가. 개념

IOC의 정의에 따르면 올림픽교육은 올림피즘(Olympism)과 올림픽운동(Olympic Movement)의 목적과 관련된 지식, 가치, 행동의 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이다. 올림피즘이란 세계문화, 국제적 이해, 평화적 공존, 사회·도덕 교육에 있어 스포츠의 역할을 강조하는 철학적 정신을 의미한다(Parry, 2012). 주요 목적으로는 스포츠를 통한 인간 존엄성의 수호, 평화로운 사회 구현,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 추구가 해당하며, 스포츠의 실천을 인간의 권리로 인식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우호, 연대, 페어플레이 정신을 요하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올림픽운동은 올림피즘의 가치에 공감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이 스포츠라는 매개를 통해 청년들에게 올림피즘의 가치를 전파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을 의미한다(IOC,

2016). 올림픽운동의 목적은 스포츠를 통해 젊은이들이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데 공헌하는 것이며, 올림픽이 지니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올림픽 전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올림픽 정신의 핵심 요소가 되는 우정, 사랑, 단결, 협동, 페어플레이 등의 가치 교육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올림픽주의 기본 이념과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는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Coubertin은 『Olympic Review』에 ‘Why I Revived the Olympic Games’라는 글을 기고하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교육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모든 이들에게 심어주어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고,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근대올림픽을 부활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서재철, 서정석, 2018).

이러한 배경에서 IOC는 ‘올림픽주의’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전 세계로 전파하여 올림픽주의 이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올림픽주의와 교육의 연관성은 올림픽 헌장 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올림픽주의 기본 원칙 7개 중 4개 항목에서 올림픽의 철학적 내용과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조는 스포츠와 문화, 교육을 혼합하여 올림픽주의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제2조는 평화로운 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올림픽주의 목적을 설명한다. 제4조와 제6조는 인권과 차별의 부재를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기본 원칙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은 올림픽의 기초와 내용을 특징짓는 중요한 핵심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IOC는 올림픽 헌장을 통해 올림픽주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1항은, “스포츠를 문화 교육과 연계하고 조우시키는 올림픽주의는 노력으로부터 얻는 환희, 선을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 사회적 책무, 그리고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덕목을 존중하는 것 등에 기반을 두는 일종의 삶의 방식을 창출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항목에서는 올림픽을 통한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표 5. 올림픽주의 기본 원칙

조항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 내용
1	• 스포츠를 문화 그리고 교육과 융합함으로써, 올림픽주의는 노력으로부터 얻는 즐거움, 좋은 본보기의 교육적 가치, 사회적 책무, 그리고 보편적 윤리 덕목의 존중에 기반을 두는 삶의 방식을 구현한다.
2	• 올림픽주의의 목표는 스포츠를 통해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인류의 조화로운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다.
4	• 인권으로서 스포츠의 원칙 아래 ...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6	• 인종, 성, 성적 지향,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 출신, 재산 등 어떤 종류의 차별이 없이 권리와 자유의 향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출처: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2023). Olympic Charter.





올림픽교육이 평화를 구축하고 올림픽즘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올림픽교육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 국제 올림픽 아카데미(International Olympic Academy)(이하 IOA)와 올림픽 연대(Olympic Solidarity)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IOA는 올림픽 정신을 보존 및 확산하고, 올림픽즘의 교육, 연구 및 실천을 위해 1961년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이하 IOC)의 지지를 얻어 창설되었다. 이에, IOA는 세계 각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s)(이하 NOC)의 추천으로 선발된 학생, 교육전문가, 선수 등 다양한 대상에게 올림픽운동과 올림픽 가치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현재는 올림픽즘을 홍보하고 전 세계에 올림픽 가치를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올림픽교육의 선도적인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 사업, 프로그램, 세미나 등을 주관하고 있다.

표 6. 국제 올림픽 아카데미(IOA)의 목적 및 역할

IOA의 목적 및 역할	
1	• 올림픽교육 및 연구를 위한 국제학술센터로서 기능한다.
2	• 올림픽교육을 통해 사회에 올림픽 가치를 전파한다.
3	• 올림픽즘의 인문학적 측면을 홍보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4	• 개인들에게 올림픽 이상과 올림픽 무브먼트의 원리를 교육한다.
5	• 사람들이 IOA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각 국가에서 올림픽 이상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6	• 연대, 우정,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7	• 전 세계 국가올림픽아카데미(NOAs)의 역할과 각 국가올림픽위원회(NOCs)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들의 일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올림픽교육에 헌신하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한다.

출처: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2022). 국제올림픽아카데미(IOA, International Olympic Academy).

올림픽 연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NOC의 선수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선수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올림픽 헌장 제5조에

따라 올림픽 가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림픽 연대는 올림픽 이념의 기본 원칙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스포츠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이하 ODA)의 일환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올림픽 연대는 정부와 국제단체에 스포츠를 활용한 공적개발원조를 촉구하고 있으며, 난민 선수와 같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인간 존엄성의 수호와 평화로운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OA와 올림픽 연대 외에도 ‘올림픽 연구 센터(Olympic Studies Centre)’와 ‘올림픽 박물관(Olympic Museum)’ 등의 기관에서 올림픽의 이상을 전파 및 확산하기 위하여 올림픽교육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서재철, 서정석,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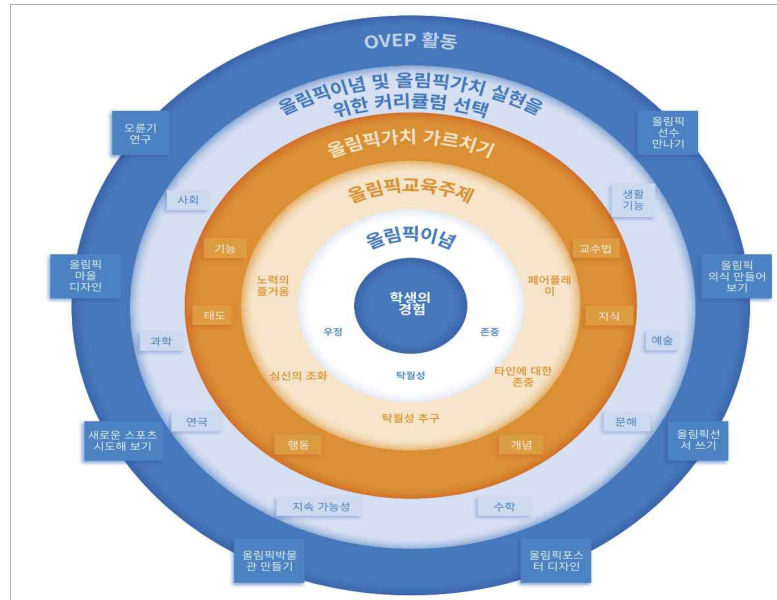
초기 올림픽교육은 올림픽과 관련된 지식, 역사, 인물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기에 ‘올림픽에 대한 교육(What are the Olympics)’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UN이 2005년을 스포츠와 체육을 위한 해로 지정하고 IOC가 올림픽운동의 실현과 스포츠의 관련성을 강조함에 따라 스포츠와 올림픽의 가치,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 맥락 속에서 2007년도에 시작된 올림픽가치 교육 프로그램(Olympic Values Education Program)(이하 OVEP)은 올림픽교육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The goal of the Olympic Movement is to contribute to building a peaceful and better world by educating youth through sport practiced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and in the Olympic spirit, which requires mutual understanding with a spirit of friendship, solidarity and fair play.*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

IOC가 올림픽 가치를 교육적 차원에서 고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발한 OVEP은 스포츠 활동과 교육적, 문화적 가치를 통합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UN 총회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10개년 교육(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하 DESD)’ 선언과 같은 맥락에서 올림픽을 매개로 하여 진행되는 스포츠 가치 교육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홍애령, 안지연, 2016). 본 프로그램은 크게 다섯 가지의 교육적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력의 즐거움을 경험한다. 둘째, 페어플레이를 학습한다. 셋째, 자신과 함께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함양한다. 넷째, 신체 움직임의 탁월성을 추구한다. 다섯째, 신체, 의지, 정신의 균형 있는 발달을 통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한다(홍애령, 안지연, 2016).



출처: 올림픽가치교육 실천가이드. <https://olympics.com/en/>

그림 11. OVEP 활동 실천 가이드

OVEP의 활동은 단순히 올림픽에 대한 이해에서 그치지 않고, 올림픽주의 전파, 더 나아가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 그 의미는 궁극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증진하는 데에 있다. OVEP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올림픽 그리고 올림픽을 통한 평화 가치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배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최송아, 권남희, 2018). 이는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져 평화 가치를 수호하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올림픽교육의 변화 과정을 통해 올림픽교육 역사가 ‘올림피아에 대한 교육’에서 ‘올림피아를 위한 교육’, ‘올림픽주의에 내재된 가치와 실천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올림픽교육의 초기 접근이 무의미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미래의 올림픽교육이 가치와 실천의 증진과 함께 지식을 전달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올림픽이 평화의 문화와 유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통해 올림픽을 위한 교육은 결국 스포츠를 위한 교육이라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 나. 프로그램

올림픽주의 원칙과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올림픽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사례 2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영 올림픽 앰배서더를 위한 세션(International Session for Young Olympic Ambassadors)이다. IOA는 매년 고대 올림피아에서 올림픽 앰배서더를 위한 국제 세션을 개최하며, 다양한 국적의 청년층들에게 올림픽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종교, 언어, 성별, 문화 및 지위의 장벽을 허물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지난 2019년 6월에 진행된 제59회 IOA 정기연수회에서는 91개국의 171명이 참가하였다. 이 세션은 ‘올림픽 외교 및 평화’와 ‘국제외교에서 올림픽 스포츠가 가지는 긍정적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약 2주간 강연 및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문화 행사와 체험 활동,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통한 스포츠와 평화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의 노력이 시행되었다.

둘째, OVEP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실천된 사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홍애령, 안지연, 2016). IOC는 2년마다 ‘IOC 세계 스포츠·교육·문화 포럼’이라는 학술대회를 열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이하 WHO), 유네스코(UNESCO)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 참석자들과 함께 올림픽izm 구현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2008년에 부산에서 개최된 제6회 세계 스포츠·교육·문화 포럼은 ‘현세대를 위한 스포츠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포럼에서는 스포츠를 매개로 하여 젊은 세대들이 교육, 환경, 인권, 문화 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고민하고, 지구촌 시대의 세계시민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 및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신현군, 2014). 구체적으로 청소년과 스포츠, 스포츠의 보편성,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타 기관과의 파트너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IOC, 2008), 특히 스포츠에 대한 열정으로 평화와 공존하는 지구촌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면서 스포츠와 평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 다 관련 쟁점

### (1) 학술적 쟁점

올림픽교육의 학술적 쟁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올림픽교육을 구성하는 2가지 요소인 스포츠와 올림픽은 평화라는 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유네스코(UNESCO) 60주년 기념문 중 하나인 ‘Education through sport’에서는 스포츠의 교육적인 측면을 통해 평등, 윤리, 평화와 같은 이상적인 가치들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는 거의 모든 사회에서 평화 구축 능력을 가진 문화적 표현으로서 인정받고 있으며(Cardenas, 2013), 이러한 평화 구축 능력을 바탕으로 스포츠는 평화를 위한 도구로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과 평화의 관련성은 올림픽 모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올림픽 모토는 127년 만에 기존의 ‘Faster, Higher, Stronger’에서 ‘Together’가 추가된 ‘Faster, Higher, Stronger, Together’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올림픽이 각국의 스포츠 선수들이 모여 종목별 우위를 겨루는 경기·대회 이상의 가치를 다루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밝힌 올림픽izm의 정의와 목적을 고려했을 때, 올림픽교육은 올림픽 가치 확산을 넘어서 세계평화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올림픽교육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기도 한다. 서재철(2018)은 IOC 중심의 올림픽교육 프로그램들이 올림픽izm의 철학적 아이디어를 가치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하여 운영하지만, 정작 올림픽izm의 본질은 특정한 집합적 주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창안하여 온 일종의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서재철(2018)은 Cazorla et al.(2011)의 주장을 인용하며 IOC 중심의 올림픽 운동이 사회적 현실에 대한 변화의 증거들을 무시하였고, 또 외부로부터 제기되는 회의와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면서 오직 올림픽주의 보존, 전승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는 IOC 중심의 올림픽교육이 올림픽의 오염된 역사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젊은 세대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교훈만을 전달하는 관행을 비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올림픽교육이 편향되지 않고 모두를 위한,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올림픽교육을 구성하는 가치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 (2) 실천적 쟁점

올림픽교육의 실천적 쟁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올림픽은 전 인류가 전승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이다. 그동안 IOC를 중심으로 올림픽에 담긴 교육적 가치를 부각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올림픽의 날(Olympic Days)’ 제정이 있다. 올림픽의 날은 제41회 IOC 총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올림픽의 가치의 전 세계적 확산과 올림픽운동의 개념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올림픽의 날은 1978년판 올림픽 헌장에 등재되었으며, IOC는 NOC들이 올림픽운동을 알리기 위한 올림픽의 날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일부 나라에서는 올림픽의 날 행사를 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시켜 올림픽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올림픽교육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신현군, 2014). 일선 교육 현장에서 시도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은 올림픽에 수반된 가치에 대한 ‘교재 중심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신현군, 2014). 이는 ‘올림픽에 내재된 가치와 실천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올림픽에 대한 교육’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올림픽대회 레거시(Legacy)를 활용해 미래 세대에게 올림픽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올림픽가치 교육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OVEP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개발되었으며,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여 현장학습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올림픽 공원 내 평화의 문을 시작으로 서울올림픽 기념 조형물에 대한 해설을 듣고, 도미노 활동을 통해 올림픽의 핵심 가치인 우정, 존중, 탁월성을 직접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국내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임을 고려했을 때 올림픽 가치의 적극적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올림픽운동 및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매년 KSOC 올림픽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자를 일반 유·청소년이 아닌 대학생,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Coubertin이 주장한 올림픽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에 매우 제한된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https://www.kspo.or.kr/news/main/main.do>

그림 12. K-올림픽 가치 교육 프로그램 활동 모습

## 라. OE에서의 평화교육

올림픽과 평화교육의 연관성은 1896년에 근대올림픽이 다시 시작된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Coubertin의 고대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 패하여 사기가 저하된 프랑스 청소년들의 심신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적 동기에서 출발하였다. 스포츠의 도덕적, 신체적, 교육적 가치를 확신한 Coubertin은 올림픽을 통해 세계 각국 청소년들 간의 상호 이해와 우정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대올림픽을 부활시켰다. Coubertin은 청년들이 올림픽을 통해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평화와 같은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현해 가는 것을 올림픽 개최의 주요 효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림픽과 올림픽 운동의 가치관을 포괄하는 올림픽교육은 개인을 교육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IOC, 2016). 따라서 올림픽교육은 자체로서 평화교육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동시에 평화학의 인간중심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4. 스포츠 인권교육(HRE)

### 가. 개념

인권(Human Rights)이란 ‘인간의 권리’로, 인간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마땅히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단순히 인간의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John Locke와 같은 근대 계몽사상가들은 개인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신체와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강조하였다(김병욱, 2009). 17세기와 18세기 서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한 인권 개념은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을 주축으로 형성된 자유주의 사상과 보편주의를 토대로 체계화되었다. 즉, 인권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적 법으로서 인정한 것이며, 이것은 인종, 언어, 성별, 국적, 신분 등을 뛰어넘어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고,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인 권리라는 것이다(Bell, 2000; Lister, 1991).

UN은 1948년 모든 국가와 시민들이 준수해야 할 공통의 행위 기준으로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선포하였다. 이를 통해 인권의 보편성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임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윤종갑, 신순정, 2016). 이후 인권을 가르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는 학생들을 교육과정의 중심에 놓은 채 스스로 사고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제시되었고(UNESCO, 1998), 이에 인권교육은 인간의 자질을 발달시키는 수단으로 인정받았다(UNESCO 1978).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는 인권교육을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 존중 사회 실천에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특히, 스포츠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움직임으로 확장하여 생각해보면, 스포츠를 통해 인간은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포츠인권이란 스포츠를 통해 인권을 바라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스포츠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향유를 침해받지 않을 의무라는 것이다(정용철 외, 2016). 스포츠에서 자신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거나 신체를 구속받지 않는 권리가, 선수들이 감독 및 코치에 의한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도 포함된다. 제3세계 국가의 어린이들을 위해 스포츠용품을 전달하고, 난민수용소에서 스포츠를 가르치는 등의 사례를 통해 스포츠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킨 것도 스포츠인권을 지키기 위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정용철 외, 2016).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스포츠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인권의 가치 때문이다. 스포츠는 양측이 모두 동의한 규칙에 따라 경쟁하기 위해 자신의 기량을 최선을 다해 펼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협동하며, 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 다시 말해 스포츠는 인권의 가치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스포츠 참여를 통해 개인이 배울 수 있는 인권적 요소에는 개인적 수준의 존엄성과 자결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확장하여 개인과 개인이 연대하고 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 협동의 힘을 배울 수 있다. 2005년,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이하 UNESCO)는 스포츠를 통한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스포츠와 체육 교육을 통한 개인, 지역사회, 국가와 세계 수준의 역할을 밝혔으며 스포츠는 건강한 자아 인식, 사회 성장과 보건 향상, 평화와 환경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포츠 활동에 인권적 가치가 내재 되어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체육은 1960년대를 기점으로 성과 중심의 방식으로 급격하게 발전하였고 1970년대에는 엘리트 스포츠 중심의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성과 속에서 희생되는 선수들이 있었기에, 2000년대 이후부터 이와 같은 결과 중심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스포츠 인권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관계 기관에 스포츠 분야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이와 같은 헌장과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배경으로는, 스포츠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그 가치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John Locke 등의 근대 계몽사상가들도 인권에서 ‘신체와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강조했듯이, 스포츠 인권 헌장의 제1조는 ‘자유로운 신체활동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스포츠는 인권이다.’로 시작한다.

그럼에도 인권이라는 키워드는 스포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슈이다. 2019년 쇼트트랙 조재범 코치의 성폭력 사건과 연이은 2020년 철인 3종 선수의 극단적 선택은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프로배구, 프로야구 등에서도 선수들의 학교폭력 미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스포츠 인권은 큰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나정은 외, 2023). 인권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정부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로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하였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와 피해자 지원사업, 2)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3) 징계 정보 시스템 운영, 4)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사회화에 의해 스포츠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스포츠공동체 전체로 규범화하는 것이 인권의 가치를 스포츠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제시되었다(김진희 외, 2019; 허수미, 2008).

스포츠인권교육의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대한체육회나 스포츠윤리센터뿐만 아니라 각 종목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스포츠인권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스포츠인권교육은 스포츠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고, 인권침해를 당할 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인권적 태도를 발전시켜 인권 옹호적 실천을 이끌어내는 교육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성주, 2022; Lister, 1991; Struther, 2015). 또한, 인권교육은 교육자와 학습자 양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이어야 하기에(UN, 2004), 스포츠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인권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내용뿐 아니라 지도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문제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된다(나정은 외, 2023).

## 나. 프로그램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예시로 CPSU(Child Protection in Sport Unit)를 들 수 있다. 1993년, 전 영국 올림픽 수영 코치인 Paul Hickson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포함하여 15건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1997년 캐나다 국가 아이스하키 코치였던 Graham James는 유소년 선수에게 350회 이상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건들이 공개된 이후 유소년 축구팀, 체육교사 등 다양한 스포츠에서 성적 학대 사건 혐의가 발생하였다. 이에 영국의 아동보호 전문단체인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이하 NSPCC)와 스포츠 대표조직인 Sport England가 파트너십을 맺어, CPSU라는 전담조직을 설립하였다. CPSU의 목표는 스포츠 및 신체활동 영역을 지원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스포츠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음의 5가지 영역으로 나누는 가치들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표 7.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가치

기반 가치	내용
어린이, 청소년 우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포츠 및 신체활동 영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활동의 중심에 둠</li> <li>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고 노력함</li> <li>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위한 실천 표준을 제시함</li> </ul>
입장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SU 활동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안전 보호의 실천을 중시하도록 강조함</li> <li>활동 중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을 촉구함</li> </ul>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해관계자 및 사업 파트너와 협력하여 안전 보호를 강화함</li> <li>어린이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함</li> </ul>
우수성의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포츠 활동 중 안전 보호에 관한 리뷰와 조사를 통한 교훈을 공유함</li> <li>일상적인 업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가치를 실천함</li> </ul>
영향 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및 절차의 변경을 촉구함</li> <li>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안전 보호 표준을 충족시키도록 평가함</li> <li>위와 같은 표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함</li> </ul>

출처: CPSU(Child Protection in Sport Unit). <https://thecpsu.org.uk/>



출처: <https://thecpsu.org.uk/>

그림 13. CPSU 참여자들의 활동 사진

CPSU는 스포츠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표준 및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코치와 지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인권 프로그램, 아동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이프스포츠 어웨이(아동 및 청소년이 집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경우 준수해야 할 안전 및 인권 가이드)’, ‘세이프 스포츠 이벤트(아동 및

청소년 대상 스포츠 행사 기획 시 준수해야 할 안전 및 인권 가이드’ 등을 부모, 지도자, 장애인 선수 등을 위한 대상별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의 스포츠 정책은 인권 침해의 ‘방임형’에서 ‘예방형’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본 프로그램에서 인권교육과 관련된 쟁점에서는, 체육단체나 정부기관에서 스포츠인권교육을 인지적 영역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존재한다. 스포츠선수나 지도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거나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CPSU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선수들을 위한 인권 가이드를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대상별 가이드를 제시하며 조금 더 적극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관련 쟁점

### (1) 학술적 쟁점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경쟁을 통한 신체적 우월성과 승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불평등, 위계, 차별 등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더욱이 팀워크를 강조하는 스포츠문화 속에서 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공동체의식을 학습하고 내면화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하는 인권적 가치에 대한 혼란이 발생한다. 인권은 그것이 수용되는 집단이나 조직의 문화적 요소에 근거하여 설명되지 않으면 그 집단이나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합의를 얻을 수 없기에, 스포츠인권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인권이 스포츠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인권교육의 학술적 쟁점은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으로는 인권에 대한 소극적(negative) 접근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포츠인권은 스포츠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미해야 하는데, 현재 스포츠인권은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사생활 침해 등 ‘해서는 안 될 행위’로만 이해되고 있다(박성주, 2022). 즉,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 의무와 책임과 같은 인권의 본질에 대해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기실적 위주의 평가문화, 지도자들의 비정규직 계약 등의 구조적 문제는 간과한 채 하나의 사건의 대립구조에만 집중되어 있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준법교육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스포츠인권교육은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준법교육의 형태에 한정된 채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선수나 지도자가 실제 현장 속에서 인권을 적용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빠져있다. 이처럼 법실증주의 시각의 편협한 관점에서 다루어짐에 따라 선수 ‘개인’의 법적 권리만을 강조하게 되고,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문화를 조성하게 된다. 또한, 대규모 강의 형태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방식 그리고 단순 반복 강의의 형태 등은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난다(구정화, 2017; 손진희, 노자은, 2018).

세 번째는 지도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 조성이다. 최근 선수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선수들의 인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반면 지도자는 선수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스포츠지도자의 인권도 보장되고 보호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권리와 선수의 인권이 마치 대립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스포츠인권교육에서는 이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박성주, 2022).

네 번째, 엘리트체육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에서의 스포츠를 통한 인권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스포츠 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등 세 가지에 그친다. 10년 후인 2022년이 돼서야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 보장과 평등 실현 지침을 추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 (2) 실천적 쟁점

인권교육의 실천적 쟁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한체육회와 스포츠윤리센터와 같은 체육단체와 정부기관에서 스포츠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는 있지만, 현행 스포츠인권교육은 스포츠인권에 ‘대한’ 교육, 즉 인지적 영역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선수나 지도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개발을 통해 인권감수성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스포츠인권을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된다(Struthers, 2015). 더 나아가 선수나 지도자가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인권존중적인 교육 환경을 통해 스포츠인권을 ‘통한(through)’ 교육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된다(조성현, 정영선, 2021).

최근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인권 전문가들이 학교 운동부를 방문하여 선수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며, 학생·지도자·학부모 대상에 따라 교육하는 내용도 상이하게 진행된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 56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운동부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기존 강의 중심 교육에서 탈피해 토론 및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논의되었던 점들에 비해 보완되어 진행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ihop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847>

그림 14. 광주시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운동부 스포츠 인권교육’을 듣고 있는 학생선수들의 모습

또한, 엘리트 선수들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의 측면에서 스포츠를 통한 인권교육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제시해볼 수 있다. 인권 함양을 위한 스포츠교육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정용철 외, 2016), 첫째, 스포츠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도록 하기이다. 아이들이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교육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으려면 우선 스포츠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스포츠 활동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신체활동을 선택하고, 용구나 기구의 변형을 통해 쉽고 즐거운 활동을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활동의 주체가 되어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권한이나 책무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고, 성취의 즐거움을 제공하며 인권에 대해 깨닫게 될 수 있다.

둘째, 스포츠 활동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기술 길러주기이다.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교육의 두 번째 단계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그 속에 담긴 정신과 삶의 교훈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도자들은 스포츠교육 내에서 인격교육을 핵심적인 목적으로 지향하며 가르쳐야 하고, 경쟁 중심이 아닌 읽기, 보기, 쓰기 활동이 어우러진 방향의 수업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된다.

## 라. HRE에서의 평화교육

Harris & Morrison(2013)의 평화교육 5가지 유형 중 인권교육이 포함되어있는 것처럼 스포츠에서도 인권교육은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에서의 인권교육은 스포츠 내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재 학생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지도자들의 인권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등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권을 스포츠에서 교육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스포츠 내부의 평화를 위한 인권교육은 평화로운 세계 구축과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교육은 Tolstoy의 비폭력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스포츠 내부의 인권교육은 선수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비폭력주의에 기반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평화로운 세계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기에 인간중심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스포츠 내부에서의 인권교육은 평화의 문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화의 문화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평화를 추구하기도 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사회를 평화롭게 하고자 하는 문화적 움직임이다. 즉, 인권교육은 스포츠선수 혹은 이해관계자의 정체성 및 인식의 변화를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평화의 문화를 추구하는 초석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제4장



## 스포츠 평화교육 실태조사



## IV. 스포츠 평화교육 실태조사

### 1. 해외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

스포츠 평화교육 실태조사를 위해 PeacePlayers International, Soccer Without Borders, Right to Play, 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 Football 4 Peace, Peace and Sport, Kick4Life, Open Fun Football Schools, Laureus Sport for good, Generations for Peace, Peace First 등 총 11개의 프로그램 분석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스포츠 평화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모형을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학술영역의 맥락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학술문헌에서 주로 우수한 사례로 다루어진 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각 프로그램의 주요 가치, 목표, 특징, 효과 및 함의 그리고 한계 및 제언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 가. PeacePlayers International

##### (1) 개요

Brendan과 Sean Tuohy 형제에 의해 2001년에 설립된 PeacePlayers International(이하 PPI)은 설립 초기에 남아프리카에서 활동을 시작한 후 2002년 북아일랜드로 확장되었고, 2005년에는 이스라엘 서부 그리고 2006년에는 키프로스로 확장되었다. 초기에는 평화구축보다 일반적인 청소년 발달에 중점을 두었지만, 2009년부터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화의 중요성을 포함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다. PPI의 목표는 창립 원칙인 "함께 놀이하는 어린이들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에서 드러난다. PPI는 분쟁 지역 청소년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불신과 적대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보다 협력과 상호존중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선호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PPI는 농구 게임을 통해 공동체 통합, 평등 및 평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PI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의 3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첫째, 개인 간 변화의 필요성이다. 서로 다른 집단 간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거나, 공동 목표가 존재한 채로 이루어지면 이들 사이의 부정적인 태도는 완화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변화의 필요성이다. 첫 번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개인 간 변화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은 개개인들이 기술과 자원을 갖추면, 효과적인 변화 주체 즉, 평화 옹호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개개인과 기관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면, 더욱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제시된다. 셋째, 세계적 변화의 필요성이다. 지역을 넘어서 세계 각지의 주요 인물과 기관들과, 평화 옹호자인 청년 리더들 간의 연결 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터키 사회심리학자인 Muzaffer Sherif은 그룹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협력에 대한 실험을

통해 다양한 사회에서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고, 이는 PPI 프로그램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모든 선수가 공격과 수비 모두에 협력하고 소수의 개인들이 동시에 긴밀하게 협력하는 팀 스포츠와 같은 경우, 참여자들이 협력할 수 있고 기존의 충돌을 줄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John Paul Lederach의 평화구축에 대한 개념에서도 ‘관계의 회복과 재건’을 강조하며, 갈등 중인 사람들이 자신을 적과 포함한 다른 이들과의 관계 네트워크 속에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한 것처럼(Lederach & Hampson, 1998), PPI는 농구를 통해 평화구축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2) 프로그램 내용

농구는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할 수 있는 10~12명의 개인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계 형성의 장을 마련한다.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함에 따라 가족 및 친구들의 참여까지 확장될 수 있다. 특히, 언어, 종교, 생각 등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함께 응원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응원석 혹은 벤치와 같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도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PeacePlayersInternational. <https://peaceplayers.org/>

그림 15. LA에서 진행되는 PPI 활동 사진

본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와 같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북아일랜드는 초등학교 내에서 PPI 프로그램을 활동하기도 하고, 중동은 PPI 활동이 주로 교과 외 활동으로 방과후나 주말에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10세~14세이며, 추후에 설명되는 ‘리더십 발달 프로그램(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에는 18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한다.

둘째,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서 상호작용을 시작할 때 ‘단일 정체성’의 맥락에서 시작한다. 자신과 동일한 인종, 집단의 청소년들끼리 한 그룹으로 활동한다는 것이다(ex. 팔레스타인인은 팔레스타인인과 한 그룹, 이스라엘인은 이스라엘인끼리 한 그룹으로 이루어짐). 이러한 안전한 환경 그리고 동일한 코치의 지도 하에 서로를 알아가며 그들과 ‘다른’ 팀의 만남을 진행하기 전에 그들끼리의 상호작용을 진행한다.

셋째, ‘단일 정체성’ 맥락에서의 일정 활동 기간 이후, 다른 인종, 집단의 그룹인 A그룹과

B그룹은 결합을 위해 만나게 된다. 농구 연습 및 게임을 할 때 두 팀을 통합하여 연습하면서 집단 간 유대 관계 형성을 촉진한다. A팀과 B팀의 구성원들이 섞여서 또 다른 팀을 구성하여 농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종교적 차이나 인종과는 관계없이 상호 간의 개인적 관계 및 본질적인 인간성을 인식하는 데 중점을 두는 교육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넷째, PPI는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들에게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0대 참여자들은 ‘리더십 발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들은 추가적인 훈련을 받고·PPI의 코치들과 협력하고·지역사회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며, 그들보다 어린 참여자들에게 롤모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출처 : PeacePlayersInternational. <https://peaceplayers.org/>

그림 16. 키프로스의 썸머캠프 활동 사진

### (3) 효과 및 함의

PPI 프로그램의 효과 및 함의는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지역 리더십이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10년 후에도, 혹은 그 이후에도 자녀 혹은 가족과 함께 그 지역에 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지역 직원들과 PPI의 작업을 논의할 때, 지역 청소년의 프로그램 접근성과 관련하여 문지기(gatekeepers)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한다. 문지기는 교사, 교장, 종교 지도자 또는 동네나 마을에서 신뢰를 받는 중요 인물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을 통해 청소년을 지도하고자 하며 이는 기초적인 융합을 시작점으로 삼기에 좋다는 의견들이 제시된다.

두 번째, 스포츠와 교육적 내용의 균형이다. PPI는 참가자를 모집하고 유지하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측면을 제외하여서는 안되며, 동시에 어린이들이 농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교육적 측면도 포함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농구에 대한 기술 향상과 함께 재미와 개인적 만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스포츠와 평화교육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중동의 PPI에서는 2009년 Arbinger Institute and Laureus Sport for Good Foundation과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는데, 이 교육과정은 Yale University의 Terry Warner가 개발한 "평화의 해부학(The Anatomy of Peace)"의 교훈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농구 활동을 제시하였다. 원래 PPI의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단계별 과정(step-by-step process)으로 교육과정을 실시했었는데,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3일간의 워크숍을 진행한 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코치가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이 간단한 활동들을 체험해볼 수 있는 3일간의 워크숍에 참여한 후에, 정규 교육과정에서 코치들은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기술 교육 및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 특히 스포츠를 활용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Tuohey & Cognato, 2011).

세 번째, 지속적 참여와 장기적인 통합이다. PPI는 참여자들의 관계 속에 PPI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friendship potential(우정 가능성)’을 강조한다. 청소년들은 동일한 인종의 집단과 함께 활동하며 교류하게 되고, 지속적인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PPI가 코트 외부에서도 우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는데,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주된 요인이었다. 예를 들어, 키프로스에서 열린 PPI 대회에 관한 최근의 보고에서, 언어 장벽 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리 또한 장벽으로 존재하는 키프로스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MSN(포털사이트)과 Facebook”을 통해 다른 지역 및 나라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교류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네 번째, 리더십 개발의 효율성이다. PPI는 참여자들이 향후 코치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세스는 PPI의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되며, 모든 참여자들은 종목에 대한 기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기본 기술까지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인 SDP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스포츠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스포츠가 공동체를 결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PPI 또한 참여자들이 10대가 되면 농구 코치 및 청소년 멘토로서 훈련하게 되는 ‘리더십 개발’에 중점을 둔 훈련을 진행하며 향후 지도자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녀 및 여성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도 하며 리더십 및 권한을 지닐 수 있도록 스포츠를 통한 개별적 가르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rt, 2022).

#### (4) 한계 및 제언

PPI 프로그램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의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장기간 모니터링 및 평가의 어려움이다. PPI는 지역 비전과 가치를 정립하며 장기적인 전략을 명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해 동안의 참여자 데이터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일관성 있고 유연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다. 장기 목표를 달성하려는 프로그램 제공자들에게는, 짧은 기간 동안 약속된 자금으로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제시된다. 이는 첫 번째 한계점과 비슷한 맥락일 수 있다. 일관된 자금을 확보하더라도 후원자들이 이를 특정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전문화되고 개발되는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정치적 변화에 대처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다. PPI는 참여자의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 분쟁 지역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레바논 전쟁 기간에는 PPI 여름캠프를 취소하기도 한 바 있다. 이러한 전쟁의 상황들은 PPI의 활동에 제한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Soccer Without Borders

### (1) 개요

Soccer Without Borders(이하 SWB)는 스포츠를 수단으로 활용하여 청소년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개발기구이다. SWB는 모든 청소년들이 내재된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스포츠 경험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들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며 스포츠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문제와 지역사회 측면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이 활동 과정에서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구축, 취업 및 개인 성장의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SWB는 ‘축구’를 대중적인 스포츠로 보았으며, 다양한 배경 및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적인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종목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축구 놀이와 교육뿐만 아니라 팀 구축, 문화 교류, 멘토 및 지원 네트워크, 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 SWB가 설립될 때 "스포츠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넬슨 만델라의 선언과 SDP 개념의 영향을 받았다(Soccer Without Borders). 이에 SWB는 SDP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기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Soccer Without Borders), 현재 미국의 네 개 도시(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메릴랜드주 벨티모어, 콜로라도주 그리일리) 뿐만 아니라 우간다와 니카라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따르며 특정 지역의 특징에 맞게 맞춰져 있다.

### (2) 프로그램 내용

SWB 프로그램의 접근 방식은 ‘의미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개개인이 자신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이 유대감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곳에서 청소년들은 그들의 내재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SWB는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이하 SEL) 혹은 학업, 사회, 정서학습을 위한 협력(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이하 CASEL) 프레임워크로 알려진 개념을 청소년 개발 프레임워크로 사용한다(Shek et al., 2019). SEL은 모든 청소년과 성인이 건강한 정체성을 발전시키고·감정을 관리하고·개인 및 집단 목표를 달성하고·다른 이에 대한 공감을 느끼고 표현하고·책임감 있고 배려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자기인식, 자아관리, 관계 기술, 책임 있는 결정, 그리고 사회적 인식 등의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다. 위의 요소들은 청소년의 발전에 중요한 기술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SWB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Soccer Without Borders). 첫째, 의미 있는 관계 형성과의 연관성이다. 12개월 이상의 멘토링 관계는 학업 성과와

정신적·사회적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SWB는 팀과 함께 1년 이상을 약속하는 감독을 우선시하고, 현재 감독의 평균 임기는 48개월 정도의 장기적인 기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참여자들의 장기적인 참여이다. 중고등학교 시기는 청소년 발전에 중요한 시기인데, SWB 프로그램은 이러한 시기 동안 일관된 존재가 되도록 한다. 참여자 중 1/4는 SWB 프로그램에 3년 이상 참여해왔다. 셋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구조 및 형태이다. SWB는 1년에 36주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즌 중 참여자들은 주어진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및 코치와의 비공식적인 상호작용 시간이 존재한다. 넷째,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SWB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며, 관련된 정책 및 교육을 통해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문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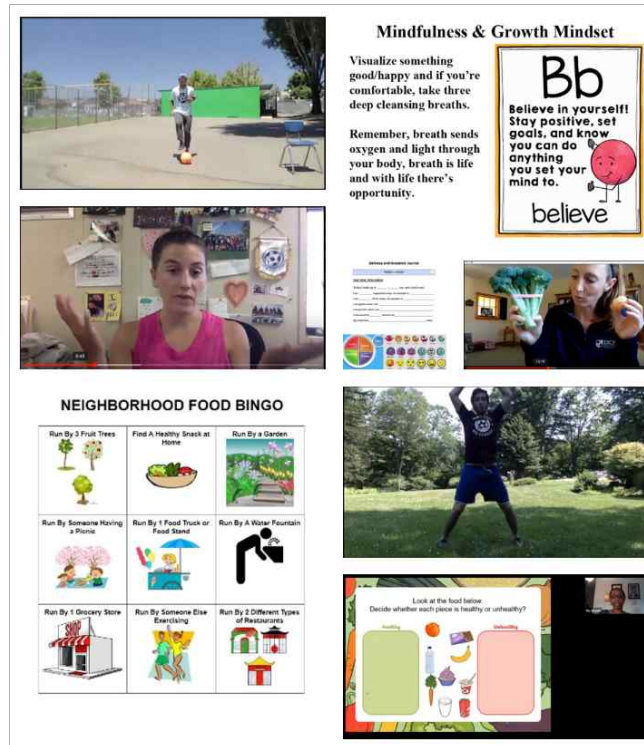


출처: Soccer Without Borders. <https://www.soccerwithoutborders.org/>

그림 17. SWB 프로그램 소개 사진

또한, SWB는 2020년 7월, 웰니스, 영어 학습, 학업 기회 제공, 사회적 연결망 형성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Virtual Summer Academy(이하 VSA)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이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언어적 고립과 학습 제약에 대응하고, 여름방학 동안 이민 청소년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사회적 고립, 신체 활동 감소, 학습 지원 서비스의 감소 등)에 대응하고자 설계되었다. VSA는 ‘영어 언어능력 발달’, ‘웰니스’, ‘신체적 건강’, ‘사회적 관계’의 네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매주 8시간의 영어 학습, 3시간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SWB 코치와의 1:1 면담, 친구와의 사회적 교류 활동 등을 제공하였다.





출처: Soccer Without Borders.

<https://www.soccerwithoutborders.org/>

그림 18. 미국 SWB에서 진행한 Virtual Summer Academy(VSA) 프로그램 사진

### (3) 효과 및 함의

SWB 프로그램의 효과 및 함의는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통합의 공간(home of integration)이다. 21세기 사회 문제 중 하나인 난민 청소년들은 갈등 및 분쟁 지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식처 및 안전한 환경을 찾아 이동한다. 이에 SWB는 ‘축구’가 하나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다고 제시한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축구라는 종목을 활용하여 경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난민 청소년들에게 소속감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SWB는 65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46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이들은 축구를 배울 뿐만 아니라 우정을 쌓고, 언어 및 학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참여하고, 지역 자원과 연결되며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SWB 프로그램 참여자의 한 부모는 다음과 같이 인터뷰하였다. “SWB 프로그램에서 나는 어린이, 이민자, 그리고 난민을 돕는 통합의 공간을 볼 수 있다. SWB는 그들을 돕고, 영어(공통된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주며, 설계된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이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있다.”(Soccer Without Borders)

두 번째, 청소년의 사회적 자기 효능감 향상 및 사회자본의 축적 가능성이다. SWB는 축구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라고 보고 있으며, 축구의 힘을 통해 개인,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축구를 긍정적인 변화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개인적 성공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SWB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주체성을 발전시키고, 소속감을 형성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에, 이를 통해 사회자본을 쌓고 긍정적인 정체성 발전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SWB 프로그램과 관련한 한 여성 참여자의 인터뷰에서는, SWB에서 진행되는 GG(Girls Generation) 팀을 통해 재미있는 경기를 경험하고,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에 좋은 롤모델이 된 것 같았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진술했다. 또한, Moran(2014)의 연구에서는 난민과 우간다 청소년을 통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참여자들이 자기결정력을 통한 관계 구축에 대한 가치를 얻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참여자들의 학업 성취도이다. SWB는 아이들의 긍정적 성장을 위하여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개인의 학업 능력 발달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SWB는 아이들이 사회적·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VSA와 같은 학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SWB의 지속적·통합적인 지원은 참여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켜 사회적 교류망을 형성하고 교우 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4) 한계 및 제언

SWB 프로그램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의 3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 개인 내면의 진입장벽으로 인한 참여의 제약이다. SWB는 "Get Them To The Field"라는 구호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구하지만, 각 청소년은 자신만의 환경과 제약적 상황에 놓여있어 이 구호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민 청소년들은 언어 장벽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과 후 일을 하거나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여성 이민자들의 경우 가사를 책임지고 있어 '스포츠는 나에게 맞지 않다'라는 편견을 내면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주관자와 참여자 간의 신뢰를 형성해야 하지만, 이러한 관계 형성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참여자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첫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구조적 장벽 해결을 위한 시간의 필요성이다. SWB가 니카라과에서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 10만 명이 넘는 인구의 도시였지만 소녀들을 위한 스포츠 기회는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지역사회 소녀들을 위한 축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 연습으로 시작하였다가, 점점 횟수를 늘려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거의 매주 6일 이상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한 모든 단계에서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어려움들(스포츠 장비, 지역 여성 코치의 부족, 운동장 접근성 부족, 개개인의 가정에 대한 책임, 운동장에서 서성이는 소년들 및 여학생들을 쫓아내는 남자들 등)이 있었다. 이러한 장벽들은 연속적으로 나타났고, 모든 장벽들이 해소되는데는 약 5년 이상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었다.

세 번째, 이해관계자들의 진정성 있는 협력의 어려움이다. SWB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SWB 참여자들을 인식하는 방식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진정성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정으로 환영하고, 포용하고, 소속감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다. Right to Play

### (1) 개요

Right to Play(이하 RTP)는 선수 중심의 인도주의 비정부기구(NGO)로서 스포츠 개발을 통해 불우한 환경의 어린이와 그들의 지역사회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창립자인 노르웨이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Johann Olav Koss는 전쟁지역의 어린이들이 버려진 탱크 사이에서 셔츠로 만든 공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놀이를 통해 발휘되는 회복력을 발견하였다. 이에 어린이의 놀이 권리 강화를 통한 건강한 신체 및 정신적 발전과 유대감 있는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곧 스포츠 개발이라는 것을 깨달았고(Clappison, 2004), Right to Play를 설립한 계기가 된 것이다(Right to Play).

RTP는 난민, 전쟁 영향을 받은 어린이, HIV/AIDS로 인해 고아가 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여성과 장애인의 권리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벨리즈, 베냉,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나, 기니, 이스라엘, 케냐, 말리, 모잠비크, 네팔,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르완다, 시에라리온, 수단, 탄자니아, 태국, 우간다, 잠비아 등의 나라에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기관 및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RTP는 캐나다 토론토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 7개 국가에 국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국가 사무소에서는 전략, 자금 조달, 협력, 국제 이사회 및 국가 이사회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러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UNHCR, UNICEF,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The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등과의 협정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Sports Development and Peace International Working Group(이하 SDP IWG)와의 협력을 통해 스포츠 개발과 평화를 촉진하고 있다.

### (2) 프로그램 내용

RTP에는 ‘Sport Works’와 ‘Sport Health’라는 두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먼저, Sport Works는 주로 난민촌에서 이루어지며 어린이 개발과 지역 사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Sport Health는 백신 홍보와 HIV/AIDS, 말라리아, 결핵 등의 질병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주로 국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들이 하는 활동으로는 경제적으로 힘든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지역 코치들을 대상으로 RTP를 가르치는 것이다.

전반적인 RTP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지역 코치들은 일정 기간동안 수업을 수강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과 함께 연습한 후에 동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실전 연습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 RTP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해당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지역사회에서 향후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RTP 활동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Lange & Haugsjå, 2006).

### (3) 효과 및 함의

RTP 프로그램의 효과 및 함의는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SportWorks 프로그램의 목표 및 활동에 관한 부분이다. 본 프로그램은 두 가지의 목표가 존재하는데, 1) 스포츠 및 놀이 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회복력, 성인과의 의미 있는 연결, 안전의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감, 팀워크, 의사소통, 포용, 규율, 존중, 페어플레이 등의 중요한 가치와 생활 기술을 가르친다(Right to Play). 2) 지역사회 구조를 구축하고 사회의 소유권을 강화하여 개인 및 지역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지역 성인들을 위한 코칭, 리더십 교육, 프로젝트 관리 교육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참여와 헌신을 강조하여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 협회, 리그시설, 장비 생산을 포함한 스포츠 인프라의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하고 자신이 커뮤니티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Clappison, 2004).

둘째, Sport Health 프로그램의 목표 및 활동에 관한 부분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Sport Works와 동일한 맥락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스포츠의 결합력을 활용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건강 교육을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촉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방접종, HIV/AIDS, 결핵 및 말라리아 예방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port Health 프로그램은 스포츠 및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중요한 국가적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social mobilization 캠페인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본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은 건강, 발전, 스포츠의 세 주제 간의 연결이다. 이 연결성을 고려해야만 백신, 영양, 위생, 말라리아, HIV/AIDS, 모성 등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여기며 이 또한 프로그램을 통한 함의라고 볼 수 있다(Clappison, 2004).

셋째, RTP는 자원봉사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RTP 본부에서 고용한 자원봉사자 중 95%가 성공적이었으며, 이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현지의 참가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교육을 명확하게 실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이 봉사를 하는 국가에 맞는 문화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RTP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Darnell, 2007).

### (4) 한계 및 제언

RTP 프로그램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의 3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측정의 어려움이다. 문화 및 스포츠 분야에서 개발 협력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UD, 2005). RTP는 지속적으로 후원사로부터 결과를 보고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를 따르는 것은 '관료주의' 행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결과를 제시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며,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는 조직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점이 제시될 수 있다.

둘째, 그룹 및 개인의 이탈 문제이다. RTP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존재하지만, 프로그램이 중단된 이후에 이들 중 상당수는 정기적인 스포츠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ight to Play). Dar es Salaam의 경우, 6개 학교 중 3개가 프로그램을 중단하였으며, RTP가 협력한 몇몇 기관들도 협력을 중단했다. 이는 RTP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 중 절반 정도가 배운 내용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계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셋째, 교육자의 지식 부족이다. Pius Msekwa의 한 교사는 "우리가 교실에서 HIV/AIDS에 대해 가르치면 아이들은 잠들어버리지만, 스포츠를 통해서도 활동적으로 참여하며 더 빨리 이해한다"라고 제시했다. 루구푸 난민촌의 코치들에게 어떻게 HIV/AIDS를 가르치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게임 및 수수께끼를 통해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제점은 HIV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RTP 교육자의 지식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넷째, 실질적인 협력의 부재이다. RTP는 2003년 6월에 UNHCR과의 협정(MoU)을 맺었다. 이 협정에 따르면 UNHCR은 RTP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에게 운송 및 장비를 제공한다. MoU에는 각 위치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RTP와 UNHCR 간의 협력은 나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RTP가 기증받은 UNHCR 차량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UNHCR 현지 사무소는 자원의 부족으로 제공하지 못하기도 한다. 사례로 탄자니아의 경우 현재 RTP 국가 사무소와 Dar es Salaam에 있는 UNICEF 사무소 간의 협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한계점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라. 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

### (1) 개요

2000년 7월에 설립된 국제올림픽휴전센터(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이하 IOTC)는 비영리 단체로, 스포츠를 통한 평화 실현과 올림픽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1998년 그리스 정부가 IOC 회원국에게 올림픽 휴전 제도를 부활시키는 제안을 하면서 IOTC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999년 IOC가 그리스와의 협력을 통해 IOTC 설립을 공식 발표하여 올림픽 휴전 제도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올림픽의 평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되며, 현대에 와서는 올림픽 휴전을 통한 평화구축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IOTC는 올림픽 가치를 증진하고, 평화, 우정, 국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올림픽 대회 기간 동안 모든 적대 행위 중단을 통해 평화 실천에 기여하는 단체로 볼 수 있다.

우리가 16일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평화를 누릴 수 있다.

- IOTC 슬로건 -

IOTC는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휴전 전통을 계승하여 스포츠와 문화·올림픽 가치를 통해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 및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올림픽 휴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회의,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있다. 특히, 올림픽 기간 및 그 이후 모든 적대 행위의 종단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IOTC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평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Imagine Peace Youth Camp, Peacejam 등과 같은 스포츠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인생의 가치관 형성과 평화 감수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2) 프로그램 내용

### (가) Imagine Peace Youth Camp

Imagine Peace Youth Camp(이하 IPYC)는 IOTC와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Save the Dream, New York College, 그리고 Hellenic Olympic Champions Association의 협조를 통해 2014년에 주최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세계 각국에서 온 18세에서 2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및 분쟁 지역 출신의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다양성 존중과 관계 속에서의 갈등,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같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참가자들을 올림픽 휴전 홍보대사로 양성하여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올림픽 가치를 홍보하며 지역사회의 상호 이해 증진과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IPYC 캠프는 참가자들이 올림픽 휴전 홍보대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종목 중 하나인 Pankration 체험, 워크숍, 게임, 팀워크 활동, 올림픽 챔피언 및 메달리스트와의 소중한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올림픽 가치, 올림픽 휴전, 평화와 다양성 존중에 대한 가치를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021년 2월에 개최된 제4회 '상상평화캠프(Imagine Peace Youth Camp)'는 IOTC와 2018 평창 기념재단이 공동 주관하여 진행한 행사이다. 이 행사는 IOTC와 평창 기념재단이 2020년에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이행하는 첫 공식 행사로, '평창 국제올림픽 휴전센터' 설립과 추진을 위해 개최되었다. 상상평화캠프는 고대올림픽의 평화정신을 계승하고 올림픽 휴전 이념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휴트 챌린지', '퀴즈 챌린지', '평화 사진 챌린지', '온라인 K-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평화 가치를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Peacejam

IOTC가 운영하는 PeaceJam 프로그램은 스포츠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부모나 가족의 동반 없이 혼자 이동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비동반 아동 난민(Unaccompanied child refugees)의 스포츠 참여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IOTC는 PeaceJam Greece, The HOME Project, Panellinios Sports Club과 같은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 난민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고 그리스 올림픽 챔피언들의 지도를 받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비동반 아동 난민들에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 <https://olympictuce.org/en/homepage/>

그림 19. Peacejam 프로그램 사진

## (3) 효과 및 함의

IPYC 프로그램의 효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구성원은 참가자, 진행자, 자원봉사자, 올림픽 챔피언이며, 이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하면서 각각의 다양성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성비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참가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속 집단을 구성하기에 서로 다른 문화적, 정치적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프로그램은 워크숍과 스포츠 프로그램, 그리고 평화 및 올림픽 휴전과 관련된 토론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평화, 인종차별, 문화적 다양성 등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IPYC는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참가자들이 올림픽 휴전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국제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국가와의 연계를 통해 올림픽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교류는 참가자들이 지역사회에 국제적인 노력을 도입하고 사회적 책임과 협력의 중요성을 심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궁극적으로 IPYC의

참가자들은 평화로운 세계와 평화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게 되며, 이는 개인적 역량의 향상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4) 한계 및 제언

IOTC 프로그램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지역사회와 참가자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직면한 난점과 제약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IOTC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개입 과정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지원보다는 올림픽 휴전, 올림픽 가치, 그리고 올림픽을 통한 평화 가치의 확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순 체험과 일회성 프로그램 진행에 그치는 경우도 존재하기에 긍정적 변화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개입 과정은 기관에서 추구하는 가치의 확산과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에 더 많은 중점을 둔 접근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한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 <https://olympictruce.org/en/homepage/>

그림 20. Imagine Peace youth camp 홍보 포스터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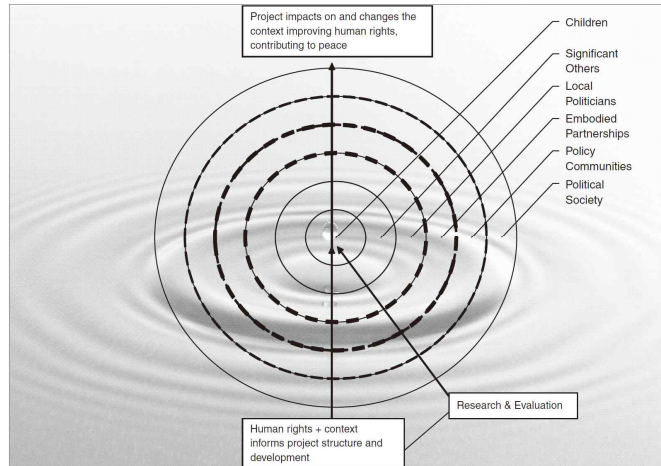
## 마. Football 4 Peace

### (1) 개요

Football 4 Peace(이하 F4P)는 2001년 이스라엘에서 설립되었으며, World Sport Peace Project로 출범하였다. Baptist minister인 Geoffrey Whitefield와 런던 마라토너인 David Bedford가 함께 창립하였으며(Football 4 Peace), 브라이튼 대학의 프로젝트 책임연구원과 6명의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멤버가 이발린에서 아랍인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코칭 캠프를 실시하였던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dgen, 2006). 초기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경계 내에 거주하는 아랍, 유대인 등의 청소년이 함께하며,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Spacey & Sugden, 2016). 이후, F4P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감비아, 독일, 아일랜드, 요르단, 남아프리카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F4P의 목적은 올바른 시민의식 및 가치관 형성, 지역사회 경계 너머의 사회적 접촉 기회 제공, 상호 이해 증진, 지역사회 구성원의 평화로운 공존 도모, 축구 실력 및 기술 향상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국제평화축구코리아). 청소년을 위한 프로젝트 전달에서 강조하는 것은 코치, 교사,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지사에게 가치 기반 방법론과 개발 및 평화 활동을 위한 스포츠의 모범 사례를 전파하여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Football 4 Peace). F4P의 핵심 가치는 중립(Neutrality), 포용(Inclusion), 존중(Respect), 신뢰(Trust), 책임감(Responsibility), 라이프 스킬(Life skills)의 향상으로 볼 수 있으며, 라이프 스킬에는 팀워크,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성찰, 자기 존중감과 자신감이 포함된다.

F4P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스포츠는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스포츠 참여가 아니라 스포츠에 어떻게 참여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배우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특히, 축구는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넘어 교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구이며 청소년이 이러한 축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협력 및 관계 형성이 가능하고, 사회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팀 스포츠에 참여하면 리더십, 의사소통 및 개인 발달에 중요한 라이프 스킬을 습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스포츠 참여 및 가치 기반 코칭은 잔물결 효과 모델(Ripple Effect Model)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지역사회 및 사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 코치를 넘어 NGO, 스포츠 조직, 정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F4P의 가치를 지역사회, 정부 및 비정부 조직과 공유하게 된다. 즉, 생활체육 수준에서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는 사회 변화를 향해가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Sugden, 2010).



출처: Sugden, J. (2010). Critical left-realism and sport interventions in divided societies.

그림 21. 잔물결 효과 모델

## (2) 프로그램 내용

F4P는 공유되는 가치 기반 코칭 방법론을 활용하기 위해 F4P Methodology를 개발하여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경기장 외 활동(Off-pitch activities), 경기장 내 활동(On-pitch activities)로 제시되는데, 경기장 외 활동은 일상생활에서의 기술 발달 및 시민의식 증진을 꾀하는 활동이며, 경기장 내 활동은 축구를 매개로 한 스포츠 관련 지식 및 기술 획득과 시민의식 증진을 꾀하는 활동이다(Football for Peace).

경기장 외 활동과 경기장 내 활동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가치 이해와 지속적인 활용, ② 가치의 예시 제시와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서 가치 활용, ③ 스포츠 및 활동의 가치와 예시 제시, ④ 목표 설정, ⑤ 일상생활의 가치관을 활동에 활용, ⑥ 참가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 ⑦ 참가자들끼리 어우러질 수 있도록 팀 배치, ⑧ 참가자들의 소통 장려, ⑨ 또래 교수법 활용. 뿐만 아니라, 경기장 내 활동에서는 게임의 변형, 모든 사람에게 참여 기회 제공, 스포츠맨십 등의 가치가 강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진행되는 F4P는 2001년 시작되어 2011년, 14개의 Cross Community Sports Partnerships(이하 CCSP)를 촉진하여 1,50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4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EU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는 Playing 4 Peace가 F4P 이니셔티브 내에서 자체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출처: F4P. <https://www.football4peace.org.uk/>

그림 22. F4P 이스라엘의 활동 사진

### (3) 효과 및 함의

F4P 프로그램의 효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먼저, F4P와 같은 SDP 프로그램은 분쟁국가 및 지역에서 장기적인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것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증명되었다(Spacey & Sugden, 2016). 예를 들어, F4P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 간 평화의 선행 조건 또는 결과로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스포츠는 청소년을 위한 끌림의 수단이며, 지역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Spacey & Sugden, 2016).

F4P는 다양한 국가에서 8,000명 이상의 청소년과 600명 이상의 코치가 참여하는 것과 같이 상당한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다. 이스라엘 스포츠 협회(Israeli Sports Authority)는 다양한 지역에서 F4P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하나의 정책으로써 F4P 아동 보호 훈련 프로그램이 채택되었다. 또한, 아일랜드 축구 협회는 생활체육 측면에서 F4P의 가치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Football 4 Peace).

F4P는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평화 가치를 전파하며, 청소년과 코치가 다른 집단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에 노출되도록 하며, 이는 프로젝트를 넘어 일상까지 확대된다. 청소년의 태도 변화에 따라 함께 하는 코치와 자원봉사자들의 인식과 태도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청소년과 코치, 자원봉사자의 태도 변화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Spacey & Sugden, 2016).

아일랜드의 Special Educational Needs 학교에서는 북아일랜드와 남아일랜드 학생들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라이프 스킬 개발, 상호작용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교사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는 영국, 이스라엘, 요르단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Spacey & Sugden, 2016).

#### (4) 한계 및 제언

F4P 프로그램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Schulenkorf et al.(2014)는 F4P의 의도, 목적, 그리고 가치가 어우러지지 않음을 강조하며, 가치 중 일부의 실행 가능성과 합법성을 의심한다. 또한, 권력과 기회의 불균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F4P는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 과정에서 축구를 전국에 전달하려는 목적과 축구를 국제적으로 전파하려는 목적이 상충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의 상충은 권력과 기회의 불균형 즉, 정치적 측면이 스포츠와는 관련이 없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F4P의 철학과 함께 지역의 권한과 프로젝트 전달이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에 기반한 평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치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chulenkorf et al., 2014).

특히, Sugden(2006)은 F4P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표 8. F4P를 둘러싼 논의점

연번	주제
1	• 복잡한 정치적 및 사회적 문제는 일반적으로 간단한 해결책에 반응하지 않으며, 분절적인 방식으로 갈등 해결에 접근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결과에 달성하기 어렵다.
2	• 심각한 내전이 벌어지는 지역에서 문화의 평화 계획은 군사 및 정치적 합의가 선행될 때만 작동할 수 있다.
3	• 무정부/중립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부당한 맥락이 지속되고 강화될 때 유지하기 어렵다.
4	• 스포츠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비정상' 사회에서 스포츠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이스라엘 스포츠 당국 및 교육부와 같은 이스라엘 국가 기관과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5	• 프로젝트에서 영국의 중심 역할이 'F4P'가 또 다른 신제국주의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6	• 강한 보수적, 종교적 전통을 갖춘 국가에서 자유주의 계획을 동원하여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문화적 제국주의의 또 다른 형태이지는 않은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출처: Sugden, J. (2006). Teaching and playing sport for conflict resolution and co-existence in Israel.

## 바. Peace and Sport

### (1) 개요

근대 5종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Joël Bouzou에 의해 2007년에 설립된 Peace and Sport는 모나코에 본부를 둔 국제적 비정부 기구이다. Peace and Sport는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분쟁 해결, 포용 및 이해 추구를 위해 스포츠를 활용한다. 특히, Peace and Sport는 평화의 문화를 추구하며, 평화 운동과 평화 이론에서 문화적 전환이 두드러진 사례이다(Harvey, 2014). Peace and Sport의 목표는 스포츠를 통해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이로써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평화가 스포츠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Peace and Sport는 모나코 국왕인 알베르 2세의 후원을 받았던 적이 있는 만큼(Harvey, 2014), 국가 차원에서도 지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Peace and Sport는 현장의 의견에 중점을 두고 상향식 접근(Bottom-up)을 통해 지역사회 수준에서 마주하는 고난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상향식 접근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세계적인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스포츠를 통해 평화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여야 함을 주장한다(Peace and Sport, 2022a).

### (2) 프로그램 내용

Peace and Sport는 2007년 설립과 동시에 ‘Peace and Sport International Forum’을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Peace and Sport International Forum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스포츠는 평화를 위한 해답이다(Sport is an answer for Peace)”를 주제로 모나코에서 개최되었고, 2023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스포츠는 평화를 위한 해답이다”를 주제로 사우디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포럼은 사우디아라비아 올림픽/패럴림픽 위원회와 공동 개최하였으며,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와 유승민 IOC 위원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Peacemakers 프로젝트는 Mycoach와 협력하여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평화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스포츠 개념을 활용하여 평화를 교육하고, 프로그램 계획 및 도구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제공한다. 조직 목표와 마찬가지로 평화로운 세계 구축을 위해 세계적 홍보와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Peace and Sport).

Peacemakers 프로젝트에는 2021년 시작되어 1년 만에 4,670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프로젝트에 코치로 참여하는 성인은 조직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Peace and Sport methodology’를 이수하였다. 미식축구와 럭비 종목과 관련된 300개 이상의 운동이 포함된 세션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Peace and Sport by Mycoach)에서 접근 가능하다.

Peacemakers 프로젝트의 협업 조직은 10개가 존재하며,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는 조직이다. 콜롬비아, 홍콩, 인도, 모로코, 르완다, 토고 등 3개 대륙의 10개 조직과 협업 관계를 맺어 조직의 목적인 전 세계의 평화 구축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ALAFIA(평화)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부르키나파소와 토고에서 진행되며, 스포츠를 활용한 교육으로 청소년의 평화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12개 학교에서 1,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토고에서는 2개 학교에서 럭비 종목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1,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Peacemakers 프로젝트의 일환인 ALAFIA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평가지표를 Gony가 개발하는 과정에 있으며, 해당 내용이 Peace and Sport Forum 2022에서 발표되었지만(Peace and Sport, 2022b),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표 9. Peacemakers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한 현장 조직

연번	단체명	특징
1	TIBU AFRICA	• 농구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TERRES EN MELEES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를 통한 교육으로 평화 증진을 목적으로 함
3	NAANDI FOUNDATION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 창출을 목적으로 함
4	COP Colombia International	• 축구를 통해 콜롬비아 어린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5	APJS Mali	• 말리 청소년에게 교육과 자원을 제공하여 교육에 대한 접근성, 진로의 수준 향상, 그리고 지속가능한 평화 촉진을 목적으로 함
6	All Black Hong Kong	• 아마추어 축구 클럽으로, 아프리카 난민을 비롯한 소수 민족을 스포츠를 통해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7	AKWOS Rwanda	• 여성이 축구를 통해 스포츠 활동을 함으로써 고정관념에 맞설 수 있도록 함
8	Club RFI	• 난민들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직하고, 결속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9	Foundation Vénuste Niyongabo	• 교육, 건강, 농촌 개발 및 환경 보호, 인프라, 자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출처: Peace and Sport. <https://www.peace-sport.org/>

Live Together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프랑스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었으며, 50개 센터에서 1,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프랑스에서 진행된 Live Together (through Sport)는 ANRAS(National Association of Research and Solidarity Action)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직원 교육 및 모니터링, 코치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그리고 Peace and Sport의 도구 및 전문 지식 공유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미식축구, 승마, 농구 등

12개의 종목이 활용되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접근성 증대, 사회 통합, 교육적 가치 증진, 연령 간 협력 강화가 이루어졌다.



출처: Peace and Sport. <https://www.peace-sport.org/>

그림 23. Live Together through Sport(프랑스) 프로그램 활동 사진

2017년부터 요르단에서 진행된 난민을 대상으로 한 Live Together는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추구하며, 스포츠를 통한 사회 응집, 의논, 통합을 촉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Ubaidulloev, 2018). 그러나, 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Peace and Sport methodology와 함께 코치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부가적으로 #Whitcard와 I Move for Peace와 같은 프로젝트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Whitcard는 스포츠계의 옐로우카드, 레드카드와 같이 화이트카드 즉, 하얀색 종이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프로젝트로(Peace and Sport), 평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I Move for Peace는 Peace and Sport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 모금 서비스이다. 기금을 모금하여 Friendship Game을 진행하고, 선수들의 대회 출전과 생활체육으로서 스포츠 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 (3) 효과 및 함의

Peace and Sport 프로그램의 효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Peace and Sport는 스포츠의 가치를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 즉, 분쟁 지역 혹은 소외 지역에서 평화 구축 및 증진을 위한 도구로서 프로젝트를 기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개인들의 인식과 지식, 기술과 능력, 개인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Ubaidulloev, 2018). Peace and Sport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수준에서 스포츠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에 있다.

Peace and Sport는 세계적인 스포츠를 활용한 평화 증진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국가 차원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및 포럼 개최를 진행하고 있다. Bardocz-Bencsik & Doczi(2019)의 연구에 참여한 Peace and Sport의 직원은 'UN이 모든 평화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면, Peace and Sport의 존재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Peace and Sport는 현장과 가깝고, 현장의 의견을 국제기구에 전달할 수 있는 중간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 (4) 한계 및 제언

Peace and Sport 프로그램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eace and Sport의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평화를 목적으로 하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Peacemakers 프로젝트 또한 참여하는 국가 내 조직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Peace and Sport는 국가 차원이 아닌 세계적 차원에서 활동하기에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17년부터 요르단에서 진행된 Live Together는 축소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타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어 코치를 교육하는 등 프로그램의 방식을 전환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팬데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Peace and Sport는 스포츠를 통한 평화구축을 추구하는 국제기구 및 범정부적 기관과 현장 사이의 의견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사. Kick4Life

#### (1) 개요

후기 NGO 중에서 상대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Kick4Life(이하 K4L)는 2005년에 영국에서 설립되어 2007년부터는 레소토(Lesotho) 왕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해당 국가는 보츠와나, 스와질란드로 세계에서 가장 HIV 감염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추정치가 23%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UNAIDS).

K4L의 레소토에서의 활동은 축구 대회를 중심으로 한 HIV/AIDS에 관한 이벤트형 홍보 및 예방 캠페인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좋은 실천 사례로 인식되어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해 왔다. 현재는 레소토 왕국 수도인 마셀(Maseru)에 홈구장과 2개의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HIV/AIDS 홍보뿐만 아닌 스포츠 경기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지역에서 활성화된 조직으로 발전하였으며, 환경 변화에 적응한 뒤 로컬화에 향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Naofumi, 2014).

표 10. Kick4Life의 발전과정

연도	내용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말라위에서 250 마일을 횡단하여, AIDS 고아들을 위해 13,000 파운드 모금</li> </ul>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Southampton FC 경기장에서 단체 설립 발표</li> </u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레소토에서 활동 시작</li> <li>Grassrootsoccer 모델을 채택하고 Vodafone 재단과 협력한 Test Your Team 캠페인이 국내에서 최우수 HIV/AIDS 대책 프로젝트로 선정</li> <li>streetfootballworld 네트워크에 가입</li> </u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대표 감독 파비오 카펠로, 해리 영국 왕자가 각각 현지 방문</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니세프, GTZ(독일 개발협력 기구), 영국 프리미어 리그 등과 제휴를 맺음</li> <li>Score4Africa에서 Best Project for Health 상 수상</li> <li>당 해까지 25,000명 커리큘럼 수료, 8,000명 HIV 검사 완료</li> </u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IFA Football for Hope Centre의 호스트로 선정</li> <li>Beyond Sport Award 수상</li> </ul>

출처: Kick4Life, <http://www.kick4life.org/>

〈표 10〉은 K4L의 발전 과정을 연대순으로 나열한 표이다. 2000년대 중반은 스포츠와 개발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Naofumi, 2014). K4L은 밀레니엄 개발 목표 중에서도 중요시되었던 HIV/AIDS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민간 재단이나 정부 기관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영국 왕자나 감독 등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미디어에 기관을 노출시켰고, Beyond Sport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FIFA의 Football for Hope Centre (FHC)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즉, K4L은 개발 분야의 주요 과제에 직면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얻었으며, 체계적으로 스포츠와 개발 분야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 (2) 프로그램 내용

K4L의 활동 내용은 2007년 활동 시작 이후 형식적으로 많이 변해왔지만, HIV/AIDS 교육 및 검진·라이프 스킬 지원·축구 3가지를 기본 구성요소로 유지하고 있다(Naofumi, 2014).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Vodafone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Test Your Team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는 수천 명 규모의 참가자를 모은 축구대회에서 GRS의 교육과 HIV/AIDS 및 라이프 스킬 교육 세션, 그리고 HIV 검진을 병행하는 행사이다.

2009년부터는 주로 학교를 통해 레소토 전역에서 실시하고, 수도 마셀(Maseru)에서 매월 초에 전국에서 소년 팀을 초청하여 축구 토너먼트를 개최하였다. 2009년 말까지 총 25,000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8,000명이 HIV 검사를 받았다(Kick4Life, 2011). 같은 해에 FC Kick4Life(이하 FCK4L)라는 스태프와 이전 교육 참가자 등으로 구성된 축구팀이 레소토 국내 2부리그에 참가하였다.

2010년 후반 이후, 처음에는 Pact(국제 비영리 기구로, 40개 국가에서 활동하며 인간 개발에 대한 증거 기반 해결책을 제시하는 단체)와 협력하여 HIV/AIDS 및 라이프스킬 교육 커리큘럼을 수도 주변에 집중적으로 제공했다. 이후 높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제공을 진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에서는 축구 요소가 줄어들고, 토론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010년에는 FIFA가 street foot ball world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Football for Hope 운동의 핵심인 FIFA Football for Hope Centre(FHC)가 레소토에서의 운영 주체로 선정되었고, 이로 인해 K4L은 지속적인 시설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설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HIV 검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이벤트나 출장으로 제공되던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참가자에게 계속된 라이프 스킬 지원이 가능해졌다. 현재는 여러 지원 대상자(젊은 여성, 거리 아동, AIDS 고아 등)에 대해 가게 관리 지도, 가족 통합 지원, 취업 지원 등을 유동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더하여 Sony의 SiyaKona 프로젝트,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 방법을 배우는 코스, 드라마 및 신체 표현 코스 등과 같이 축구 이외의 활동도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FCK4L은 레소토 국내 리그에서 점차 강해져서 2014년에는 프리미어 리그로 승격했다. 남성 성인팀 외에도 여성 팀이 있으며, Southampton FC의 지원으로 Youth Academy를 설립하였다(Kick4Life).

2014년, K4L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두 가지 변화가 존재하였다. 먼저, K4L은 조직 이름을 Kick4Life FC(이하 K4LFC)로 변경하고 그들을 축구 클럽으로 정의했다. 자선 단체가 축구팀을 소유하는 대신, 축구 클럽이 개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 개발 측면이 다양화되면서 축구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축구를 통해 개발을 실현하는 단체로 그들의 정체성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HC 건물과 함께 있는 두 번째 건물에는 레스토랑, 호텔 및 회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자체적인 수입을 얻고 지역 스태프에 대한 직업 교육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2014년에 새롭게 갱신된 단체 웹사이트에 따르면 참가자의 출발점은 위에서 언급한 Youth Academy이다. Youth Academy에서는 축구뿐만 아니라 HIV/AIDS 교육 및 라이프 스킬 지원을 받은 청소년들이 팀이나 레스토랑 등에서 일자리를 얻고, 그 수익이 아카데미에 재투자되는 긍정적 순환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Kick4Life).

### (3) 효과 및 함의

K4L 프로그램의 효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K4L은 다른 단체가 개발한 기존의 도구를 차용하여 캠페인 형식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다양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HIV/AIDS 교육 및 검사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레소토 사회에 근거한 축구 클럽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는 "로컬화"의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다(Naofumi, 2014). 구체적으로는 레소토 출신의 스태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주로 고등 교육을



받은 일부 스태프를 포함하여 레소토 지역에서 영입되며, 특히 AIDS 고아나 어려운 배경을 가진 이들이 많다. 지역 출신의 스태프들은 HIV/AIDS 교육 커리큘럼 트레이닝을 받아 "코치"로 활동하고, 이후 "트레이너"로 선정되어 교육자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이와 같은 모습은 K4L이 "스포츠와 개발" 분야에서 독특하고 효과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축구와 개발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결합하면서도 지역에 적합한 평화를 추구하는 K4L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레소토에서의 활동을 통해 K4L은 다른 NGO들과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K4L은 스포츠를 통한 개발에 관하여 확장을 목표로 하는 다른 단체가 레소토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Kick4Life). 사례로 2010년 FIFA 월드컵 남아프리카 대회 전후에 Youth Development through Football이라는 단체가 있다(Kick4Life).

#### (4) 한계 및 제언

K4L 프로그램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의 2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K4L은 두 가지 부분에서 위험 가능성을 인지해야 하는데 첫째, 다양한 파트너로부터 재정 및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은 지원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파트너의 정책 전환에 민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협력이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파트너의 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규모의 확장은 단체의 목표나 목적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K4L이 K4LFC로서 조직의 정체성을 재정 의하고 동시에 사회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 의미보다는 스포츠라는 목적을 다시 명확히 하는 큰 목표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Naofumi, 2014). 즉, 축구 클럽으로서 경기장에서의 성과와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은 새로운 모델 형성에 중심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아. Open Fun Football Schools

### (1) 개요

1990년대의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및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간의 전쟁을 일으켰으며, 1990년대 말에는 코소보와 세르비아 간의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 상황은 코소보의 사회, 정치 및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15만 명 이상의 종업원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생님, 학생, 의사, 경찰관도 학교와 병원에서 해고되었다(Krasniqi, 2012; Mustafa & Krasniqi, 2018). 이는 스포츠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선수들의 해고는 물론 스포츠 기관, 시설 모두 정부에게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UEFA와 FIFA가 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도움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경기장으로 인해 취소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시기가 지나간 이후, 1998년 Open Fun Football Schools(이하 OFFS)는 Cross

Cultures Project Association(이하 CCPA)에 의해 인도주의적 행동 및 평화 구축의 도구로 설립되었다(CCPA, 2015). CCPA의 주요 활동은 OFFS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데, OFFS는 분쟁 상황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을 위한 5일간의 여름 축구 캠프 프로그램으로 "불안정한 지역에서 민주주의, 평화 및 사회 결속을 촉진하기 위해 게임과 교육적으로 즐거운 축구를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Levinsen 2009).

최초의 OFFS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2003 시즌이 끝날 때까지 해당 국가에서는 99개의 OFFS가 진행되었으며, 20,000명의 어린이와 거의 1,700명의 트레이너가 참여했다(Gasser & Levinsen, 2004). 이후 많은 인기로 인해 Balkan 지역의 Bosnia & Herzegovina (1998-), FYR Macedonia (2001-), Serbia (2001-), Croatia (2003-)까지 확장했다. 2005년 이후에는 CCPA와 스포츠팀 및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Kosovo의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OFFS의 목표는 어린이들이 서로 다른 민족 출신의 또래들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Krasniqi & Krasniqi, 2019). 본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공통된 관심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아래 문장을 통해 설명된다(The Cross Cultures Concept, 2015).

“The Open Fun Football Schools는 일상생활에서 서로 반대로 위치한 사람들을 모아 함께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범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코치, 부모 및 축구 애호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 (2) 프로그램 내용

OFFS는 여름방학에 개최되며, 5일간 기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Krasniqi & Krasniqi, 2019). 특히, 다양한 인종 또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어린이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Twin-City' 개념을 사용한다. 이는 OFFS를 통해 두 개의 '적대적인 집단'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서로 대결하는 대신 함께 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Open Fun Football Schools).

또한, 자원봉사자와 축구 트레이너들에 의해 수업이 진행되고, 분쟁 지역 출신의 자원봉사자와 축구 트레이너들에 의해 수업이 진행되고, 참여자들은 즐거운 축구의 경험을 제공받게 된다. 분쟁 지역 출신이지만, 즐거운 축구 개념을 교육받는다. 즐거운 축구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게임의 기쁨과 재미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Levinsen & Beacom 2009).

프로그램 자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만, CCPA는 부모와 지역 자원봉사자도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현지에서 시행되므로 현지 자원봉사자와 트레이너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며 부모들은 오셔서 자녀들이 함께 일하고 놀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일부 풋볼 스쿨에서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 개최되어 부모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Cross Cultures Project Association, n.d.). 각 필드는 16명 이상의 어린이들과 한 명의 어시스턴트가 배정된다. 축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게임 및 운동을 통해 OFFS는 자신감, 기술 및 팀워크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Gasser & Levinsen, 2004). 또한, OFFS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다음의 목표들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① 평화와 화해의 촉진,

② 분쟁 지역 청소년의 회복력 촉진, ③ 성평등 촉진, ④ 청소년 범죄 예방의 촉진으로 총 4가지 목표들로 나타난다(CCPA).

### (3) 효과 및 함의

OFFS 프로그램의 효과 및 함의는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민족 간 관계 개선이다. 캠프는 서로 다른 민족, 성별 및 종교의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로 인해 관련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람들(트레이너, 어린이, 부모) 간의 새롭고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고, 사회 및 심리적 장벽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OFFS는 서로 다른 민족 공동체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동시에 사회 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한 것이다. 예를 들어, OFFS 프로그램에서 어린이와 트레이너는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스포츠 요소를 활용한 "스포츠 언어(sports language)"의 사용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비폭력 평화 실현이다. Bloomfield et al.(2003)에 따르면 화해는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폭력적 공존의 단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폭력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신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기초이자 중요한 요소이다(CCPA). 끊어진 유대를 다시 연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OFFS 프로그램은 중립적인 만남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연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신뢰 구축의 단계이며, 팀 스포츠에서 특히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공감의 단계이며 이 단계에 도달하려면 공통된 정체성을 만들거나 사람들이 공통된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통된 정체성은 성별이나 연령부터 스포츠에 대한 공통된 관심까지 다양할 수 있는데, OFFS는 스포츠에 공통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CCPA).

세 번째 효과는 지역 스포츠 클럽 및 지역 학교와의 협력이다. CCPA는 지역 축구 클럽의 도움을 받아 OFFS를 조직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축구 클럽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축구 클럽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지역 트레이너는 사전 세미나에서 'fun football' 개념을 교육받는다(Cross Cultures Project Association). 사용된 장비는 OFFS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지역 축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진다. 이 지식과 장비를 통해 새로운 축구 클럽이 설립되고 기존 축구 클럽이 새로운 팀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축구 시설이 전쟁 중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OFFS는 축구 시설을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스포츠 기관이 시민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시민 사회 기관은 개인 간 및 집단 간 상호 작용 및 유대감을 지원하며(Belloni, 2001),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 연결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어린이는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OFFS 이후에도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구 클럽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방법은 학교와의 협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는 사회의 모든 어린이에게 닿을 수 있는 완벽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학교를 통해 그들은 축구를 하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제시된다(CCPA). 지역 학교와 함께 작업하는 또 다른 이점은 학생들의 편향적인 참여 선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참여하겠지만, 더 나아가 이 아이들은 다른 민족적 배경의 사람들에게 개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이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에 이미 이러한 개방성을 지니고 있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는 다양한 배경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에게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볼 수 있다.

#### (4) 한계 및 제언

OFFS 프로그램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OFFS가 화해와 일상생활의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표를 성취하려는 명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의 평가 연구에 따르면 특히 축구를 통한 목표 달성이 입증되기 어려웠다(Gasser & Levinsen, 2004). 주된 문제점은 열정적인 코치가 존재하더라도, 직원들이 갈등 해결 및 화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기관이 축구 및 기타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역량 및 경험을 갈등 관련 문제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Corry, 2015).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축구 전문지식 외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으나,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Kvalsund et al., 2004). 어린이들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관중과 주최자들을 끌어오는 것이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로 볼 수 있다(Gasser & Levinsen, 2004). 종합적으로, OFFS의 역할은 명시된 목표에 대한 난해함과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된다(Gasser & Levinsen, 2004).

## 자. Laureus Sport for good

### (1) 개요

Laureus Sport for good 기관은 스포츠가 여성, 청소년 및 다른 소외된 집단의 능력 향상, 건강한 삶의 추구 그리고 평화로운 사회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평화의 가치를 전파한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의 후원 아래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핵심으로 삼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양질의 일자리', '포용적인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Laureus Sport for good 기관은 현재 42개 국가에서 300개 이상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폭력, 차별, 불이익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Sport has the power to change the world”

- Nelson Mandela -

## (2) 프로그램 내용

본 기관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5가지 프로그램은 각각 SDGs 영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되고 있다.

① 정신적 웰빙 및 건강한 행동 습관 형성: Krida Vikas Sanstha-Slum Soccer는 인도 델리에서 진행되는 축구 프로그램으로, 축구를 통해 인도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인 담배·알코올 및 기타 약물 중독, 열악한 위생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외 계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축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건강과 위생, 웰니스(Wellness)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축구 프로그램 외에도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②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United Boxing은 소속감 부족이 범죄와 폭력의 증가를 조장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복싱 프로그램을 계획한 기관이다. 주요 목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복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정성, 존중, 관용, 갈등 해결과 같은 가치를 전파하고, 폭력 예방 및 갈등 해결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 외에도 기본 생활 교육 및 인턴십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범죄 예방이라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출처: SlumSoccer. <https://slumsoccer.org/index.php>

United Boxing. <https://www.laureus.com/>

그림 24. Krida Vikas Sanstha-Slum Soccer, United Boxing의 활동 사진

③ 여성·여아의 평등하고 안전한 삶 도모: 독일에서 운영되는 Futbalo Girls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6~16세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 중 80% 이상이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스포츠팀에 가입할 기회가 제한되었던 이민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Futbalo Girls는 참가자들이 축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은 축구 토너먼트와 캠프 같은 특별한 이벤트를 주최하여 참가자들이 페어플레이를 체험하고 팀의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95% 이상이 축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자신감 향상과 전통적 성 역할 극복과 같은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④ 기술 개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ISF Cambodia(이하 ISF)는 교육, 의료, 스포츠 분야의 접근성 강화를 통해 캄보디아의 소외된 청소년 및 지역 사회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빈곤 문제로 인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5% 미만에 불과하며, 이는 청소년들이 교육과 생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ISF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취업을 통해 빈곤과 상황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개발과 축구 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리더십 및 의사결정 기술, 팀워크 등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양질의 교육을 통하여 일자리 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ISF는 캄보디아의 소외된 청소년들이 사회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들의 미래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 ISF Cambodia(ISF) 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명	특징
1	Catch-up Education Programme	• 학교 미입학 및 중퇴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참여 유도
2	English classes	• 영어 교육을 통한 양질의 사회적 활동 참여 유도
3	Employment Support	• 진로 상담 및 직업 훈련을 통한 취업 기회 제공
4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 도서관 설립 및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유도
5	Football Programme	• 축구를 통한 ISF 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다른 조직 학생들과의 상호 교류 유도

출처: ISF Cambodia (ISF). <https://isfcambodia.org/>

⑤ 평화로운 사회 구축: Fight for Peace(이하 FFP)는 Rio de Janeiro와 London에 위치한 아카데미 센터이며, 17개국에 위치한 다양한 커뮤니티 스포츠 센터와 협업을 맺어 빈곤한 지역 즉, 소외된 지역에 위치한 7~25세의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격투 스포츠 즉, 복싱, 유도 등의 무술과 교육을 결합한 통합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긍정적으로 성장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FFP가 기반으로 하는 가치는 포용(Embracing), 공동체 의식(Solidarity), 자신감(Champion), 동기부여(Inspiring), 용기(Courage)로 제시된다. FFP에서는 기준이 되는 Rio와 London에 Academies를 두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며, 전세계 및 영국 내부의 다양한 기관과 파트너를 맺어 청소년 중심 프로그램을 전파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격투 스포츠를 통해 규율의 중요성과 성공은 노력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해를 키울 수 있다.



출처: ISF Cambodia(ISF). <https://isfcambodia.org/>

출처: Fight for Peace(FFP). <https://fightforpeace.net/>

그림 25. ISF Cambodia(ISF), Fight for Peace(FFP)에서 진행되는 활동 사진

### (3) 효과 및 함의

Laureus Sport for good 프로그램의 효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Laureus Sport for good 프로그램은 유네스코(UNESCO)를 비롯하여 여러 비정부기구(NGO)와 협력적(partnership)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스포츠를 통한 평화 증진을 위하여 정부, 비정부기구, 민간단체 간의 연대가 필수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연대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보완적인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Laureus Sport for good와 유네스코는 스포츠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협력적(partnership)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는 ‘Global Fit for Life programme’을 2021년에 출범시키며, 스포츠가 SDGs의 17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스포츠를 통한 평화 가치 확산, 프로그램의 보급 및 참여자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한계 및 제언

Laureus Sport for good 프로그램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이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전략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사회 변화는 복잡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므로, 단순히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사회나 개인에게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평가 방법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비단 Laureus Sport for good 프로그램의 한계점으로 볼 수 없으며, 스포츠를 활용하는 프로그램 및 기관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다.

### 차. Generations for Peace

#### (1) 개요

Generations for Peace(이하 GFP)는 요르단에서 시작된 국제 비영리 평화 구축 기구로, Feisal Al Hussein 왕세자가 2007년에 설립했다. GFP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폭력을 겪는 지역사회에서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인 관용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성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GFP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기반 게임, 미술, 미디어 활동 등이 청소년과 성인들을 참여시키는 기반이 되어,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GFP가 중요시하는 가치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리더십이다. 청소년들은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고,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분쟁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 역량이다. GFP는 풀뿌리 단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적극적인 관용(Active Tolerance)이다. GFP는 평화란 상호 이해, 대화,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신뢰 및 존중에 기반한다고 보고 있다. 넷째, 책임 있는 시민성이다. GFP는 사회적 변화가 개인적 책임에서 시작되고, 각자 지역사회의 긍정적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유지된다고 제시한다(Generations for Peace).

GFP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스포츠를 통한 평화 기관’이다. 지난 15년 동안, GFP는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및 북아메리카 52개 국가에서 22,500명 이상의 청년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지도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진행은 지역의 분쟁 및 폭력 문제에 대처하며 1,446,349명 이상의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GFP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의 민족 간, 종교 간 폭력, 성평등, 소수자(군민, 난민, 장애인), 분쟁 후 외상 대응, 화해 및 재통합이 포함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Generations for Peace).



## (2) 프로그램 내용

GFP는 자원봉사자 형태의 참여자들에게 분쟁 상황에서도 평화 구축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했고(Generations for Peace), 이러한 교육과정은 참여자들이 청소년 및 성인들과 협력하며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강화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다. 이들은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캐스케이딩 모델(cascading model)을 사용하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자원봉사자나 교육 참가자 등이 얻은 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모델이다. 층층이 퍼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캐스케이딩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GFP는 이 모델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고 평화 구축 노력의 확장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Generations for Peace).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GFP는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한다. 세계 각지의 자원봉사자 청년들은 GFP 캠프 또는 지역사회의 교육에 참석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영향을 창출하기 위한 리더십 잠재력과 변화주도 의지 2) 분쟁 감지 능력과 GFP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헌신 3)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중심의 경험 4) 다른 이들을 교육하거나,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거나, 멘토링 하거나, 높은 품질의 활동을 실행하고, 학습 및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등이 기준.

선발된 참여자들은 GFP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받게 된다. 실외 및 교실에서의 교육 세션은 '경험을 통한 학습'에 기반한 대화형 수업이다. 이는 참여자들이 배운 내용을 그룹 및 개인 연습을 통해 실전에서 적용할 시간을 제공하며, 이러한 기술이 각자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교육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게 된다.

- 평화 구축과 분쟁 변화 이론
- 심화 수준의 분쟁 분석
-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및 기법
-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스포츠, 미술, 역량 활동 활용에 대한 행동 변화
- 자원봉사 및 사회 공헌
- 프로그램 설계, 영향과 지속가능성의 모니터링 및 평가 (참여적인 과정에 중점을 둔 활동)



출처: <https://www.generationsforpeace.org/en/>

그림 26. GF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

GFP는 다음의 주제들을 아우르는 6가지 평화 구축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1) Sport For Peace 2) Arts For Peace 3) Advocacy For Peace 4) Dialogue For Peace 5) Empowerment For Peace 6) Media For Peace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Sport For Peace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Sport For Peace 프로그램은 GFP의 최초이자 대표적인 평화 구축 도구로, 2007년 GFP가 설립될 때 처음부터 함께 시행되었다. 설계된 스포츠 기반 게임과 활동을 사용하여 평화 구축 교육을 통합하는 Sport For Peace는 분쟁 지역에서의 이해와 통합을 촉진한다. 이는 반대되는 집단과 중립적인 장소, 즉 "스포츠를 통한 안전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는 역할을 한다. 미리 정의된 규칙이 있는 이 장소는 분쟁으로 인해 관계가 끊긴 지역사회 간의 사회적 교류를 허용하며,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능력, 종교 및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을 극복하고 수용과 관용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Sport For Peace 프로그램은 편견, 기대 및 태도를 재구성하기 위한 목표를 지닌 채, 각 사회의 맥락과 문화에 맞도록 설계되었다.

### (3) 효과 및 함의

GFP의 Sport For Peace 프로그램의 효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개인적인 측면에서 스포츠 활동은 트라우마와 폭력에 취약했던 사람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재할을 도울 수 있다. 폭력에 의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둘째, 관계적 측면에서 팀스포츠는 신뢰와 수용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편견을 깨고, 분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구조적 측면에서 스포츠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차별이나 배제에 직면한 사람들의 포용을 촉진할 수 있다(소수 민족, 난민, 장애인 포함). 넷째, 문화적 측면에서 스포츠 활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적 규범을 변화시키며 서로 다른 그룹 간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공동체 내 다양성을 수용하고, 여성과 남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generationsforpeace.org/en/>

그림 27. Sport For Peace 프로그램 중 축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 (4) 한계 및 제언

GFP의 Sport For Peace 프로그램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시간의 필요성이 제한점으로 드러난다. 서로 다른 집단의 참여자들이 교류하기 전, 같은 집단끼리의 활동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그룹끼리의 신뢰 및 GFP 활동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이후에, 다른 집단의 참여자들과 함께 활동하면 갈등을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둘째, 각 지역사회의 특이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어떠한 공동체에서는 여성이 전통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거나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GFP는 특정 맥락에 따라 이를 다르게 다룬다. 예를 들어, 소년과 소녀의 활동을 서로 다른 위치에 나누거나,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스포츠를 소개함으로써 (예: 소프트볼 등의 뉴스포츠) 남성 중심의 스포츠 구조를 피할 수 있다. 만약 혼성 스포츠 기반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면, 공이 팀원 모두에게 전달된 이후에만 팀이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규칙을 적용하거나 여성의 골을 1점이 아닌 2점으로 하며 규칙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https://www.generationsforpeace.org/en/>

그림 28. Sport For Peace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여학생들의 활동사진

## 카. Peace First

### (1) 개요

1996년 미국의 대학생들에 의해 처음 설립된 Peace First(이전에는 Peace Games로 불림)는 평화교육 NGO로서 성과를 거두었다. Peace First 직원, 자원봉사자, 선수, 활동가들은 직접 전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이, 학생, 부모가 자신만의 안전한 교실을 만들도록 돕는다(Kamberidou 2011a).

Peace First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팀과 신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협력적인 게임, 즐거운 스포츠 활동, 놀이의 힘, 팀워크, 민주적 훈육, 다문화 인식,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 비폭력적인 분쟁 해결 기술이 그들의 중심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자원봉사 증진,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젝트 촉진, 시민 참여를 통한 폭력, 인종에 대한 편견과 인종 갈등을 줄이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Peace First는 20,000명 이상의 초등생, 중등생들과 함께하며 2,100명 이상의 대학 및 지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였고, 대략 9,000명의 가족 구성원과 협력하여 가정에서 평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했다(Peace Games, 2006). 창립자인 Dr. Francelia Butler는 놀이와 평화의 힘을 결합할 수 있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Peace First를 탄생시켰다. Butler는 아이들이 게임, 스포츠 활동, 웃음, 소통, 우정, 분쟁 해결을 공유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대해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2000년, Peace First는 로스앤젤레스로 프로그램을 확장하였으며, 2005년에는 뉴욕 및 시카고의 학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립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08년까지 16년 동안(1992-2008)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및 알래스카까지 확대되었다.



출처: <https://peacefirst.org/>

그림 29. Peace First 포스터

## (2) 프로그램 내용

Peace First 교육과정에는 언어 예술, 전기, 과학, 수학, 미술, 음악 및 의사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학문적 기술은 일상생활에 통합되어 학생, 자원봉사자, 학교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통한 평화 조성 과정은 아동, 초등학생, 고등학교 학생에게 각기 다르기에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은 협력 게임, 스포츠 활동 또는 문화 간의 이해를 위한 예술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해 배우며 문화 및 언어 장벽을 해소하는 계기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3학년 학생들은 동료와 노인들과의 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성별, 연령, 인종 및 계급과 관련된 사회적인 고정관념에 대해 배우게 된다. 5학년 학생들은 인종의 다양성에 대해 학습하고, 이러한 인종 간 격차를 연결하는 생태계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학생의 선택 및 경험 유무를 고려하여 최대 10주 동안 진행된다(Kamberidou, 2008).

## (3) 효과 및 함의

Peace First의 효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Peace First는 40,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중요한 분쟁 해결 기술을 가르쳤고, 4,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40만 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2,500명의 교사에게 분쟁 해결 및 교실 관리 기술을 교육했다. 더 나아가 2,500개의 평화 사업(자원봉사, 사회 서비스 및 시민 참여)을 실행했다(Peace First).

Peace First와 협업을 맺은 학교에서는, 폭력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혐오, 따돌림과 같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 60% 감소하였으며, 아이들이 싸움을 막거나 서로 돕는 사례가 70~80% 증가했다(Peace First). Peace First의 장기적인 긍정적 효과는 명확하게 2008-2009년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Peace First는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뉴욕의 14개 학교와 협력했다. 실제로, 3,575명의 학생들이 주간 Peace First 교육을 받았으며, 408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135개의 지역사회 학습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Peace First).

- 학교에서 무기를 소지한 학생 72% 감소
- 학생 간 놀림 87% 감소
- 학생 간 폭행 또는 협박 77% 감소
- 교내 따돌림 81% 감소

동시에 Peace First 프로그램은 참여한 학생들이 평화 조성 행동과 학교에 대한 기여를 향상시켰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95%)
-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나누는 데 도움을 준다 (97%)
- 다른 학생들을 게임이나 그룹에 포함하는 데 도움을 준다 (94%)
- 학교 업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95%)
- 더 많이 학교에 가고 싶어진다 (84%)

또한, Peace First는 고등 교육 기관, 대학교, 비영리 단체, 기업 등에 교육을 제공하며, 일회성 교육부터 3년간의 장기간 교육까지 다양한 종류의 교육을 제공한다. 학생 자원봉사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것이 학생들과 고등학생들에게 롤 모델과 멘토로서 작용하게 한다(Kamberidou, 2011a).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대학은 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Peace Games의 지도자로서 활동하게 한 후 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또한, Stride Rite Community Scholars Program은 Northeastern University와 여러 지역 커뮤니티 기관 간의 협력 프로젝트로, 학생들을 보스턴 지역의 지역사회 현장(채용/인턴십)에 배치하기도 한다.

#### (4) 한계 및 제언

Peace First 프로그램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Peace First는 다문화 및 세대 간 협업을 통한 시민 참여의 촉진으로서 대학생 및 운동선수 등의 참여를 유발하는 효과적인 교육 전략이며, 참여자들의 기존의 고정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Kamberidou, 2008). 다만, Peace First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고정관념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제안될 수 있다.

- 평화 조성의 가치가 어떻게 창출, 재생산 및 유지될 수 있는지 탐색해야 함
- 평화 조성에 대한 종합적 접근의 가치를 논의해야 함
- 고립된 행동이 아닌 복잡한 행동양식을 파악하여 교사 등의 이해관계자가 평화 조성에 중요한 실천 방식을 고안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함
- 교육 과정이 자존감, 용기 등 개인의 역량을 구축하는 종합적인 학문적 모델의 효과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지 탐색해야 함
-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촉진해야 함



표 12.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 분석 요약(1)

		PeacePlayers International	Soccer Without Borders	Right to Play	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
개 념	주요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작용</li> <li>상호존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등, 진실성, whole person, 과정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복력, 포용, 의사소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올림픽 휴전, 올림픽 가치</li> </ul>
	궁극 적인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li> <li>공동체 통합, 평등 및 평화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재된 잠재력 개발</li> <li>의미있는 관계 형성</li> <li>지역사회의 구조 강화</li> <li>스포츠 경험이 가능한 안전한 공간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구조 구축을 통한 개인 및 지역 능력 개발</li> <li>성인과의 연결, 안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올림픽 휴전을 통한 평화 가치 수호</li> <li>IOTC와 정부, 비정부 간의 협력</li> <li>올림픽 기간 및 이후의 모든 적대 행위 중단</li> </ul>
유 형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구,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대 그리스 올림픽 종목 (Pankration 등)</li> </ul>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14세 (리더십개발프로그램:~18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 청소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magine Peace Youth Camp : 18세~25세</li> <li>Peacejam : 비동반아동난민</li> </ul>
	프로 그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일정체성 그룹 활동 (트위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주일 간 '팀 프로그램'의 집중적 진행 (자신감, 소속감 증가하는 활동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ort Works) 코칭, 리더십 교육, 프로젝트 관리 교육</li> <li>(Sport Health Program) 질병예방의 중요성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magine Peace Youth Camp : 고대올림픽 종목 체험 / 워크숍, 팀워크 활동 등 / 올림픽챌</li> </ul>



				피언, 메달리스트와의 만남 • Peacejam :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 / 올림픽챔피언의 코칭 경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3단계 변화 제시 (개인간 변화 - 지역 변화 - 세계적 변화)</li> <li>• 지역커뮤니티(ex. 학교)를 통한 참가자 모집</li> <li>• 지역리더십</li> <li>• 스포츠와 교육의 균형</li> <li>• 지속적 참여와 장기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정서학습(SEL) 프레임워크</li> <li>• CASEL프레임워크</li> <li>• 청소년 자기 효능감 향상 및 사회자본의 축적 가능성</li> <li>• 개인-지역사회-세계적으로 긍정적 변화 창출 가능</li> <li>• 사회적 환경 극복을 통한 학업 능력 발달(학업 중단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 발전, 스포츠의 연결 (기존의 활동 및 프로젝트에 스포츠를 통합)</li> <li>• 위험 분석 시행</li> <li>• 본부와 현장 간의 균형</li> <li>• 직원 성과 시스템을 통한 피드백 제공</li> <li>• 자원봉사자 교육 - 현지참가자 존중의 중요성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림픽 휴전 제도 부활을 통한 평화 가치 수호</li> <li>• 스포츠를 통한 올림픽 휴전 가치 교육-평화 가치 수호로 연결</li> <li>• 참여자(아동, 청소년)의 올림픽휴전홍보대사로서의 성장</li> </ul>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간 모니터링 및 평가의 어려움</li> <li>• 일관성 있고 유연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li> <li>• 정치적 변화에 대처하는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적 제약) 진입장벽</li> <li>• (시간적 제약) 장벽 해결을 위한 시간의 필요성</li> <li>• 이해관계자들의 진정성 있는 협력의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 측정의 어려움 및 관료주의 행동의 위험</li> <li>• 정성적인 측면의 무관심</li> <li>• 그룹과 개인의 이탈로 인한 활동 지속가능성의 어려움</li> <li>• 자원봉사 원칙의 딜레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간 의견 조율과 진정성 있는 협력의 어려움</li> <li>• 성인 대상 프로그램 부재</li> </ul>





표 13.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 분석 요약(2)

		Football 4 Peace	Peace and Sport	Kick4Life	Open Fun Football Schools
개 념	주요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립, 포용, 존중, 신뢰, 책임감, 라이프 스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의 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이프스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이프스킬</li> <li>• 비폭력 공존, 신뢰 구축, 공감</li> </ul>
	궁극 적인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업, 가치 기반 방법론, 개발</li> <li>• 평화 활동을 위한 스포츠 모범 사례 전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분쟁 해결, 포용 및 이해 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구를 통한 자체 개발 실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종, 사회 및 종교적 갈등을 초월하고 평화로운 공존, 사회통합 및 탄력성에 기여</li> <li>• 민주주의, 평화, 사회 결속</li> <li>• "twin-city-approach"를 통한 문화 공동체 형성</li> </ul>
유 형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구, 축구, 럭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구</li> </ul>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4-6학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은 여성, 거리 아동, 고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12세 분쟁 상황 거주 어린이</li> </ul>
	프로그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교육의 가치 소개 -&gt; 워밍업 -&gt; 기술단계 -&gt; 경기단계 -&gt; 마무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ace and sport methodology: 코치 교육 프로그램</li> <li>• Peacemakers projec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구대회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일간의 여름 축구 캠프 진행</li> </ul>



		코치의 프로그램 진행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물결 효과 모델 (Ripple Effect Model)</li> <li>• F4P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li> <li>• 분쟁 지역의 문화교류 촉진</li> <li>• 아동 보호</li> <li>• 청소년, 코치, 자원봉사자에게 평화 가치 전달 및 태도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ace and Sport Forum 개최</li> <li>• Live Together 진행</li> <li>• #Whitecard</li> <li>• I Move for Peace</li> <li>• UN과 풀뿌리 조직의 중간 매개자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회를 통한 수입-지역 스탠프 직업 교육 및 고용 기회 제공-수익의 재투자 사이클 형성</li> <li>• All Stars Tour, TOC(교육 커리큘럼 크레이닝) 통한 인적자원 확보</li> <li>• 활동의 자유도를 위한 정부와의 느슨한 협력관계</li> <li>• 로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다른 집단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twin-City'개념 제시 (민족 간 관계 개선, 우호적 관계 형성, 사회적 및 심리적 장벽 해소, 비폭력 평화 실현)</li> <li>• 다양한 조직과의 협력 (지역스포츠클럽, 지역 학교)</li> <li>• 부모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스포츠 프로그램 확장</li> </ul>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가피한 정치적개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지원의 형태</li> <li>• 팬데믹과 같은 세계 위기에 취약</li> <li>• 사업 자금 마련의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격한 규모 확장으로 인한 목표 상실의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 해결 및 화해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 부족</li> <li>• 역량과 경험을 우선시하는 경향</li> </ul>



표 14.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 분석 요약(3)

		Laureus Sport for good	Generations for Peace	Peace First
개 념	주요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청소년 중심의) SDGS 실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리더십</li> <li>• 지역사회 권한 부여</li> <li>• 적극적인 관용</li> <li>• 책임있는 시민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인식</li> <li>• 민주적 훈육</li> <li>• 비폭력 분쟁 해결</li> <li>• 팀워크</li> </ul>
	궁극 적인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과 웰빙</li> <li>• 양질의 교육</li> <li>• 성평등</li> <li>• 양질의 일자리</li> <li>• 포용적인 사회</li> <li>• 평화로운 사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 교육과 지속적 행동 변화 수단으로 작용하여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를 통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폭력 및 인종 갈등을 감소시키는 것</li> </ul>
유 형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구, 복싱, 무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구, 배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 형식의 스포츠</li> </ul>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외계층 청소년, 여자 청소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기준을 갖춘 청소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리더십 잠재력과 변화주도 의지</li> <li>2) 분쟁 감지 능력</li> <li>3)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경험</li> <li>4) 타인에 대한 멘토링, 동기부여 가능 여부 및 학습 능력 등</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생 청소년</li> </ul>



	<p>프로그램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rida Vikas Sanstha-Slum Soccer</li> <li>• United Boxing</li> <li>• Futbalo Girls</li> <li>• ISF Cambodia</li> <li>• Fight for Peace</li> </ul> <p>(pp. 105-1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참여자 선발</li> <li>• 2단계 : GFP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기술 습득 교육 (대화형 수업)</li> <li>• 3단계 : 스포츠 게임과 활동을 통한 평화 구축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참여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사회 문제 선택</li> <li>• 2단계 :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스포츠, 예술, 과학 등의 여러 분야 기술을 통한) 해결방안 고안</li> <li>• 3단계 : 2단계의 프로그램화(실제 실행 지원)</li> <li>• 4단계 :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피드백</li> <li>• 5단계 : 참가자의 미래 계획 발표</li> </ul>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를 통한 평화 가치 수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scading model (캐스케이딩 모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게임 이외에도 예술, 과학 등 다른 분야 기술과의 통합적인 교육 프로젝트</li> <li>• 세대 간 공유학습</li> </ul>	
<p>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간의 의견 조율과 진정성 있는 협력의 어려움</li> <li>• 스포츠 프로그램 종목의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간 시간 투자의 필요성</li> <li>• 각 지역사회의 특이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 조성 정신의 창출, 재생산, 유지의 구체적인 과정 탐색 필요성</li> <li>• 사회적 편견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 모델 구성 필요</li> </ul>	

## 2. 국내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

구체적인 모형 탐구를 위해 유관영역 스포츠 프로그램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는 주최 기관별 분석, 프로그램 유형별 분류, 그리고 전문가 심층면담으로 이어졌다. 먼저 주최 기관별 분석에서는 기업 및 구단, 종교단체, 시민단체, (대한/장애인/지방) 체육회, 종목단체, 공공기관, 지자체, 2018평창기념재단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들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유형별 분류는 Sport Plus/Plus Sport/Sport Only, 대상자, 기간, 종목, 장소 및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전문가 심층면담에서는 평화에 대한 인식, 평화교육으로서 스포츠의 활용 가능성, 평화교육의 과제에 대한 접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가. 주최 기관별 분석

#### (1) 기업 및 구단

기업 및 구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주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소속 선수 및 용품 등)을 활용한 지원성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선수 혹은 스태프를 활용하여 유명 운동선수와 함께하는 체험/강습 프로그램 혹은 사회공헌의 성격을 띠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기업 및 구단은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및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PYD 프로그램이 많았으며, Sport Only, Sport Plus의 프로그램이 고루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은 주로 스포츠 용품과 관련된 기업이거나, 스포츠 구단을 소유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데상트스포츠, 나이키, 아디다스 등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에서 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이랜드 FC, 한화이글스, 롯데자이언츠 등 축구, 야구 구단에서는 종목 보급 사업으로서 체험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기업 및 구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참여 주체를 소외계층, 장애인, 청소년 등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을 한정하여 참가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주로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농산어촌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었다. 기업 및 구단에서 운영되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국내 전지역 혹은 전연령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참여 주체 및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종교단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주로 화합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종교 내부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다수였으며, 해외에서 진행하는 한인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교단체에게 스포츠는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일반인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프로그램(대회)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종교단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종교단체에서는 주로 평화, PYD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부 SDP

프로그램도 확인되었다.

종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보다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대회 및 축제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종교 스포츠 팀이 참여하는 대회가 다수였으며, 화합 한마당, 축제 등 연례 행사와 같이 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배구, 야구, 축구 등 특정 종목을 겨루는 대회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 (3) 시민단체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평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타 주관기관과는 다르게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시에 시민단체의 스포츠 프로그램은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과 국제적 맥락에서 세계 평화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었다. 즉, 시민단체는 스포츠를 발달을 위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Plus Sport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분단국가라는 특성에 따라 한반도 평화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과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수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유형으로는 걷기, 마라톤 대회 등의 참여가 어렵지 않은 종목의 대회가 있었으며, 타 종목은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평화', '교류'를 목적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였으나, 실질적인 '평화', '교류'를 위한 활동보다는 스포츠 체험에 가까운 프로그램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국제적 맥락에서 세계 평화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해외로 지도자를 파견하는 방식이 두드러졌으며, 부가적으로 스포츠 용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즉, 스포츠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수였으며, 특히, 축구, 태권도 종목의 지도자 파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일부 프로그램은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플로깅, 라이딩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기부 달리기 등의 자선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 (4) (대한/장애인/지방)체육회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유아, 청소년, 가족, 여학생, 60세 이상 등 대상을 특정하여 진행하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체육회로 분류하여 스포츠 프로그램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 올림픽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대한체육회에서는 올림픽 아카데미가 올림픽 가치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진행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드림 패럴림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유아, 여학생, 소외계층,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수였다. 또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이 다수로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특정한 가치에 대한 교육보다는 스포츠 중심의 체험 교실으로 간주되었다. 즉, Sport Only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운영되고 있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장애인식개선이다. 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비장애인이 장애인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장애인의 신체활동 보장이다.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캠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즉, 장애인체육회에서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스포츠 체험형 프로그램,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지방체육회는 가족, 청소년, 여학생, 60세 이상 등 대상을 특정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다수였다. 특히,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참여 주체에 있어서 관내 구/시민 등으로 대상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지방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주로 생활체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걷기, 마라톤, 축구, 체조 등 접근이 쉬운 종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5) 종목단체

종목단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다문화/소외계층 청소년, 여학생,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스포츠 종목의 저변 확대, 그리고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에서 전문체육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여학생과 어르신의 참여를 위해 종목을 변형하는 등 종목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이 다수 포착되었다.

특히, 종목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또바기·행복나눔·여학생·어르신 체육교실, 아이리그, 주말체육학교 등 대한체육회의 사업을 활용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다수로 확인되었고, 페스티벌, 대회 등이 부가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유명 선수를 활용하여 스포츠 종목의 저변 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각 종목의 저변 확대를 위한 Sport Only를 중심으로 스포츠 자체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Sport Plus 등의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PYD, OE/평화 관련 프로그램들이 확인되었다.

## (6) 공공기관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정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으로 크게 3곳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는 체험 위주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국제스포츠행정 리더 양성을 위한 국제협력개발 프로그램이 1개 운영되고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권도진흥재단은 생활체육으로서 태권도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추가적으로 진로교육, 올림픽교육 등 Sport Plus라고 분류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를 통한 PYD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형 분류가 가능하였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였다. 또한,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은 지역사회와 재단의 상생 및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이벤트로서 진행되었으며, 태권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태권도 관련 진로를 소개하는 진로교육의 일부로서 진행되었다.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재단의 특성 상 태권도 종목을 중심으로 하는 Sport Plus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 (7) 지자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걷기 대회 및 마라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대축전, 시민리그, 시민체육대회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Sport Only의 유형보다는 Plus Sport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자체는 스포츠를 활용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었으며, 문화교류를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스포츠를 활용하고 있었기에 Plus Sport 프로그램의 위주로 운영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지자체 중 ‘평화’와 관련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을 강원도와 부산시 2곳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등을 계기로 하여 올림픽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되었던 적이 있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평화’를 위한 걷기 대회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의 경우는 ‘평화문화도시’화 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에(권태상 외, 2022), ‘평화’와 관련된 스포츠 프로그램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8) 2018평창기념재단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설립된 2018평창기념재단은 “Sports, Peace and People”을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식 남북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등에서 파생된 레거시와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재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창기념재단은 전국 유·청소년, 세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화, 올림픽교육, 국제교류 등 Sport Plus 프로그램이 다수였다. 다만, 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드림프로그램을 제외한 2018평창기념재단의 프로그램들은 중단된 상태이다.

2018평창기념재단의 특성에 따라 올림픽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세계 평화와 같은 가치를 청소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SDP, PYD, OE 등 다양한 유관영역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평화, 올림픽교육, 국제교류 등 Plus Sport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나. 프로그램 유형별 분류

### (1) Sport Plus/Plus Sport/Sport Only

유관 영역인 SDP에서는 프로그램 유형을 스포츠 개발과 더불어 평화와 같은 가치를 스포츠를 통해 전달하는 유형인 Sport Plus와 스포츠 개발보다 스포츠를 활용하여 다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유형인 Plus Sport로 제시하기도 한다(Coalter, 2007). 이러한 선행연구의 유형화와 더불어 Sport Only를 “스포츠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추가하여 분류하였다. 유형화에 따라 국내 스포츠 프로그램을 분류한 결과, <표 16>과 같이 나타났다. 184개(51%)의 프로그램은 Sport Only 프로그램으로 나타났으며, Plus Sport 프로그램은 102개(29%)로 확인되었고, Sport Plus 프로그램은 73개(20%)로 확인되었다.

주관기관에 따른 유형 분류를 살펴보면, Sport Only 프로그램은 주로 종목단체와 체육회 즉, 전문체육에 중점을 둔 주관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Plus Sport 프로그램은 시민단체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Sport Plus 프로그램은 종목단체와 공공기관(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등)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민단체에서는 가치교육 혹은 진로교육 등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포츠를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종목단체 혹은 공공기관에서는 주로 청소년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와 스포츠를 통한 PYD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5. 유관영역 프로그램 S+, +S, SO에 따른 분류

	공공 기관	기업 및 구단	시민 단체	재단	종교 단체	종목 단체	지자체	체육회	합계	비율
Sport only	6	10	5	0	7	98	20	38	184	51%
Plus Sport	1	9	35	5	11	3	27	11	102	29%
Sport Plus	12	6	7	1	3	25	7	12	73	20%
총계									359	100 %

### (2) 대상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연령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은 주로 아동/청소년, 성인, 어르신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기준은 프로그램 신청 시 구분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으로 대상을 설정한 프로그램이 151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60세 이상부터 포함)이 18개, 성인이 8개로 나타났다. 즉, 주로 프로그램은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노인, 성인의 순으로 프로그램의 수가 많았다. 연령 구분이 없는 프로그램도 일부 존재하였으나, 대다수의 프로그램은 참여 연령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는 가족 단위 혹은 다른 기준으로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었다. 가족 단위 프로그램은 주로 티볼, 파크골프, 캠핑, 클라이밍 등 모든 연령대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 설정하는 두 번째 기준은 조건으로 나타났다. 조건은 소속 여부, 소외계층, 성별 등으로 나타났는데, 소속 여부는 지역 주민, 직원, 종교인 등의 기준을 통해 조건을 설정하고 있었으며, 64개의 프로그램이 소속 여부로 대상을 제한하였다. 또한, 소외계층은 이주민, 다문화 가정, 장애인, 지역적/경제적 소외 등 스포츠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32개로 확인되었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수였으며, 이는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별을 조건으로 설정한 프로그램 중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23개로 확인되었으나, 조사한 프로그램 중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프로그램 즉,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5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기간

프로그램의 기간은 크게 단기(3개월 이하), 장기(3개월 이상), 그리고 단발성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단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참여자가 3개월 이하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장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참여자가 3개월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단발성이란 축제, 대회, 페스티벌, 체험부스 등 참여자가 1회와 같은 단발적인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단기 프로그램은 72개, 장기 프로그램은 82개, 단발성 프로그램이 154개로 나타났다. 단기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수였으며, 장기 프로그램은 소외계층, 어르신, 여학생, 소속 여부 등의 조건으로 대상을 설정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단발성 프로그램은 대부분 생활체육, 전문체육 대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AI 스포츠 체험 등과 같은 체험 부스, 축제와 동반한 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 (4) 종목

프로그램의 종목은 스포츠 활동의 단일종목, 스포츠 활동의 복수종목, 타 교과와 함께하는 종목으로 분류되었다. 단일종목(219), 타 교과와 함께하는 종목(69), 복수종목(64)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일종목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일종목에는 줄넘기, 축구, 농구, 야구, 테니스, 볼링 등이 존재하고, 종목단체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사격, 태극권비, 가라테, 양궁, 컬링 등의 접근성이 낮은 독특한 종목들도 진행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타 교과와 함께하는 종목을 살펴보면, 스포츠 활동과 진로교육, 평화교육, 환경교육, 올림픽교육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arris & Morrison(2013)의 평화교육 유형 분류를 살펴보면 국제교육, 인권교육, 발전교육, 환경교육, 갈등해결교육이 제시되는데, 현행

프로그램들에서도 스포츠와 함께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 상황에서 위와 같은 교육이 진행된다면 참여자들의 직접적인 체험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수종목은 앞서 제시했던 단일종목이 두 개 이상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한 프로그램에 줄넘기 티볼 풋살 피구 등의 종목을 모두 진행하며 개인종목 뿐만 아니라 팀스포츠도 포함하여 다양한 가치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5) 장소 및 지역

프로그램의 장소 구분에 있어서 크게 교내(학교 안)과 교외(학교 밖)으로 분류하였고, 교내 중에서도 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교과수업 시간에 진행하는지 혹은 ② 스포츠클럽이나 방과후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의 두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총 360개의 프로그램 중, 먼저 교내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교과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2개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세계교육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이 남수단, 부르키나파소 등의 국가의 정규수업으로 편성되어 진행되고 있었고,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태권도 수업을 지원하며 공교육 과정 도입에 힘쓰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내의 스포츠클럽 및 방과후활동 프로그램들은 8개로 나타났다. 체육회나 종목단체에서 주관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다수 있었고, 일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평화체육 활동들을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외 활동은 340개로, 장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및 구단, 종교단체, 시민단체, 체육회, 종목단체,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주관으로 하여,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종목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더 나아가, 프로그램이 진행된 지역을 살펴보면 지방(120), 수도권(106), 전국(104), 해외(25), 기타(온라인)(4)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전문가 심층면담

### 가. 평화에 대한 인식

스포츠 프로그램 담당자의 평화에 대한 인식은 프로그램의 목표와 가치, 그리고 진행되는 활동에 투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하다. 심층면담 결과 프로그램 담당자가 인식하는 평화는 Galtung이 구분한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신체활동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올바른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 이로 인해 일상의 평화를 느끼는 ‘적극적 평화’를 중요시 하는 인식이 있었으며,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 즉 ‘소극적 평화’에 초점을 두는 담당자 또한 나타났다. 그러나 완전하게 한쪽 접근만을 추구하기보다,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 (1) ‘적극적 평화’에 대한 인식

일부 프로그램 관리자들은 ‘평화’를 소극적 평화가 아닌 적극적 평화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소극적 평화가 추구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적극적 평화는 평화로운 사회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는 태도, 제도, 구조로 정의된다(Galtung, 1964). 일부 관리자들은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 평화는 전쟁 없는 것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비폭력보다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근데 그거 막 가르쳐 주는 거 아니라 그냥 사진 보여주고 이게 평화롭냐고? 그래서 평화 감수성이라고 해요. (중략)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이 소극적 평화만 맞추면 그럼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관심 가질 이유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선에서 바꿀 수 있는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중략) 남북 평화라고 하면 어쨌든 그거 대통령 일인데 그래서 이 적극적 평화로 접근해야 평화가 정치인만 하는 거 아니라 저희가 매일매일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 #1)

*우선 내 일상에서 좀 평화를, 통일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평화, 통일. 저희 ○○○○은 ‘일상에서 주체적으로 평화통일 운동을 하는 청소년, 청년 활동가’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일상에서랑 주체적 이런 워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5)

특히, 전문가 #1은 평화를 전쟁이 없는 것을 넘어선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화’가 정치의 영역으로 인식됨으로서 개인의 삶과 멀어지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일상과 밀접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5도 마찬가지로 ‘일상’, ‘주체성’을 강조하며, 개인이 일상 속에서 평화를 느끼고 이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설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를 가지고서는 가장 핵심인데 뭐 스포츠 인식이나 단순히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거는 아니에요. 근데 스포츠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팀 스포츠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협동심이라든지 아이들 리더십.. 그런 목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스포츠를 토대로 그 아이들이 좀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건강하고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게 한거죠.*

(전문가 #6)

전문가 #6은 스포츠를 통한 교육이 단순히 신체활동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협동심, 리더십과 같은 스포츠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함양을 통해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스포츠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개인에 대한 역량교육이 평화를 구축하는데 있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2) ‘소극적 평화’에 대한 인식

일부 스포츠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평화’를 전쟁의 위험과 갈등이 해소된 상태, 즉 ‘소극적 평화’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단국가, 휴전상태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스포츠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스포츠가 평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이와같은 인식을 가진 전문가들은 평화와 통일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임진각, DMZ, 철원 등 분단과 평화를 상징하는 곳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위주로 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DMZ라고 하는 민간 통제 구역, 엄밀히 말하면 민간인 통제 구역이에요. 민북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을 한번 달려보면서, 함께 달리면서 이런 ‘의미들을 되새기자’라는 차원에서 준비했던 마라톤 프로그램이고요.*

(전문가 #2)

*○○○○ 표면적으로 길을 달려야 되는데 길이라는 건 서로 통하기는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합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길이 막혀 있는데 자꾸 알려지는 거죠. 저거는 스포츠로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정치는 못 넘을 수 있지만, 스포츠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걸 자꾸 어필하고 싶은 거죠.*

(전문가 #4)

국내의 일부 평화 관련 스포츠 프로그램은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화와 분단을 상징하는 장소에서 달리기, 자전거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참여자들로 하여금 분단의 현실을 몸소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서 평화와 관련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들은 남북관계를 참여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의미를 고취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들은 ‘전쟁’, ‘민간 통제 구역’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남북전쟁의 종전이 국내의 평화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은 더 나아가 국가 간/국가 내 분쟁 지역 청소년을 초청하여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즉,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이 초국가적 관점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약간 전쟁 지역이나 약간 내전이 있거나? 그런 국가에서 축구하고 있는 친구들 좀 애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 정도 친구들 데리고 와서 여기 ○○에서 축구하고.*

(전문가 #3)

## 나. 평화교육으로서 스포츠의 활용 가능성

### (1) 경험 교육

스포츠는 신체활동을 통해 평화의 가치를 직접 체험/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프로그램들과 차이점을 지닌다. 실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신체활동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몸소 평화의 가치를 체험하고 체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평화에 ‘대한’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평화에 의한, 위한 교육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는 그런 교육보다는 인위적인 교육보다는 오히려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면서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나면 우리 그쪽에서 물어보게 와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전문가 #4)

*마라톤이 의미가 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녀노소 건강한 일반인들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달리면서 그 평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지역에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행사를 하는 곳에 오셔서 그런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스포츠 특히나 마라톤은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2)

스포츠는 체험을 통해 가치를 체득하기에 유리한 방식이며, 평화/갈등 상황을 통제된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을 가진다. 전문가 #1은 팀스포츠를 활용하여 경쟁 상황과 협력이 가능한 상황을 통제된 환경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스포츠의 특성은 타 교과 혹은 활동에 비해 스포츠가 가지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스포츠 장점은 그거 얘기하고 나서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직접 체험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배우는 과정은 듣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경험하는 것도 있잖아요. 들으면 하루 동안 기억한다. 보면 열흘 동안 기억한다. 직접 하면 100일 동안... 그래서 체육은 다른 과목보다 훨씬 큰 강점이 있는거예요. 왜냐하면 통제된 환경 안에서 갈등 경험할 수 있고, 통제된 환경 안에서 협력 경험할 수 있고.*

(전문가 #1)

전문가 #3의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평화’, ‘존중’과 같은 가치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이 신체활동 전후로 배치되어 있었다. 스포츠 활동만을 통해서 가치를 학습하는 것이 아닌 가치에 대한 내용을 활동 전후에 습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즉, 스포츠/신체활동은 ‘평화’, ‘존중’ 등의 가치를 배우는 방식 중 하나이며, 스포츠는 가치를 학습하는 방식 중 일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애들 상대로 하는 거라. 그냥 키즈 하고 이렇게 체험 활동하고 하면서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친구랑 페어플레이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올림픽 가치 중에 존중이라는 단어가 있어 있어서 그런 거를 한다던가 대부분 그냥 프레젠테이션하고 애들 퀴즈하고 이런 어떤 하나의 약간 가벼운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하고 존중해야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정도예요.*

(전문가 #3)

## (2) 스포츠의 유연한 활용

심층면담 결과 프로그램들은 참여하는 대상, 장소 등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스포츠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걷기, 달리기, 마라톤, 자전거 타기 등 누구나 경험하기 쉽고 이미 접해본 종목을 선택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축구

일반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누구나 경험하기 쉬운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걷기, 달리기, 마라톤, 자전거 등의 프로그램/이벤트는 ‘평화’의 가치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스포츠 종목 또한 접근성이 높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가치를 교육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스포츠는 종목에 따라 참여하는 연령 및 성별 등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평화 스포츠 프로그램은 주로 걷기, 달리기, 자전거 등으로 나타난 것처럼 전연령, 성별에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종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즉, 평화교육으로서 스포츠는 다른 활동보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활동이다.

*엘리트 체육을 하려면 비용적인 면에서도 훨씬 크게 들고 또한 저희가 마라톤을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상징성은 있으나 코스가 그렇게 길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면서 처음 시작은 좀 작게 한 셈이에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을 보면 외국인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있는 일반인들은 신청을 하셔서 따로 오셨죠. 그리고 가족단위로도 오시고, 학교, 그 다음에 동호회. 그 다음에 이런 평화운동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에서도 단체 신청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문가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신체활동 증진, 스포츠 활동을 통한 가치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스포츠/신체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또한, 청소년을 가치 교육에 중점을 둔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올바른 시민 혹은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었다. 즉,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신체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가치 교육을 통해 내면 발달이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애당초 재단 설립 목적 자체가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아동,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을 증진시키자는 목적.*

(전문가 #6)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직 너무 어려서 안되고. 그래서 우리는 4, 5, 6학년. 근데 또 다르게 우리는 진행자끼리 하기 때문에. 대학생 대상으로 진행자 교육도 제공해요.*

(전문가 #1)

*미래 세대들한테 우리나라에 이런 큰 올림픽이 있었고 그 올림픽이 되게 성공적으로 잘 개최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어나가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중략)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래 세대들에게 이 ○○올림픽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계속 전파해 나가기 위해서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 #3)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 일부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고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은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경우에도 지역사회가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대학교가) 물리적, 인적 자원을 갖고 계시고, 지역사회랑 연결하는데 이 연결고리가 어쨌든 물리적으로 돈이 필요하잖아. 필요할 때 저희 재단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일단 이 연결고리를 다리를 놔주자라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전문가 #6)

## 다. 평화교육의 과제

### (1) 정치적 변화에 영향

‘평화’라는 개념은 주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전쟁 또는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갈등을 관리하며 조화·협력 및 통합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Galtung, 1964). 특히, 국제정치에서의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평화’ 개념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관리자들은 평화교육을 진행할 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지닌 국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를 통한 평화는 사실 정치에서 얘기하는 평화량은 조금 다른 뭔가 스포츠 경기 때 우리가 분단과 휴전이 된 국가들이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중재하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사실 스포츠를 통한 평화인데, 우리나라의 특수성상 일단 평화라는 키워드 자체에 정치적 코드가 들어가 있다고 보고...*

(전문가 #3)

평화교육 프로그램들은 정치적 이슈에 높은 민감성을 보이고 있었다. #4와 #2의 진술에서도 나타나듯이,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초청팀이 변경되거나 프로그램에 공간적 제약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평화의 개념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치적 방향성에 의해 프로그램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스포츠와 정치의 상호작용은 변화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사회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권순용, 조옥연, 2015). 그러나 스포츠 평화 프로그램의 관리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의 가치를 참여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건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초청팀이 달라져요. 그다음에 코스도 조금씩 달라지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도 좀 주의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평화를 위해서 달리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가치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가치가 어떻게 정의되느냐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전문가 #4)

*저는 활동가이다 보니까 평화가 너무 중요해요. 평화, 통일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바뀔 때마다 추구하는 이 내용 단어가 다 달라지잖아요.*

(전문가 #5)

*지금 남북이 경색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승인받는 게 너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뛰고자 했던 코스도 제대로 승인이 나지 않았고 사실상 (중략) '정부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 위험하다라고 하지만 크게 지금 뭐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인데 못 들어가게 하고 막고 그런 게 심해요. (중략) 그래서 확실히 관계자 정부의 그러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민간 교류나 이런 건 더 많이 어려워지고 남북 경색에 대한 영향이 심하게 받는다.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 #2)

## (2) 평화에 대한 교육보다 평화를 위한 교육

유관영역 스포츠 프로그램들은 평화를 위한 교육보다는 평화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Jenkins(2013)에 따르면 평화에 대한 교육은 일반적인 세계질서 유지를 위한 평화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평화를 위한 교육은 평화구축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교육으로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은 평화를 위해 스포츠를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거나, 평화의 가치를 교육하는 보조적 측면에 지나지 않았다. Coalter(2007)는 스포츠 개입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들을 분류하였는데, 평화 프로그램들은 스포츠를 이용하여 다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Plus Sport'의 유형으로 바라볼 수 있다.

*자선 골프 대회 같은 경우는 000 프로와 함께 이게 거의 진행이 된 거고 그런 스포츠 활동을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됐죠. (중략) 여기서 보시면 이제 '00000 기부 달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략) 이 00000를 이렇게 섭외해 오셔서 이제 이런 걸 해보자. 그래서 몇 명이 뛰든 이제 참여자에 따라서 그만큼을 기부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명당 만 원이다. 그러면 70만 원을 70명이 참여했다면 만약에 2만 원이다. 그러면 14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전문가 #7)

#7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체육활동을 통해 기부금을 모으는 활동들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 달리기예 참여하는 참여자의 수만큼 기부할 수 있는 취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달리기라는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기부할 수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기에 조화, 협력 및 통합의 가치들을 체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평화의 가치를 가시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전문가들은 평화교육 자체의 평가 및 측정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다. 평화교육은 개인의 내면을 교육하는 것으로 평가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또한, '평화'의 개념 자체를 교육하는 것 즉, 평화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평가가 비교적 수월할 수 있겠지만, 평화를 위한 교육은 평가 혹은 측정 즉, 수치화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평화교육 되게 어려운 것은 이게 마음 차원에서 접근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변화가 있다가 증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전문가 #1)

*측정하기가 힘든 거잖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어찌라고 그러고, 그래서 성과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나오기가 쉽지 않죠.*

(전문가 #4)

평화에 대한 교육과 평화를 위한 교육은 모두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평화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 평화에 대한 교육과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평화를 위한 교육의 평가는 또 다른 문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스포츠 프로그램(SDP 프로그램)의 효과 또한 객관적으로 측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Hayhurst, 2009), 효과가 간접적이라는 견해들이 제시되기도 한다(Kidd, 2011). 그럼에도 SDP 프로그램은 사회적 요구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스포츠를 활용한 평화를 위한 교육은 개인의 내면 발달을 측정해야 하기에 가시적인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를 위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평화교육에서의 스포츠는 더욱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객관적인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게 평화를 위해 달린다는데 너희가 달리는 게 과연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못하는 약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 하나예요.*

(전문가 #4)

*스포츠가 좀... 말씀하셨듯이 이 효과 증명하는 거 보여주기 어렵고, 저도 어떨 때는 하고 나서 좀 위축된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열심히 하는데 진짜 그 영향이 있었을까? 그 리고 사회에서 이렇게 스포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 아직 많이 없어요.*

(전문가 #1)

## 4. 시사점

### 가. 지역 내 문제 해결 중심 접근

일부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내의 문제를 해결과 이를 통한 평화의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맥락적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폭력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은 상향식(Bottom-up) 소통을 통해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 접근은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기에 프로그램 유지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진다. 대표적으로 Kick 4 Life의 경우 축구대회에 기반한 건강 캠페인으로 시작하여 지역사회 내의 모범 실천 사례로 인식된 이후 지역 스포츠클럽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로컬화는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연계가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한 전략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성인보다 낮은 연령대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비교적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 평화의 역량을 교육하는 것이 평화의 문화를 구축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공유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연령의 제한은 교육 효과의 지속의 측면에서 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프로그램들 또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첫째, 상당수의 단기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PeacePlayers International의 경우 참여자들에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후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의 경우 참여자들이 각 국가로 돌아가 올림픽휴전홍보대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 구성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가족, 이웃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상위 관리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없어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소셜 미디어를 통한 교류이다. 실무 운영진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들과 교류하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다. 제시한 세 가지 전략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프로그램에 개인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다. 프로그램의 연계성 확보

Peace and Sport와 Soccer Without Borders를 포함한 프로그램들은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간 연계성 확보는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Peace and Sport의 'methodology'와 같은 코치 육성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코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코치의 전문성 향상 및 프로그램의 효과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occer Without Borders는 이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Virtual Summer Academy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신체활동 감소, 학습 지원 서비스의 감소 등 이민 청소년이 방학기간 동안 마주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별도 캠프 운영을 통한 소외계층 학업 증진 등 메인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내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며, 연계 방식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지역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참여자 및 장소 확보이다. Peace First는 대학교와 협업하며,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특정 수업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코치 혹은 스태프로써 참여하는 대학생을 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프로그램에서도 대학교와 PYD 프로그램을 연계해주는 방식의 활동이 확인되었다. 둘째, 현장과 국제기구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IOTC의 Imagine Peace Youth Camp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올림픽 휴전 홍보대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현장 프로그램을 수강한 청소년을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인 올림픽과 관련된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마. 보완점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및 운영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부 SDP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프로그램의 효과 확인 및 평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Coalter, 2013; Kidd, 2011).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가치 기반의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정량적 평가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존속은 정치적 이슈로 인해 결정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도 정치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 확인 및 평가 방식의 마련, 그리고 정치적 변화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보편화 및 내실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 제5장



## 스포츠 평화교육의 개념과 모형



## V. 스포츠 평화교육의 개념과 모형

앞에서 기술한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관련 학술 문헌에서 다루어지거나 분석된 사례들이다. 스포츠 평화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각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가치를 검토하고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유형화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프로그램의 운영방식, 구성요소 등 특징을 분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스포츠 평화교육 모형 탐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1. 스포츠 평화교육의 프로그램 가치와 목표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들은 각각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주요 가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스포츠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치는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공동체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가치는 개인의 성장 및 발전에 필요한 가치들로서, 건강, 회복력, 라이프스킬과 같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치들뿐 아니라, 책임감,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같이 평화의 문화를 구축함에 있어 개인적 차원에서 함양되어야 할 역량과 가치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가치 함양을 우선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관계적 차원의 가치는 신뢰, 협동, 존중과 같이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치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스포츠 평화교육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서, 신체활동을 통해 상대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습득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가치는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넓은 범위의 사회적 가치를 의미한다. 공존, 분쟁해결, 통합과 같은 가치들이 이에 해당되며, 각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와 맞닿아 있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저마다 추구하는 가치를 설정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스포츠를 통한 개인 역량의 함양이 지역사회의 발전, 평화의 문화 구축의 기반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스포츠 평화교육의 유형 분류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각 기관별 개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통해 프로그램을 분류하고자 하였고, 각 분류 범주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모형을 탐구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가. 스포츠의 활용 형태

‘스포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질문은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로 인해 스포츠 종목, 참가대상, 교육장소, 교육기간 등의 방향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Coalter(2007)가 제시한 ‘Plus Sports’, ‘Sports Plus’의 스포츠 프로그램 유형의 구분 방식은 평화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포츠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범주기준이 된다. Sports Plus 프로그램은 스포츠 활동 자체의 교육적 경험에 주된 강조를 두고 이를 통해 비스포츠적 목표인 평화의 가치를 습득하고 평화를 배우는데 목적을 두며, PeacePlayers International, Football for Peace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PeacePlayers International 프로그램은 시작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단일 정체성’ 그룹 내의 청소년들끼리 활동을 실시하고 이후 다른 인종 또는 국가 그룹의 학생들과 연습 및 게임을 진행함으로써 종교나 인종과 같은 차이를 초월하는 집단 간 유대관계 형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Plus Sports 프로그램은 비스포츠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스포츠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평화교육의 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포츠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분석된 프로그램 중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 IOTC)의 Imagine Peace Youth Camp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올림픽 가치의 전파와 분쟁해결을 위해 고대 올림픽 종목을 체험하고 메달리스트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둘 중 하나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부 프로그램은 두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혼합하여 각각 프로그램을 보완하거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Kick 4 Life 프로그램의 경우, 축구 토너먼트 경기를 개최하고 라이프스타일 교육과 HIV/AIDS 교육 부스를 병행하는 이벤트뿐만 아니라 FIFA의 Football for Hope Centre 운영 주체로서 소외계층 청소년의 라이프스킬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신체표현 코스나 축구와 같은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스포츠 종목의 선택 또한 스포츠의 활용과 연관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농구, 축구와 같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인기 있고 보편적인 스포츠를 선택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Soccer without Borders의 경우 축구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간주하고 있으며, Football 4 Peace의 경우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인 축구를 종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적정 인원과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농구를 선택한 PeacePlayers International의 경우도 조사되었다.

## 나. 참가 대상자

평화교육 스포츠 프로그램의 참가 대상자는 신체활동의 수준을 고려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상자의 주요 특징으로 연령, 성별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존재할 수 있다. 먼저 분석한 해외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연령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평화의 역량을 기름에 있어 가장 적합한 연령대를 어린이, 청소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Football 4 Peace의 경우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4~6학년에 해당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PeacePlayers International의 경우 10~14세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인종에

다른 참가자를 구분하기도 하고, Laureus Sport for Good의 일부 프로그램은 장애인이나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을, Peace and Sport가 요르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Live together 프로그램은 난민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 프로그램은 신체활동, 스포츠 활동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포츠 공간을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징을 보인다.

## 다. 프로그램 구성

각 기관은 단일 또는 복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제공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의 구성에 따라 단일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 부가적 프로그램,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Kick 4 Life, Open Fun Football Schools는 단기 이벤트 또는 여름방학 축구 캠프와 같은 단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Laureus Sport for Good의 경우 지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을 주로 하고 있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개별 국가 차원에서 살펴보았을 때, 단일 프로그램 운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PeacePlayers International, Football 4 Peace, Peace and Sports의 Peacemakers Project, Generations for Peace의 경우 주요 프로그램과 더불어 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과 이를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대상자를 지도할 코치, 교육자,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부가적 프로그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PPI는 주로 10~1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리더십 발달 프로그램을 통해 18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나아가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 그 외에도 F4P는 주요 프로그램 전 코치 교육 세션을 선행하고 있으며, Peace and Sport는 ‘Methodology’, Generations for Peace는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도자, 코치에 대한 역량 강화 또한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운영 기관의 경우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Soccer without Borders가 그 예이다. SWB는 축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Virtual Summer Academy(VSA)를 운영하는데, 이는 이민 청소년들의 여름방학 동안의 학습 제약과 고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영어 언어능력 발달’, ‘웰니스’, ‘신체적 건강’, ‘사회적 관계’의 네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영어학습, 신체활동 프로그램, 면담, 교류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Right to Play에서 운영하는 ‘Sport Works’와 ‘Sport Health’, 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의 ‘Imagine Peace Youth Camp’와 ‘Peacejam’ 등도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라. 프로그램 기간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진행되는 기간에 따라 단기,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 프로그램의 예는 Football 4 Peace Korea, Kick 4 Life, Open Fun Football Schools가 해당된다. Football 4 Peace Korea의 경우 3~4일 동안 매일 2-3시간씩 진행되는 축구 프로그램이며, Open Fun Football Schools의 경우 여름방학을 이용한 5일 프로그램이다. Kick 4 Life의 경우 클럽 형태로 지속되고 있지만, 주요 프로그램은 단기 토너먼트와 이벤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기 프로그램의 특징은 지정된 장소에서 압축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스포츠의 기능적 발달 보다는 기능 수준을 낮춘 놀이 형태의 신체활동을 활용하고 즐거움, 기쁨과 같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도 전달이 가능한 감정 경험과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제한된 장소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캠프 형태의 프로그램들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2개월 이상의 장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Soccer without Border와 같은 프로그램은 중장기 프로그램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Soccer without Border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지역사회 측면의 문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에 비교적 오랜 프로그램 기간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간의 특징은 스포츠 기술의 발달에도 긍정적이며, 특히 소외계층의 경우 프로그램 환경과 내용에 적응하고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스포츠 평화교육의 개념

평화교육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온 반면, 관련 프로그램들의 역사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평화교육’의 개념을 정식화하기 위한 시도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지금까지 평화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 스포츠가 도구적으로 사용되어왔고, 교육의 대상자와 목표에 따라 스포츠 종목, 수준이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규칙 기반의 경쟁 스포츠(rule-based competitive sports)의 형태를 하고 있기도 하며, 놀이(play) 형식의 간단한 신체활동이 진행되기도 한다. 또한, ‘피스모모’와 같이 토론 및 포럼 주제로서 스포츠 관련 이슈가 제시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스포츠 평화교육의 실천 사례는 스포츠를 통해 평화의 문화를 가르친다는 공통된 목적을 나타낸다. 따라서 스포츠 평화교육은 스포츠를 의도적·조작적으로 구성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교육방식으로서, 평화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스포츠 상황을 활용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4. 스포츠 평화교육의 모형

#### 가. 평화교육 내용에 따른 분류

Harris & Morrison(2013)은 평화교육을 국제교육, 인권교육, 발전교육, 환경교육, 갈등해결교육으로 분류하였다. 국제교육은 국제적인 법과 제도가 분쟁을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는 방식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권교육은 평화교육의 측면에서 집단 간 고정관념 및

적대행위의 감소를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발전교육은 구조적 폭력을 유발하는 사회적 조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이해를 교육하는 것, 갈등해결 교육은 인간관계 기술에 대한 교육을 의미한다(Harris, 200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상의 평화교육 유형은 sport plus 그리고 plus sport 형태로 제공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평화교육에 부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스포츠 평화교육의 내용에 따른 분류를 (표 16)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쟁활동 교육이다. 경쟁활동 교육은 스포츠의 본질인 ‘경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경쟁활동 모형은 대체로 스포츠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활동을 위주로 구성될 수 있다. 스포츠를 통해 갈등의 상황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 갈등해소 방식과 상호작용, 소통 등의 관계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나치게 경쟁과 승리 추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 또는 기관이 교육 효과의 달성을 위해 스포츠 조건을 전략적으로 조절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폭력예방 교육이다. 스포츠를 활용한 폭력예방 교육은 스포츠를 통해 규율의 중요성을 학습하는 데 그 목적을 둘 수 있다. Fight for Peace 프로그램을 하나의 활용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복싱, 유도 등 무도/무술/격투 종목을 활용한 폭력의 간접 체험과 규칙 준수 등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발전 모형은 스포츠 평화교육의 유관영역 중 SDP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해당될 수 있다. 스포츠를 통한 개인의 역량 개발과 관계 변화가 지역사회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상호이해, 존중, 관계 개선을 주요 가치로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제시될 수 있다. 넷째, 안전공간 교육은 스포츠활동을 통해 스포츠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문화로서 정착시키는 과정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Peace and Sport와 같이 분쟁지역 또는 소외 지역에서 평화 구축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공간 속에서 신체활동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Soccers without Borders와 같이 그동안 신체활동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여성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프로그램도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계와 환경, 사회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평화의 문화 가치를 체험하도록 할 수 있다. 다섯째, 생태환경 교육이다. 생태환경 교육은 지금까지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영역으로서 스포츠와 신체활동이 경험되는 공간의 대부분이 실외, 야외, 자연환경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16. 스포츠 평화교육의 모형

연번	구분	특징
1	경쟁활동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포츠의 본질인 경쟁의 학습</li> <li>갈등, 분쟁의 체험과 극복하기 위한 협동, 존중 등의 이해</li> </ul>
2	폭력예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 체험을 통한 타인의 이해</li> <li>규칙, 규율 준수의 중요성 확인</li> </ul>
3	지역발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 발전을 위한 개인역량 개발</li> <li>개인 간의 관계 발전을 통한 평화문화의 구축</li> </ul>
4	안전공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포츠 공간 = 안전한 공간으로의 인식 변화</li> <li>분쟁지역의 구성원 또는 소외계층이 평화롭게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제공</li> </ul>
5	생태환경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과 자연의 관계 이해</li> <li>자연을 직접 체험하는 야외교육 프로그램</li> </ul>

## 나. 유관 영역에 따른 분류

스포츠 평화교육의 유관 영역으로 ‘스포츠를 통한 개발과 평화(SDP)’, ‘스포츠를 통한 긍정적 청소년 발달(PYD)’, ‘올림픽교육(OE)’, ‘스포츠 인권교육(HRE)’ 등의 영역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유관영역들은 1990년대 후반 시작되면서 2000년대 들어와 본격화되었고, 평화학적 관점에서 인간중심 접근, 적극적 평화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평화의 문화 패러다임 전환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다. 평화교육 목적에 따른 분류

Coalter(2007)는 스포츠 개발에 대한 접근법을 2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분류는 스포츠가 개발 및 발전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졌다. 특히, 명확한 목표 부재와 성과 평가의 난점에 대한 Kruse(2006)의 논의를 반영하여 Sport Plus와 Plus Sport로 분류하였다.

먼저, Sport Plus는 참여증가 및 스포츠 기술 발전과 같은 전통적인 스포츠 발전/개발 목표가 강조된다. 스포츠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데 활용되지만, 스포츠 자체의 경험과 학습에 보다 중점을 둔다. 반면, Plus Sport의 관점에서는 비스포츠적 목적인 사회, 교육,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우선시되며, 이에 대한 성과가 스포츠 자체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물론 이 양자의 범주는 연속체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명확하게 그 과정과 성과가 구분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한 분류기준으로 프로그램의 결과 및 성과를 파악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port Plus와 Plus Sport는 SDP 프로그램을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 기준을 활용하여,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범주화 할 수 있다. 즉, 스포츠 평화교육의 목적은 크게 스포츠 기술을 발달시킴과 동시에 평화의 가치를 교육하는 것과 평화의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 스포츠를 활용하는 것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 라. 평화교육의 구성요소에 따른 분류

Reardon(1988)과 Jenkins(2013)는 평화교육의 구성요소로 평화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Peace)과 평화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Peace)으로 제시하였다. 평화에 대한 교육은 평화교육의 일반적인 목적에 달성하고자 하는 평화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화에 대한 교육이 평화 구축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논쟁에 따라, 평화를 위한 교육이 제시되었다. 평화를 위한 교육은 평화 구축의 기술, 태도, 가치를 습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교육을 의미한다(Jenkins, 2013; Reardon, 1988).

스포츠 평화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성요소에 따라 ‘평화 구축을 위한 스포츠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sport for peacebuilding)’과 ‘평화 구축을 위한 스포츠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sport for peacebuilding)’으로 분류될 수 있다. ‘평화 구축을 위한 스포츠에 대한 교육’은 평화를 구축하는 방식으로서 스포츠의 역할 및 가치에 대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으며, ‘평화 구축을 위한 스포츠를 위한 교육’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스포츠를 활용하는 역량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마. 스포츠 평화교육 모형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유형과 내용은 간단하게 범주화 될 수 없는 복합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지나친 단순화의 모험을 무릅쓰고 스포츠 평화교육의 개념 및 분류에 따른 스포츠 평화교육의 모형을 <그림 30>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스포츠 평화교육의 목적은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문화 교육”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스포츠 평화교육 내용, 목적, 구성요소 등 앞서 분류한 기준에 따라 스포츠 평화교육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 평화교육의 내용에 따른 분류와 목적에 따른 유형이 고정되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기준의 조합과 접목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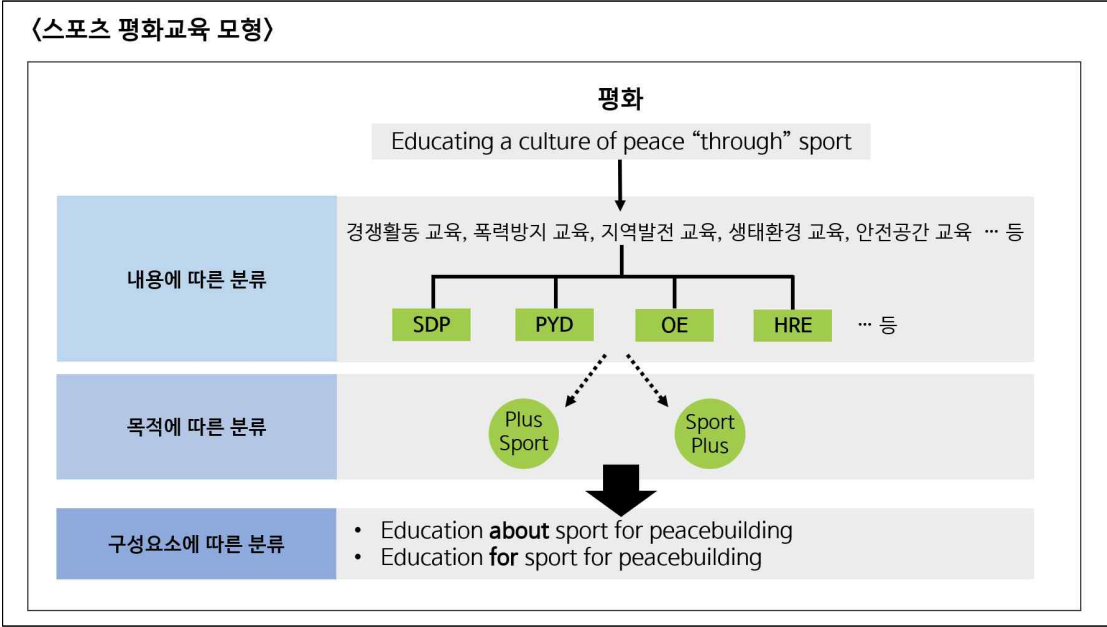


그림 30. 스포츠 평화교육 모형





# 제6장



요약

## VI.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평화학의 연구지형에 대한 개념적 분석에 기반하여 스포츠 평화학 탐구의 실천적 영역으로서 스포츠 평화교육의 실태 분석과 더불어 개념 및 모형을 탐구하고자 함이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 평화교육을 포함한 스포츠 평화학의 연구지형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후 스포츠 평화교육의 유관 영역(SDP, PYD, OE, PHR) 분석과 실태 분석(국내외 프로그램, 전문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한국적 맥락을 고려한 스포츠 평화교육의 개념과 모형에 대해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스포츠, 평화, 평화교육에 대해 탐구하였으며 이는 스포츠-평화 그리고 평화학, 평화교육과 스포츠 두 갈래로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스포츠-평화 그리고 평화학에서는 양면성과 전략적 접근으로의 스포츠-평화 연계, 평화의 개념과 평화학 그리고 스포츠, 평화의 문화 패러다임과 스포츠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평화교육과 스포츠에서는 평화교육의 개념 및 관점, 평화교육의 영역 및 유형, 평화교육의 의미와 쟁점, 스포츠와 평화교육, 국내 평화교육에서의 스포츠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국내 평화교육 스포츠 활용 사례인 피스모모, 어린이어깨동무, 국제평화축구코리아 등을 통하여 평화교육이 실천되는 모습을 파악하였다.

스포츠-평화의 연계적 현상들을 중심으로 스포츠 평화교육 유관영역을 분석하기 위하여 스포츠를 통한 개발과 평화(SDP), 긍정적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PYD), 올림픽교육(Olympic Education; OE), 그리고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 HRE) 총 네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네 가지 영역들의 개념 및 프로그램 사례, 관련 쟁점, 평화교육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으며 먼저 SDP에서는 실제 스포츠 활동을 통한 발전에 ‘스포츠로 인한 평화적인 사회변화를 통한 발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과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SDP와 평화교육의 효과적 연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PYD에서는 청소년 발달이 청소년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글로벌 발달을 추구하는 관점과 포괄적 평화교육이 함께 다루어질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PYD는 평화구축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데, 이는 거시적 생태체계 차원에서 청소년을 위한 평화로운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다(McNeil, 2021). 1896년 근대올림픽의 부활은 올림픽운동 정신과 올림픽즘에서 보듯이 세계 청년들 간 우호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 따라서 올림픽즘과 올림픽 운동에서 평화는 OE는 자체적으로 평화교육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평화를 위한 인권교육은 평화구축과 연결되며, 스포츠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인식 변화를 통해 평화의 문화를 추구하는 초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유관영역 분석을 기반으로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프로그램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학술문헌에서 전반적으로 우수 사례로 다루어진 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PeacePlayers International, Soccer Without Borders, Right to Play, 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 Football 4 Peace, Peace and Sport, Kick4Life,

Open Fun Football Schools, Laureus Sport for good, Generations for Peace, Peace First 등 총 11개의 프로그램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기업 및 구단, 종교단체, 시민단체, (대한/장애인/지방) 체육회, 종목단체, 공공기관, 지자체, 2018평창기념재단에서 주최하는 유관영역 스포츠 프로그램 총 359개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 심층면담을 진행하며 평화에 대한 인식, 평화교육으로서 스포츠의 활용 가능성, 평화교육의 과제에 대한 접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하는 시사점은 크게 5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 로컬화를 통한 지역 내 문제 해결 중심 접근, 둘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한 전략 제공 필요성, 셋째, 프로그램의 연계성 확보, 넷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다섯째, 프로그램 효과 확인 및 평가의 어려움 혹은 정치적 이슈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인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들의 스포츠 활용 형태, 참가 대상자,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기간 등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평화교육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역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만, ‘스포츠 평화교육’의 개념에 대한 시도는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유관영역 및 해외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스포츠 평화교육은 평화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포츠를 전략적으로 구성하고 활용하는 교육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평화교육 내용에 따른 분류, 유관 영역에 따른 분류, 평화교육 목적에 따른 분류, 평화교육의 구성요소에 따른 분류를 통해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 유형분류에 추가적으로 경쟁활동 교육, 폭력예방 교육, 지역발전 교육, 안전공간 교육, 그리고 생태환경 교육의 5가지 유형을 범주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구성요소 등을 고려하는 분석틀로서 스포츠 평화교육 모형을 제시하였다.

## 참고문헌

- 구정화(2017). 중·고등학생의 학생 인권보장 인식에 영향을 주는 학교환경 분석. **법교육연구**, 12(2), 77-102.
- 국가인권위원회(2009. 11. 2.). 제3회 〈스포츠 인권 정책 포럼〉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개정 국가인권위원회훈련 제333호).
- 국가인권위원회(2022).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체육진흥공단. <https://www.kspo.or.kr/kspo/main/main.do>
-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2022). 국제올림픽아카데미(IOA, International Olympic Academy).
- 권구순, 이대훈, 윤지영, 황정인(2019). **SDG16 (평화) 논의 및 이행현황 분석: 한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보고서.
- 권순용(2015). 스포츠사회학의 최근 연구동향: 스포츠를 통한 발전/개발과 평화(SDP). **체육과학연구**, 26(4), 659-677.
- 김동선(2017).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추진기조와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6), 1-21.
- 김두현. (2021. 4. 6.).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운동부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 호남교육신문.
- 김미숙(2004). 북한의 스포츠 이념과 남북스포츠교육의 한계에 관한 연구.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2(2), 343-361.
- 김범수, 김병로, 김성희, 김학재, 이성우, 최은영, 황수환 외(2022). **2022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김병연(2011). 평화교육 교수학습체계에 관한 연구. **윤리철학교육**, 15, 55-78.
- 김병욱(2009). 인권에 관한 윤리철학 및 정치철학 측면의 검토. **윤리연구**, 73(1), 225-266.
- 김성철(2021). 평화학의 진화: 연원, 계보, 복합화. **통일과 평화**, 13(2), 5-78.
- 김진희, 이로미, 김자영(2019). 학교 현장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담론, 문제점 및 실천방향. **시민교육연구**, 51(2), 71-94.
- 나정은, 김민호, 박예슬, 김미선(2023). 스포츠 인권교육을 경험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감독, 코치, 선수의 인식 조사: 멘티미터 프로그램 활용. **코칭능력개발지**, 25(1), 33-45.

- 박명규, 김성철, 이찬수, 신문수, 박희병, 서보혁, 이동기 외(2013). **녹색평화란 무엇인가**. 아카넷.
- 박보영(2005). 한국의 평화교육 연구사: 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11, 17-196.
- 박성주(2022). 스포츠인권교육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61(4), 1-12.
- 박종률(2007). 개선되어야 할 체육 수업 문화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4(4), 25-42.
- 배재윤(2022). 올림픽과 남북단일팀: 평화올림픽의 배경이 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 **한국체육학회지**, 61(2), 203-226.
- 변종현(2018). 평화문화 창출을 위한 평화교육의 방향과 과제. **윤리연구**, 1(12), 263-292.
- 서보혁, 정육식(2016). **평화학과 평화운동**. 모시는 사람들.
- 서재철, 서정석(2018). ‘올림픽 교육’ 현상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방향성 제언.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6(1), 123-141.
- 서정아, 반은기, 박진혁(2017). **서클타임 실전 매뉴얼**. 비폭력평화물결.
- 손진희, 노자은(2018). 청소년 돌봄서비스 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11(1), 125-150.
- 신현군(2014). 올림픽가치교육 (OVEP) 의 철학적 및 교육적 가치와 실제. **한국스포츠학회**, 12(1), 83-96.
- 오덕열(2019). 평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연구. **인격교육**, 13(1), 75-107.
- 오덕열(2021). 평화교육 분야 질적연구의 현황과 과제: KCI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인격교육**, 15(2), 45-68.
- 윤종갑, 신순정(2016). 인권의 보편성과 유교윤리-서구의 인권 개념과 케어윤리를 통한 유교윤리의 현대적 모색. **윤리학**, 5(1), 23-52.
- 은용수, 김성철(2022). 존재론적 안보 (ontological security)의 동학: 미국의 대중 강경책과 미중경쟁. **국제정치논총**, 62(2), 67-106.
- 이대훈(2016). **모두가 모두에게 배우는 P.E.A.C.E. 페다고지 평화교육**. 피스모모.
- 이동기(2020). 세계시민 관점의 평화교육.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한국 세계시민교육이 나아갈 길을 묻다** (pp. 157-177). 살림터.
- 이슬기(2019).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탈분단 담론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55, 83-102

- 이찬수(2016). **평화와 평화들: 평화다원주의와 평화인문학**. 모시는사람들.
- 이현수(2022). **긍정적 청소년 발달 매뉴얼**. 학지사.
- 이현정(2020). 수요자 중심 적정기술 성공사례 연구: 에누마의 킷킷스쿨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49-72.
- 임승엽, 최영진, 임영삼(2018). 2018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에 대한 사회학적 담론. **한국스포츠사회학회**, 31(4), 65-81.
- 전지훈, 강현철(2015). 지역기반 사회적경제를 위한 이론적 기반의 탐색적 연구: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 사상을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구 사회과학연구)**, 39(1), 201-238.
- 정기웅(2017). 평창 동계올림픽의 정치. 외교: 스포츠는 여전히 유용한 도구인가?. **국제관계연구**, 22(2), 175-200.
- 정용철, 정윤수, 박정준(2016). **스포츠 인권을 만나다**. 나북.
- 정지수, 김경이(2020). 평화교육 연구동향 분석: 2000년~2020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인격교육**, 14(3), 65-86.
- 정진(2016). **회복적 생활교육 학급운영 가이드북**. 피스빌딩.
- 조성현, 정영선(2021). 초등학교 인권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15(1), 347-383.
- 조정아, 김엘리, 문아영, 윤보영(2019).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KINU 연구총서
- 최관경(2009). 21세기의 평화와 평화교육. **교육사상연구**, 23(1), 1-25.
- 최송아, 권남희(2018). 한국형 올림픽가치교육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 탐색: 초·중등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29(1), 154-169.
- 하재필, 하제현(2016). From MDGs to SDGs: 개발을 위한 스포츠 (SFD) 운동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SFD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선진화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55(2), 393-402.
- 한가희. (2021. 2. 15.). '제4회 이매진 피스 유스 캠프' 평화도시 평창에 국제캠프 개최.
- 허수미(2008). 인권적 문화 형성을 위한 인권교육 방향 설정. **사회과교육**, 47(4), 153-181.
- 홍순정(2007). **평화교육탐구**. 에피스테메.
- 홍애령, 안지연(2016). 스포츠가치교육으로서 올림픽가치교육프로그램 (OVEP)의

- 교육적 가능성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3(2), 1-24.
- 홍용표(2018). *평화문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한국에서의 의미와 과제*.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 Anderson-Butcher, D., Fox, J. Davis, J., Moore, S., Henderson, T., & Magier, E. (2018a). *Learning in fitness and education through sports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LiFEsports): Partnerships providing sustainability to youth programming*. LiFEsports.
- Anderson-Butcher, D., Martin, E., Paluta, L., & Gould, D. (2018b). Patterns of social skill development over-time among clusters of LiFEsports participa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87, 17-25.
- Bardocz-Bencsik, M., & Doczi, T. (2019). Mapping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as Bourdieu's field. *Physical Culture and Sport. Studies and Research*, 81(1), 1-12.
- Bates, E. A., Klement, K. R., Kaye, L. K., & Pennington, C. R. (2019). The impact of gendered stereotypes on perceptions of violence: A commentary. *Sex Roles*, 81, 34-43.
- Bell, D. (2000). *East meets West: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East Asia*.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lloni, R. (2001). Civil Society and Peacebuilding in Bosnia and Herzegovina. *Journal of Peace Research*, 38(2), 163-180.
- Beutler, I. (2008). Sport serving development and peace: Achieving the goals of the United Nations through sport. *Sport in Society*, 11(4), 359-369.
- Bloomfield, D., Barnes, T., & Huyse, L. (2003). *Reconciliation after violent conflict: A Handbook*. International IDEA.
- Cárdenas, A. (2013). Peace building through sport? An introduction to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Journal of Conflictology*, 4(1), 4.
- CCPA. <http://ccpa/eu>
- Chesbrough, H. W. (2003). *Open innovation: 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 Harvard Business Press.
- Clappison, S. (2004). Right to Play [SportsWorks Program] [SportHealth Program]. *Physical & Health Education Journal*, 70(2), 36.
- Coakley, J. (2011). Youth Sports: What Counts as "Positive Development?"



-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35(3), 306-324.
- Coakley, J. (2021). Organized youth sports: Whose interests do they serve?. In J. Coakley, *Sport in society: Issues and controversies* (13th ed., pp. 82-119). McGrawHill.
- Coalter, F. (2007). *A Wider Social Role for Sport: Who's Keeping the Score?*. Routledge.
- Coalter, F. (2010). *Sports development's contribution to social policy objectives: The difficult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evidence*(1st ed). Routledge.
- Coalter, F. (2013). *Sport-for-development: What game are we playing?*. Routledge.
- Cohen, D. (2018). *The development of play*. Routledge.
- Collier, P. (2001). Implications of ethnic diversity. *Economic Policy*, 16(32), 128-166.
- Corry, L. (2015). *A brief history of numbers*. OUP Oxford.
- CPSU(Child Protection in Sport Unit). <https://thecpsu.org.uk/>
- Darnell, S. C. (2007). Playing with race: Right to Play and the Production of Whiteness in 'Development through Sport'. *Sport in Society*, 10(4), 560-579.
- Darnell, S. C. (2010). Power, politics and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Investigating the utility of spor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ociology of Sport Journal*, 27(1), 54-75.
- Darnell, S. C. (2011). Conflict, education and sport: Responses, cautions and questions. *Conflict and Educatio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1(1), 1-7.
- Darnell, S. C., Field, R., & Kidd, B. (2019). *The history and politics of sport-for-development*. Palgrave Macmillan UK.
- Dart, J. (2022). Sport and peacebuilding in Israel/Palestine. *Journal of Global Sport Management*, 7(2), 267-288.
- De Coning, C. (2016). From peacebuilding to sustaining peace: Implications of complexity for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Resilience*, 4(3), 166-181.
- Donnelly, P. (2011). From War without Weapons to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The Janus-face of sport. *The SAIS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31(1), 65-76.

- Donnelly, T. T., Hwang, J. J., Este, D., Ewashen, C., Adair, C., & Clinton, M. (2011). If I was going to kill myself, I wouldn't be calling you. I am asking for help: Challenges influencing immigrant and refugee women's mental health.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32*(5), 279-290.
- Edwards, M. B. (2015). The role of sport in community capacity building: An examination of sport for development research and practice. *Sport Management Review, 18*(1), 6-19.
- Eitzen, S. (2003). *Fair and Foul: Beyond the Myths and Paradoxes of Sport*(6th ed). Rowman & Littlefield.
- Fight for Peace(FFP). <https://fightforpeace.net/>
- Fokwang, J. (2009). Southern perspective on sport-in-development: A case study of football in Bamenda, Cameroon. In S. Darnell & D. Howe (Eds.), *Sport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pp. 198-218).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 Football 4 Peace Korea. <http://www.f4pkorea.org/index.php>
- Football 4 Peace. <https://www.football4peace.org.uk/>
- Galtung, J. (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6*(3), 167-191.
- Galtung, J. (1990). Cultural viol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27*(3), 291-305.
- Galtung, J. (1996).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Sage.
- Gasser, P. K., & Levinsen, A. (2004). Breaking post-war ice: Open fun football schools in Bosnia and Herzegovina. *Sport in society, 7*(3), 457-472.
- Generations for Peace. <https://www.generationsforpeace.org/en/>
- Giulianotti, R. (2004). Human Rights, Globalization and Sentimental Education. *Sport in Society, 7*(3), 355-369.
- Giulianotti, R. (2011). The Sport, Development and Peace Sector: A Model of Four Social Policy Domains. *Journal of Social Policy, 40*(4), 757-776.
- Giulianotti, R. (2012). The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Sector: An Analysis of its Emergence, Key Institutions, and Social Possibilities. *The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18*(2), 279-293.

- Guillaumont, P., & Chauvet, L. (2001). Aid and Performance: A Reassessment.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7(6), 66-92.
- Güldenpfennig, S. (1985). Sport in the Peace Movement—A Challenge for the Sport Science.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20(3), 203-213.
- Hamilton, M. T., Hamilton, D. G., & Zderic, T. W. (2004). Exercise physiology versus inactivity physiology: an essential concept for understanding lipoprotein lipase regulation. *Exercise and sport sciences reviews*, 32(4), 161.
- Harris, I. M. (2004). Peace education theory. *Journal of Peace Education*, 1(1), 5-20.
- Harris, I. M. & Morrison, M. L. (2013). *Peace education* (3rd ed.). McFarland.
- Hartmann, D., & Kwauk, C. (2011). Sport and Development: An Overview, Critique, and Reconstruction.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35(3), 284-305.
- Harvey, J. (2014). *The Fight for the Four Freedoms*(1st ed). Simon & Schuster.
- Harvey, J., Horne, J., Safai, P., Darnell, S., & Courschesne-O'Neill, S. (2014). *Sport and social movement: From the local to the global*. Bloomsbury.
- Hayhurst, L. M. (2009). The power to shape policy: Charting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policy discourse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olicy and politics*, 1(2), 203-227.
- Horn, T. S. (2008). *Advances in sport psychology*. Human Kinetics.
- Houlihan, B., & White, A. (2002). *The Politics of Sports Development: Development of Sport or Development through Sport?*. Routledge.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2016). The Fundamentals of Olympic Values Education.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2023). Olympic Charter.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https://olympics.com/ioc/beyond-the-games>
- ISF Cambodia (ISF). <https://isfcambodia.org/>
- Jenkins, T. (2013). The transformation imperative: the National Peace Academy as an emergent framework for comprehensive peace

- education. *Journal of Peace Education*, 10(2), 172-196.
- Kamberidou, I. (2008). Promoting a culture of peacemaking: Peace games and peace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 176-188.
- Kamberidou, I. (2011). Athletes United for Peace: Reconciliation through Sport. *Sport as a Mediator between Cultures*, 187.
- Kay, T. (2009). Developing through sport: Evidencing sport impacts on young people. *Sport in Society*, 12(9), 1177-1191.
- Khalid, N., Izzi, V., Bishop, V., MacNeil, C., Altiok, A., Onyango, W., ... & Budur, D. (2021). *Securitizing Youth: Young People's Roles in the Global Peace and Security Agenda*. Rutgers University Press.
- Kick4Life. <http://www.kick4life.org/>
- Kidd, B. (2008). A new social movement: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Sport in Society*, 11(4), 370-380.
- Kidd, B. (2011). Cautions, Questions and Opportunities i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Third World Quarterly*, 32(3), 603-609.
- KitKitschool. <https://www.kitkitschool.com/>
- Krasniqi, A. (2012).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Development in Kosova*. Nova Science Pub Inc.
- Krasniqi, S., & Krasniqi, B. (2019). Sport and peacebuilding in post-conflict societies: the role of Open Fun Football Schools in Kosovo. *Journal of Aggression, Conflict and Peace Research*, 11(3), 145-157.
- Kvalsund, P., Nyheim, D., & Telford, J. (2004). *CCPA Open Fun Football Schools: An Evaluation for Danida*. CCPA.
- Larson, R. W. (2000). Toward a psychology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5(1), 170.
- Larson, R. W., & Verma, S. (1999). How children and adolescents spend time across the world: Work, play, and developmental opportunities. *Psychological Bulletin*, 125(6), 701-736.
- Laureus Sport for good. <https://www.laureus.com/sport-for-good>
- Lederach, J. P., & Hampson, F. O. (1998).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International Journal*, 53(4), 799.
- Lerner, R. M., Almerigi, J. B., Theokas, C., & Lerner, J. V. (2005). Positive

- Youth Development A View of the Issue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5(1), 10-16.
- Lerner, R. M., Lerner, J. V., Almerigi, J. B., Theokas, C., Phelps, E., Gestsdottir, S., ... & von Eye, A. (2005). Positive youth development, participation in community youth development programs, and community contributions of fifth-grade adolescents: Findings from the first wave of the 4-H study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5(1), 17-71.
- Levermore, R. (2008). Sport: A new engine of development?. *Progress in Development Studies*, 8(2), 183-190.
- Levermore, R., & Beacom, A. (2009). *Sport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Palgrave Macmillan.
- Levermore, R., & Beacom, A. (2012). Reassessing sport-for-development: Moving beyond 'mapping the terri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olicy and Politics*, 4(1), 125-137.
- Levinsen, A. (2009). 13. Inter-ethnic football in the Balkans: reconciliation and diversity 1. *Sport, Ethics and Philosophy*, 3(3), 346-359.
- LiFEsports. <https://lifesports.osu.edu>
- Marlier, M., Constandt, B., Schyvinck, C., De Bock, T., Winand, M., & Willem, A. (2020). Bridge over troubled water: linking capacities of sport and non-sport organization. *Social Inclusion*, 8(3), 139-151.
- Moran, J. C. (2014). Playing for Peace: Building relationships between Ugandan and refugee youth through football<sup>3</sup> at Soccer Without Borders Uganda. Capstone Collection. 2641.
- Mustafa, M., & Krasniqi, B. A. (2018). Entrepreneurship in Kosovo. Entrepreneurship in Former Yugoslavia: Diversity, *Institutional Constraints and Prospects*, 51-65.
- Mwanga, J. R., Lwambo, N. J., Rumisha, S. F., Vounatsou, P., & Utzinger, J. (2013). Dynamics of people's socio-economic status in the face of schistosomiasis control interventions in Ukerewe district, Tanzania. *Acta tropica*, 128(2), 399-406.
- Naofumi Suzuki. (2014). "Sport and Development" A Study on the "Indigenization" of NGOs: The Case of Kick4Life in the Kingdom of Lesotho. *Hitotsubashi University of Sport Studies*, 33, 3-15.

- Newman, B. M., & Newman, P. R. (2020). *Theories of adolescent development*. Academic Press.
- Nye, J. S. (2008).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94-109.
- Open Fun Football Schools. <https://ccpa.eu/open-fun-football-schools/>
- Parry, J. (2012). Sport and Olympism: Universals and Multiculturalism.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33(2), 188-204.
- Peace and Sport. (2022a). *Annual report 2022*.
- Peace and Sport. (2022b). *Peace and Sport Forum Editorial Report*.
- Peace and Sport. <https://www.peace-sport.org/>
- PeaceFirst. <http://www.peacefirst.org/>
- PeacePlayersInternational. <https://peaceplayers.org/>
- Peachey, J. W., Schulenkorf, N., & Hill, P. (2020). Sport-for-development: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oretical and conceptual advancements. *Sport Management Review*, 23(5), 783-796.
- Pittman, K., Irby, M., & Ferber, T. (2001). Unfinished business: Further reflections on a decade of promoting youth development. *Trends in youth development: Visions, realities and challenges*, 3-50.
- Reardon, B. (1988). *Comprehensive Peace Education: Educating for Global Responsibility*. Teachers College Press.
- Reardon, B.(2001). *Education for a culture of peace in a gender perspective*. UNESCO.
- Right to Play. <https://righttoplayusa.org/en/>
- Roberta, S. S., & Marilyn B. H. (1991).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A Challenge for Multi-ethnic Societies*. Routledge.
- Rosso, E. G., & McGrath, R. (2017). Community engagement and sport? Building capacity to increase opportunities for community-based sport and physical activity. *Annals of Leisure Research*, 20(3), 349-367.
- Roth, J., Brooks-Gunn, J., Murray, L., & Foster, W. (1998). Promoting Healthy Adolescents: Synthesis of Youth Development Program Evaluation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4), 423-459.
- Savolainen, K., Best, F., Meyer-Bisch, P., & Reardon, B. (1998). *All human*

- beings... a manual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ESCO.
- Schulenkorf, N. (2016). The contributions of special events to sport-for-development programs. *Journal of Sport Management*, 30(6), 629-642.
- Schulenkorf, N., Sugden, J., & Burdsey, D. (2014).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as contested terrain: Place, community, owne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olicy and Politics*, 6(3), 371-387.
- SDP IWG (2007). *From the field: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in action*. Right to Play.
- Shek, D. T., Dou, D., Zhu, X., & Chai, W. (2019). Positive youth development: Current perspectives. *Adolescent health, medicine and therapeutics*, 10, 131-141.
- Siedentop, D. (1994). Sport education: Quality PE through positive sport experiences. *Human Kinetics*.
- Slone Stephens Foundation. <https://www.sloanestephensfoundation.org/>
- SlumSoccer. <https://slumsoccer.org/index.php>
- Soccer Without Borders. <https://www.soccerwithoutborders.org/>
- Sotiriadou, K., Shilbury, D., & Quick, S. (2008). The Attraction, Retention/Transition, and Nurturing Process of Sport Development: Some Australian Evidence. *Journal of Sport Management*, 22(3), 247-272.
- Spacey, G., & Sugden, J. (2016). Football 4 peace: An activity-based community relations and reconciliation initiative. *Sports-based health interventions: Case studies from around the world*, 117-128.
- Sport for development & peace. (2006).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From practice to policy*. Sport for development & peace.
- Steinberg, L., & Lerner, R. M. (2004). The scientific study of adolescence: A brief history.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4(1), 45-54.
- Straume, S. (2018). *SDP structures, policies and funding streams*(1st ed). Routledge.
- Struthers, A. E. (2015). Human rights education: Educating about, through and for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19(1), 53-73.

- Sugden, J. (2006). Teaching and Playing Sport for Conflict Resolution and Co-Existence in Israel.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41(2), 221-240.
- Sugden, J. (2010). Critical left-realism and sport interventions in divided societies.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45(3), 258-272.
- Svensson, P. G. (2017). Organizational hybridity: A conceptualization of how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organizations respond to divergent institutional demands. *Sport Management Review*, 20(5), 443-454.
- The 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 <https://olympictruce.org/en/homepage/>
- Tuohey, B., & Cognato, B. (2011). PeacePlayers International: A case study on the use of sport as a tool for conflict transformation. *SAIS Review*, 37(1), 51.
- Ubaidullov, Z. (2018). Sport for peace: A New Era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eace through Sport. *Asia-Pacific Review*, 25(2), 104-126.
- UD. (2005). *Strategy for Norway's cultural and sports cooperation with countries in the south*. Osl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UNAIDS. <https://www.unaids.org/en>
- United Boxing. <https://www.laureus.com/>
- United Nations. (2004).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 Weiss, M. R., Bolter, N. D., & Kipp, L. E. (2016). Evaluation of The First Tee in promoting positive youth development: Group comparisons and longitudinal trend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87(3), 271-283.
- Whitley, M. A., Farrell, K., Wolff, E. A., & Hillyer, S. J. (2019).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Surveying actors in the field. *Journal of Sport for Development*, 7(12), 1-15.
- Wilson, B. (2012). *Sport and peace: A sociologic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Woodhouse, F. (2019). The Performative Arts and Pedagogy Project - Towards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Glossary. *Scenario* (Cork),



XIII(1), 99-105.

Woods, C., Caballero, R., & Svensson, G. (2017). Representation of Arctic moist intrusions in CMIP5 models and implications for winter climate biases. *Journal of Climate*, 30(11), 4083-4102.

Young, K., & Okada, C. (2014). *Sport, social development and peace*. Emerald Publishing Limited.